

건축사 건축사 537

 **KIRA** 2014 01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66년 창간

신년사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영수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주승용

에세이 — 인생수업의 졸업 선물은?
 — 건축 읽기: 미술관으로 들어온 건축

특집 — 부산·경남 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중 단열재 **에너지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지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블랙EPS 에너지포르 단면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지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지포르

www.kkpc.com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건축주의 고민 공사비 절감!

SLAF[®]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소음·진동·보온·단열·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 완벽한 시공을 위한 현장시공 기술자문 책임수행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기존 건물]

[SLAF 건물]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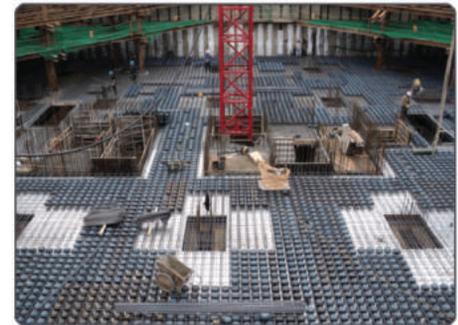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SLAF 공법 적용 후 전경 사진 (무량판 구조 : NO BEAM)



지상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지하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주)신화엔지니어링
SHINHWA ENGINEERING CO., LTD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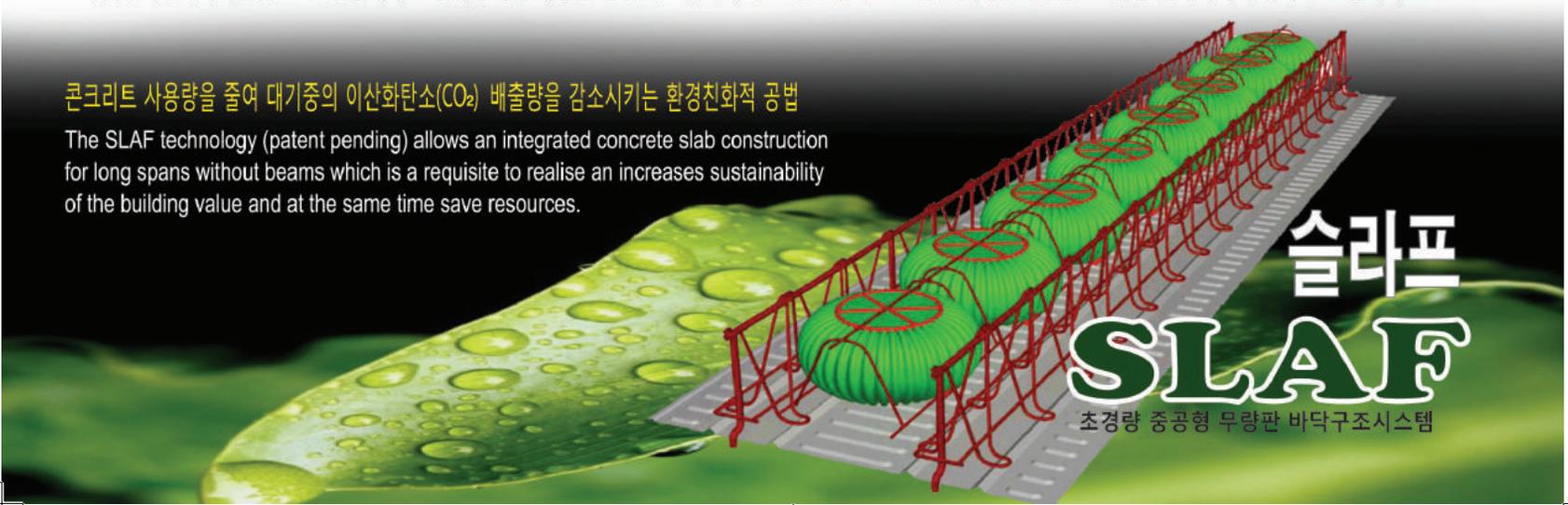
<http://www.sh911.co.kr>

건축구조기술사/공학박사/대표이사 조상규

(주)신화엔지니어링은 40년 전통의 구조설계능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여 구조계산서, 구조도면작성(세움터 인증 포함)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드립니다.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여 대기중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환경친화적 공법

The SLAF technology (patent pending) allows an integrated concrete slab construction for long spans without beams which is a requisite to realise an increases sustainability of the building value and at the same time save resources.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 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추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편견을 버리면 새로워집니다.

변화의 새로움을 바라다가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가로 출력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향상된 품질의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최대 20/181µm (흑백/컬러의 초고속 인쇄)
- 초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로 유지비 절감
- 클라우드서비스 지원
- 유무선 네트워크
- 자동양면인쇄
- 3.7" 슬라이드 터치 LCD 디스플레이

MFC-J2510 InkBenefit

인쇄 속도	고속 모드: 최대 흑백 35ppm, 컬러 27ppm 레이저 대비: 최대 흑백 20ppm, 컬러 18ppm
복사 속도	흑백 12ppm, 컬러 9ppm
팩스 모델 속도	33.6kbps
스캔 해상도	최대 2,400 x 2,400dpi(광학), 19,200x19,200dpi(확장)



MFC-J2510 InkBenefit

디자인 어워드 2013 금상 수상기념!

1+5FREE

브라더 가로출력 복합기 1대 사면
산돌팬시폰트 5개가 무료!

9,900원 잉크 LC565 C M Y 1,200매

13,200원 잉크 LC567 K 1,200매

MFC-J2510 InkBenefit 정품잉크 EVENT

MFC-J2510 InkBenefit + 정품잉크 + 산돌 유료 서체 이용권 + 무상 A/S 1년 추가 연장

산돌 서체 EVENT



산돌서체 6개월 무료



산돌서체 3개월 무료
(첫번째 구매)



산돌서체 3개월 추가(무료)
(두번째 구매)



총 1년 산돌서체 이용권
(6개월 + 3개월 + 3개월)

무상 A/S 추가 EVENT



A/S추가 1년
(4개월 + 4개월 + 4개월)



무상 A/S 4개월 추가
(다섯번째 구매)



무상 A/S 4개월 추가
(네번째 구매)



무상 A/S 4개월 추가
(세번째 구매)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고품격 신개념 출입구 시스템매팅

월매트



Entrance Matting System

월매트(Wilmat) 매립형 신개념 출입구 매트로서 외부의 오염물질이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건물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고품격 출입구 매트 시스템.
월매트는 국내생산제품이며 어떤 현장이라도 고객이 요청하시는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월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시스템출입구매트,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월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한게 지켜드립니다.



김해공항 국내선



인천공항



ISO 9001/2000 인증제품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테인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테인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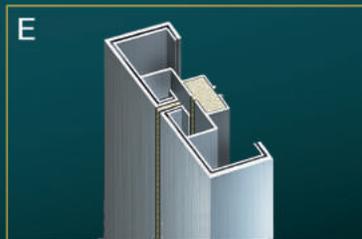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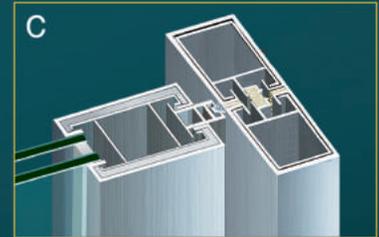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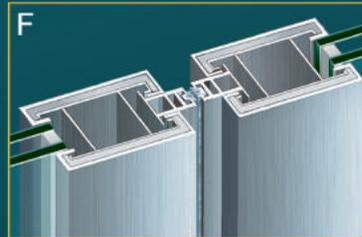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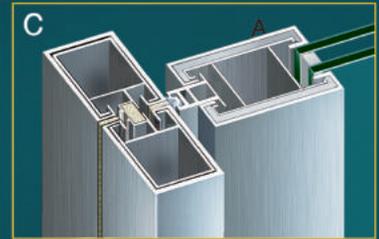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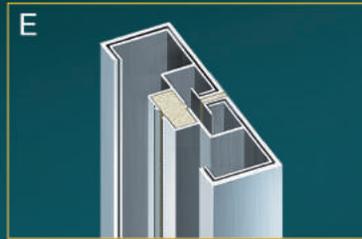
스테인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테인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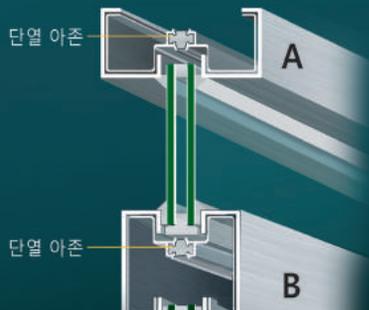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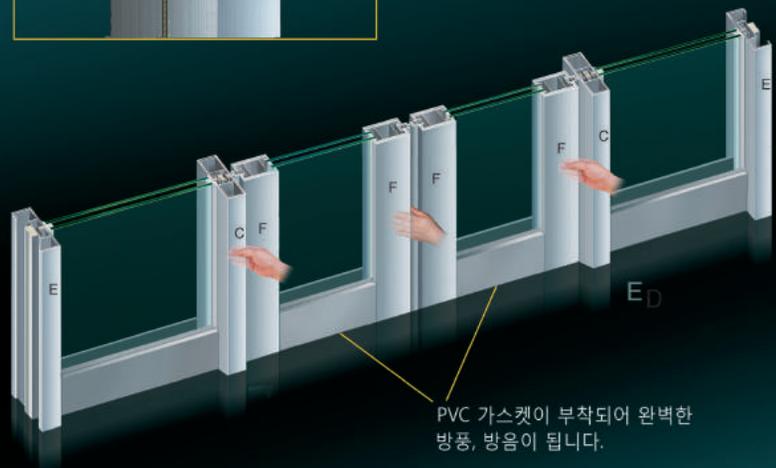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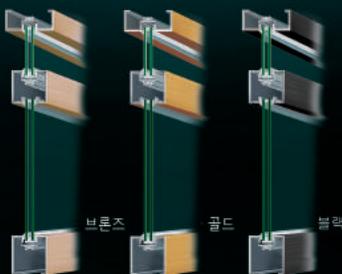


단면 상세도



재질/한국산업규격

- K.S D 6759, 6063, 알루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테인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PVC 가스켓이 부착되어 완벽한 방풍, 방음이 됩니다.

▶ 가격표: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주)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음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의 에너지효율 및 내열성능 시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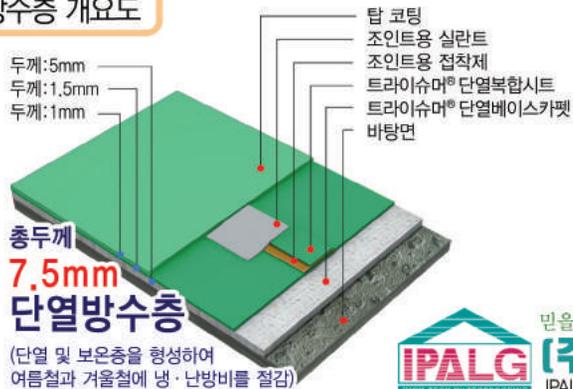
시공사례모음



내열성능 시험결과	
시료명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열에 의해 변형이 된 길이 (200mm 기준)	0.1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5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출력내열길이(mm)
결과 이미지	변형이 거의 없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시트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파단됩니다.
시험방법	가스와 세로길이가 각각 200mm가 되는 시편을 80도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열변화에 따른 길이변화와 길모양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시험기준	KS F4917: 2007
시험기관	한국 건자재시험 연구원



방수층 개요도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공법 · 신뢰받는 회사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TOTAL & HIGH-TECH WATERPROOFING CO., LTD.



스마트폰으로
QRCode를
스캔해보세요

www.ipalg.co.kr
이파엘지.kr

21세기 건축물 외장재 신개념 PANEL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방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URO-ZINC PANEL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종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FREE-METAL PANEL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 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J 조립식 건축문화의 신창조자
서진공영주식회사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03-1번지
공장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32-1번지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A-Type

B-Type

- PIR
- GLASSWOOL
- ROCKWOOL

D-Type

C-Type

※ 특허 : 제 10-2011-0139926 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 특허 : 제 10-1175115 호



설계영업부(기술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6-13 효제빌딩 301호

TEL. 02) 501-8480 / FAX. 070-7500-0775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KOREAN ARCHITECTURE 2009, 2010, 2011」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도서 구매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 건축실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각종 건축도서를 발간하여 제작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문화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 건축 발전을 위한 「KOREAN ARCHITECTURE」시리즈,
반세기 한국건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간 월간 '건축사'에 게재된 원고를 발췌해 수록하여 제작한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등을 발간하였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New



「KOREAN ARCHITECTURE 2011」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수록
면수: 376여쪽
4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KOREAN ARCHITECTURE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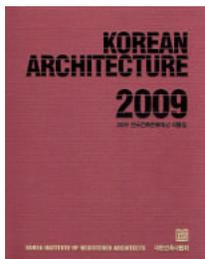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500여쪽
3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45년간 '건축사'誌에 수록된 칼럼,
시론, 논문 등을 엄선하여 집대성
면수: 695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 「KOREAN ARCHITECTURE 2010」 & 「건축사誌 통권 500호 특집 별책」
2권 세트 구매시 **할인가 40,000원(배송비 포함)**



「KOREAN ARCHITECTURE 2009」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및 그린홈 특집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
면수: 388쪽 / **20,000원(배송비 포함)** 올컬러

※ 구입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찬팀(02-3415-6867) ※ 계좌번호 : 기업은행 667-002597-04-232 (대한건축사협회)

▶ MPT 강봉보강공법 개요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보의 부족한 휨모멘트 및 전단력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보의 단부 상단 고정판과 중앙 하부 고정판을 정착하고 고강도 특수강제의 강봉을 유압 시스템으로 인장하여 구조물의 보 또는 슬라브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기존의 수동적 보강방법인 강판과 탄소섬유로 부착하여 보강 할 경우, 보강 부재가 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때 기존부재는 보강 후 적재로 인한 추가 변형으로 인해 구조체의 변형이 증가하게 됨으로 균열의 확대 또는 파손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강판보강이나 탄소섬유보강공법의 경우 상부의 하중을 제거하거나 구조체의 변형을 강제로 회복시킨 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기존부재의 변형을 회복시키면서 추가 하중을 구조체와 함께 지지하게 됨으로 구조물의 내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능동적 보강공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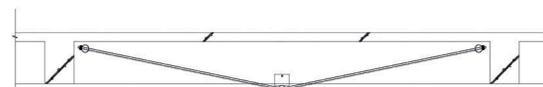


▶ 보강공법의 특징

- 1. 구조적 안정성**
고강도의 특수강봉을 유압시스템으로 정확한 인장력 계측이 가능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높다.
- 2. 내화성능**
일반보강공법에 비교하여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불연재인 강봉을 사용함으로 내화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 3. 친환경적**
미장제거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다.
- 4. 경제적**
건축물의 천정마감재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비용이 절감된다.
- 5. 공기단축**
기존 보강공법에 비해 공정을 단순화시켜 공사기간이 약50% 이상 단축된다.
- 6. 시공성**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면 완료됨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주변의 각종 설비 시설등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하다.
- 7. 품질관리, 내구성**
고강도 특수강봉을 공장에서 가공함으로 품질 관리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내구성이 높다.



〈그림 1.4.5c〉 강봉 배치형태(슬라브 V형)



〈그림 1.4.5b〉 강봉 배치형태(보 V형)

Contents



NEW YEAR'S ADDRESS 신년사

- 016 **갑오년 새해! 청마의 기상으로 도약하기를 소망하며...**
2014, the Year of the Blue Horse!
Make a New Year's Wish with The Blue Horse Spirit...
김영수_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021 주승용_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COLUMN 편집인 칼럼

- 023 **편집인 칼럼** Editor's Column

ESSAY 에세이

- 024 **인생수업의 졸업 선물은?**
What's the graduation gift from lesson of the life?
김수경
- 026 **건축 읽기 : 미술관으로 들어온 건축**
Reading the architecture : which came in to the Art Museum
변지혜

CONGENIAL SPACE 空間共感

- 028 한정훈

WALKING THROUGH THE FOREST OF BOOKS 책 속을 거닐다

- 029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Will I be able to live totally different person from the past?
정아숙

SPECIAL 특집

- 030 **부산 · 경남 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Looking for Identity of Busan-Gyeongnam Regional Architecture

WORKS 회원작품

- 040 **새향운병원**
New Hangun Hospital
안용대_KIRA | ㈜가가 건축사사무소
- 046 **화명수목원 전시온실**
Hwamyung Municipal Arboretum Greenhouse
안성호_KIRA | ㈜시반 건축사사무소 / 공부성_KIRA | 루가 건축사사무소
- 052 **부산 서구 송도해양레포츠센터(Wave - Scape)**
Songdo marine leisure center
손숙희_KIRA | ㈜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058 **산복도로 이바구공작소**
Mountainside Road Renaissance Project
한영숙_KIRA | 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 064 **문화골목**
Cultural Alley
최윤식_KIRA | ㈜가산 건축사사무소
- 070 **자하루(自下樓)**
Jaharu
김기태_KIRA | (주)이누 건축사사무소 / 유진상 | 창원대 건축학과 교수

COMPETITION 설계경기

- 076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Hanam-si Disabled Persons Welfare Center

READING LOVE LETTER 연애편지를 읽다-다섯번째이야기

080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여신처럼 받들고 있어요.
My husband does not love me. He adores me like Goddess.
정이숙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건축과 법률이야기

082 건물외벽 간판비용 회수를 위한 건물유치권 행사 가능성
Possibility of Building Lien Exert for Expense Collection of
Signage which on Building Elevation
성승환

SERIAL I 연재 I / 건축과 삶 ①

084 도시와 인간
Urban and Human
유현준

RESEARCH 연구

088 생태·환경기술과 문화의 접점지를 찾아서
An Expedition to Bayern, Germany, A Land of Ecology
where meet the technology and culture together
김원식

ARCHITECTURE TRAVEL 건축기행

094 양동마을 답사를 마치고...
Epilogue of Exploration of Yangdong Village
김석환

NOTICE 공고

098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최종합격자 발표
2013 Architect registration exam, Final accepted candidates

ARCHITECT'S PLAZA 건축마당

- 103 협회소식 Kira News
- 108 건축계소식 Archi-Net
- 110 타임머신_1970 되돌아 본 건축사·건축사_장영호
- 112 해외건축동향_김은미 Overseas News Review
- 114 통계 Statistics

표지사진 :

손숙희 건축사
(주)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사진_김병국(베누스튜디오)



www.KIRA.or.kr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4년 1월호(통권 537호)

발행인 김영수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수

취재·편집 최락청, 손석원, 장영호, 백상월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서초동) 건축사회관

전화 대표 02-3415-6800

팩시밀리 02-3415-6850

인터넷 www.kira.or.kr

디자인·인쇄 화신문화(주) 02-2277-0624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02-3415-6862-4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Kim, Hyung-soo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Jang, Yeong-ho / Baik, Sang-worl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317, Hyoryeong-ro,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65



72

갑오년 새해! 청마의 기상으로 도약하기를 소망하며...

2014, the Year of the Blue Horse!
Make a New Year's Wish with The
Blue Horse Spirit...

2014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해 갑오년(甲午年)은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대평원을 질주하는 푸른 말처럼 올 한 해 건축계 모두가 큰 희망을 품고 화합하여 힘찬 상승의 기운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3월 6일 제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건축사의 가치 향상과 권익 보호, 협회 및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의욕과 열정으로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회원님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회가 추진해왔던 업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건축정책 방향과 제가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이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산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선진국이 곧 문화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건축설계분야가 건설산업에 종속된 하위용역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난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과 건축설계산업육성방안 등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건축문화선진국 도약의 기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창의력 있고 품격 높은 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공포되어 건축이 지식집약형 서비스산업으로 육성돼 건축분야 경쟁력 제고와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공공 건축물은 설계공모로 발주하여 창의력과 기술력이 높은 설계작품이 선정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설계자가 반드시 건축과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초 서울시는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설계발주 시공 등의 전 과정에서 부패와 비효율 등의 문제를 유발해 온 공공건축물 발주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발주를 가격입찰에서 디자인공모로 전환하고,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을 위한 공모방식 개선 및 심사과정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하여 우리 협회와 국토교통부, 연구기관 등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발주제도 개선과 대가기준 개선, 건축설계 기술력 개선 등 10가지 과제를 선정, '건축설계산업육성방안'을 마련하였고, 조만간 정부의 중점 정책추진과제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건축정책 기조가 종전의 규제 중심, 건축행위 중심에서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산업 중심, 문화 중심으로 진일보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건축사가 있기에 지금 당장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건축계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건축사의 업무가 갈수록 전문화·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의 단계별 건축과정과 구조, 전기, 소방, 설비 등 관계기술자들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건축사는 이를 기획 조정하고 종합 관리하는 총괄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령 및 건설기술관리법령, 주택법령 등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건축사의 업무로 당연시되어 왔던 일들이 이제는 전문분야별로 각기 독립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 스스로도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수



김영수 | Kim, Young-soo
KIRA president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분야의 업무가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고층건축물의 안전 등을 이유로 구조기술사의 감리 의무화를 주요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2012년 6월 입법예고되어 협회에서는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와의 역할 및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의 경우에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협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난해 5월 개정됐습니다. 또한, 건축사의 업역 창출을 위해 협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입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8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하여 건축사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전 회원에게 보급하고, 시·도건축사회별 건축사로 구성된 전문강사를 통해 세부적인 점검요령 및 방법 등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지관리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건축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대국민서비스정신을 발휘하여 어느 전문가와 비교해도 우위에 설 수 있어야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2월 제정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에너지평가사제도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협회에서는 관계법령과 기존의 출제경향 등을 참고자료로 제작 배포하였으며, 2013년 9월부터 의무화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여 일부는 반영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회원과 국토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직접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회원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주택법령에 따라 신설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전문인력 구성요건에 건축사가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건축사'가 제외되어 있어 해당 영역 입찰참가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협회의견이 반영되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제도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들을 습득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는 이를 위해 앞으로도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신입회원을 위한 창업교육, 윤리교육과 협회의 정체성을 알리는 신입건축사들의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건축경기 침체와 낮은 업무대가, 관련분야의 업역침체 등을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건축사가 주도적으로 관련분야와 공생하면서 총괄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비용 확보를 통해 확고한 입지를 굳혀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합리한 건축관계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감리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뿐만 아니라 공익적 가치와 건축물의 품격을 확보하는 법제도 개선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건축계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찬반양론이 있었고, 현재에도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반대이유가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대로 이행되는지를 설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6월 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2012년 11월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서 설계자가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건축과정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의 창작의도 구현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건축법상 상주대상이 아닌 비상주 건축물에 한하여 개인에게 감리자를 지정토록 하지 말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화한 내용이므로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감리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표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회

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회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턱없이 낮은 민간부문의 건축사업무 대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민간발주 건축설계업무 대가기준 개선 연구」와 단일화 되고 획일화된 설계·감리 표준계약서를 외국과 같이 용도·규모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용역을 지난해 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전 회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축신고제도의 개선과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건축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실내디자인제도 도입 등으로 건축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대한건축사협회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건축사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건축관계 법·제도의 개선 외에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등록제도 운영,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 관리 등의 정부위탁업무와 친환경·한옥 등 정부에서 수입된 건축인력 양성사업, 각종 건축문화행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2년 5월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등록원을 설치하고, 건축사가 되기 위한 실무수련과 자격시험, 건축사가 된 이후의 자격등록, 실무교육, 갱신등록 등 건축사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자격등록 건축사가 11,804명에 이르며, 협회의 회원 중 98.5%가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실무교육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되어 강사 선정 및 교육내용, 운영시스템 등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건축사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강사로 지급기준 개선, 교육평가제도 도입 등 상당 부분 개선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축사공제조합은 협회 회원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현재 조합원 5,400여 개사, 출자금 62억 원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조합원의 설계 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건축주의 손해에 대해서도 7개사 9건, 총 8천5백여만 원의 공제(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도 7개사 8건에 대해 손해사정 중에 있는 등 공제조합을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 들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공제조합의 누적결손금이 처리되고 흑자운영으로 돌아서는 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수수료 인하, 관련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과 양적 성장 보다는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공제조합의 발전이 곧 협회의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행사에 있어서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어린이 건축교실 및 한옥체험' 행사가 지난 5월 3~4일 양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려 전국에서 선발된 4~6학년 어린이 120명을 대상으로 한옥 목공체험, 한옥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건축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22회를 맞이한 2013한국 건축문화대상에서는 총 495점을 응모 받아 총 37점의 작품을 선정하였고, 지난해 처음 시행된 '2013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에서는 대상 1점 등 총 10점을 선정하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수 건축물 시상을 통한 건축문화 발전과 잠재력 있는 신인건축사 발굴·육성을 통해 건축설계업계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8년 연속 개최한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지난 10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FESTIVAL'을 주제로 녹색건축대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국민참여형 그린리모델링, 친환경건축디자인 공모전과 함께 개최했으며, 5년째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도 지난 10월 열려 16개국 21편 영화를 상영해 3,000명이 넘는 관람객을 유치해 객석점유율 70%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기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내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위탁된 공익적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건축문화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건축과 건축사, 건축사협회에 대한 대국민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건축사들도 이제는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배려하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한 차원 높여 국민들에게 더욱 존경받는 건축분야 최고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제는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최근 건축계에서는 국내 설계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해당국의 관련정보 부족과 법적·제도적 지원 미비 등으로 그 성과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된 건축사법 개정(안)에도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일부 국가와는 건축설계분야 FTA/MRA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회에서도 건축사등록위원회 및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의 제도개선방안과 건축사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0월 한국건축단체연합(FKA)이 유치에 성공한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 우리 건축분야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에 커다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한옥 등 우리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FKA 대표회장 단체로서 대회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운영규정 제정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안)을 마련 하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국고보조금 신청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대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올해에는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재단법정도 설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협회는 매년 활발한 국제교류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태국건축사협회(ASA) 컨벤션과 2013년도 미국건축사협회(AIA) 컨벤션 및 국제단체장 회의,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포럼 및 일본 건축가협회(JIA) 전국대회, 제16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제56차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전국대회에 참석하였으며, 올해에는 한중일건축사협의회 및 ARCASIA Zone C 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제교류를 통한 최신의 정보수집과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내외적 환경여건과 건축사법 개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등에 따라 건축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협회는 임직원 모두 일치단결하여 하나된 건축사, 하나된 협회, 하나된 건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의 가치 향상과 권익 보호,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성원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 회원의 화합과 단합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가 경북 구미에서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새 아침,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 영 수

대한건축사협회는

1965년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쾌적한 도시·건축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문화 발전과 건축기술의 향상,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한 한국건축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건축사의 품위보전, 권익증진과 친목도모 아울러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한국 건축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입니다.

謹賀新年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주요사업 및 활동

- 건축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정
-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
- 건축사 업무의 개선·발전
- 건축사 회원의 품위보전 및 윤리확립
-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 건축사 회원 복리증진 사업
- 건축관련 정책 법령연구 및 제도개선
- 국제교류 및 건축정보 교환
- 각종 간행물발간 사업
- 건축연구소 및 정보센터 설치 운영
- 관계법령에 의거 위임·위탁한 사업 및 업무
- 건축 및 건축사업무에 관한 지문 및 대정부 건의
-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 기타 설립목적에 준한 사업

건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입니다.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늘 건강하시고, 말처럼 활기찬 일만 가득한 2014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은 창조성이 무한히 요구되는 분야로, 우리 인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주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건축은 우리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은 '건축사'의 손에 의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디자인하고,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막중한 일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 건축문화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축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국토교통위원장인 본인도 건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 한해도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들의 현안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일꾼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민생법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임할 계획입니다.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무한불성(無汗不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올 한해도 이러한 정신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본인도 무한불성의 자세로 매사 국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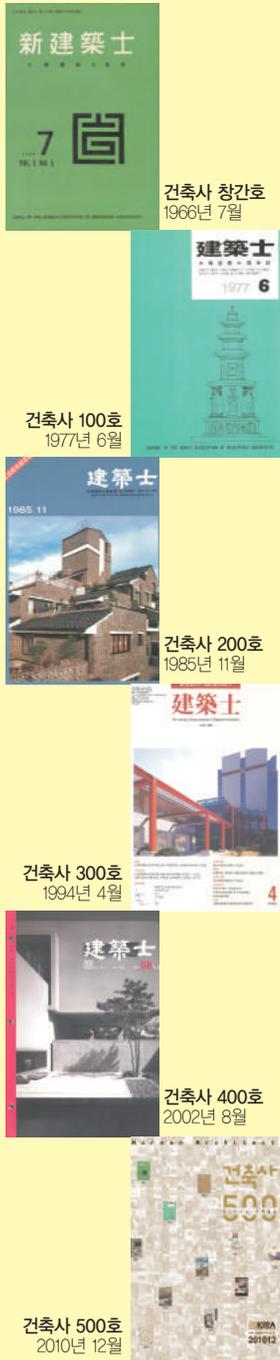
주승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전남 여수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주 승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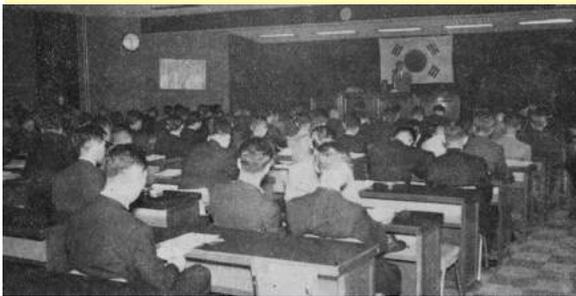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건축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되었다.
1965년 5월 15일 제1호 건축사가 탄생했다.
1965년 10월 23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창립되었다.
1966년 7월 제1호 「建築士」지가 발간되었다.
2010년 12월 「建築士」지는 500호를 발간하였다.
2013년 12월 현재 536호가 발간되었다.

건축사지는 국내유일의 전통 건축잡지입니다.
건축사지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 건축사에 건축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축사 여러분의 참여는 더 나은 대한민국 건축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상)창립총회 광경 / (하)회장선출 투표 광경(당시 장기인 회장 선출)



기고내용

구 분	내 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건축물 이미지 20컷 내외, 설계개요, 설계소묘(200자 원고지 5매 내외), 기본도면(배치, 단면, 평면/PDF 제출))
현상설계	최근 현상설계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제출패널을 편집 가능한 형태로 제출 (혹은 투시도, 모형사진 2~3매, 주요도면 3~4매) 설계개요, 설계소묘(200자 원고지 5매 내외))
기고 등	건축계 현안에 대한 소감, 건축여행(이상 A4 5매 이내) / 세미나참가,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 ~ 2매>
작품노트 등	준공, 계획, 미실현된 작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선정, 작품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수필형식으로 집필(A4 4매 이내, 관련사진, 도면, 스케치 등 제출)

보내는 곳

• 웹하드 : www.webhard.co.kr(ID : kiraweb, PW : 5712) • FAX 02-3415-6850 • 이메일 : newst@kira.or.kr

또 다시 새로운 해는 떠오릅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분들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에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 쉽지 않은 한해가 되겠지만 회원들 한분 한분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건축사지는 지난 1년간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보고자 노력해왔으며, 이를 통하여 전국 회원 간의 더 깊은 이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협회와 건축사 회원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표 아래 편집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기획으로 다양한 회원 그룹에 대한 대담을 통하여 회원들의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5세 이하 젊은 건축사 회원들의 활동과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개업을 하여 사무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자신이 간직한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젊은 건축사의 이야기는 일반 회원들에게 과거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여성 건축사 회원의 삶과 건축에 대하여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건축의 길을 걸어가는 여성건축사의 이야기에서 우리들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의 건축과 삶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건축문화에 대한 심층 취재를 통하여,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각 지역의 건축문화의 특색과 지역의 건축문화를 이끌어가는 건축사 회원의 소개를 시도하였습니다. "지역 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특집에서는 첫 번째로 호남지역을 소개하였으며, 두 번째로 부산·경남지역을 이번호에 소개하는데, 그 지역의 건축 아이덴티티를 현역 건축사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의 시각을 통하여 생생하게 담아보았습니다. 한 지역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기존의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작품 편집에서 탈피하여 전국 회원의 작품을 고르게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지역의 정체성과 작품을 기획 취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칫 딱딱하고 건조해지기 쉬운 건축 위주의 건축사지 내용 구성에 다양한 건축 이외 분야의 전문가들의 건축에 대한 시각을 소개하는 에세이를 강화하였습니다. 피아니스트, 자연사박물관장, 신문기자 등 예술과 인문, 자연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시각으로 바라본 건축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연애편지를 읽다' 시리즈를 연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표지 모델을 건축물이 아닌 건축사 인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축물을 창조하는 주체는 건축사인데, 이제까지 건축사지에서는 건축사가 소외되고 건축물의 소개에 치중하여, 건축사라고 하는 전문가의 이미지가 잘 들어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축사 표지에 다양한 회원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지는 전국 주요 관공서와 학교에 광범위하게 배포되므로 전문가로서의 건축사 이미지가 표지에 실려서 널리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와 같은 편집방향을 견지하며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의견을 들어, 보다 나은 건축사지가 되도록 혁신과 발전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 회원들과 독자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저희 건축사지가 무사히 그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2014년에도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건축사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오직 회원분들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글. 김수경_ Kim, Soo-gyung, KIRA
·
엘엔케이 건축사사무소

인생수업의 졸업 선물은?

What's the graduation gift from lesson of the life?

누구나 가끔씩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을 때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아는 것이라고 혹자는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고, 아침밥을 먹고 회사에 출근하고 약간의 짜증을 부리고 술을 마시는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다리를 다쳐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죽음을 앞에 둘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내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깨닫는다. '아 그 때 그 평범한 일상이 그림구나. 그것이 행복이었구나'하고.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인생이라는 학교에 본의 아니게 입학한다.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수업의 연속이고, 유아기적, 청소년기 거쳐야 할 수업을 빼 먹으면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로 성숙의 시점은 멈추어버린 채 나이는 먹으나, 나이 값 못하는 채로 어른이 되기도 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성숙한 인간으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책임하에 멋지게 연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멋진 사람들이란, 실패를 알고, 고통을 겪고, 깊은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며 빛을 발견한 이들이다. 이들은, 사랑과 배려로 삶에 대한 동정심, 시적 감수성, 감사의 마음을 지니며, 매 순간순간이 절대 행복임을 인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건강한 헤안이 생긴 사람들이다.

삶에서 큰 상실감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며, 진정으로 소유하고, 간직하고,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외부의 물리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는 일을 중단하고 그 대신 이미 갖고 있는 것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부를 발견하는 법을 배운다. 인생의 배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주체로서의 자기 삶을 사는 것이다. 갑자기 행복해지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다. 삶의 배움은, 삶을 완벽하게 만드는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건축도시대학원을 수료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큐빅디자인 연구소에서 잠깐 인테리어를 접한 후, 그 후로는 (주)광장건축과 (주)아키펠랜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했다. 건축사를 취득한 후, 1년여 런던에 머물면서 유럽을 여행했으며, 이후 1997년부터 엘엔케이건축사사무소 대표이자,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위원이다.

어느 밤, 젖먹이 어린 아이 둘과 씨름하던 날, 통장의 네 자리 수 잔고, 늦게 귀가하는 남편... 상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좁고 긴 터널을 마구 내달리고 내달리고 내달리다, 식은 땀 한 방울 흘리며 깨어난 적 있었다. 하나 하나 낱말로 돌아다니던 언어가 하나의 문장으로 소리를 내었다. 어린 아이, 남편, 통장. 이 모든 것이 살만한 것인데! 결국, 인생의 답은 내 안에 있었다. 우리들은 대부분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남 때문이다. 절대로서의 내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내 주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쉴 새 없이 남들 속에서 나를 보기에 불행을 느낀다.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면도 인정을 하다보면, 나머지는 노력으로 이것들

을 채워 넣을 수가 있다. 결코 가질 수 없는 남의 떡 때문에 슬퍼하고 불행을 느끼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누군가 숙제 잘하는 법을 빨리 깨닫게 해주면 좋으려면,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시련이 닥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오만하다.

오래 전, 살아가는 일이 너무 버거워 지쳐 있는 날들이 있었다. 누구의 딸, 동생들의 말연니, 회사의 과장, 선배들의 후배... 모든 것들이 엄청난 무게였다.

내가 나를 사는 것인지, 내 정체성은 어디론가 가고 없고, 역할을 담당하는 나만 있었다. 떠나고 싶었다. 멀리 타국을 떠돌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만났다. 각각의 역할에 벗어난 나라는 존재는 나에게 너무 낯설었다. 나는... 없었다. 내가 나로 살아 온 인생으로 보니 나는 어린 아이였다.

엄마의 자랑스런 딸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애쓰던 모습을 벗어 던지니, 한없이 어린, 어리디 어린 어린아이가 있었다. 서른을 넘어 내 안의 어린 나를 키웠다. 이렇게 여행은 잊고 있던 나를 만나게 해주기도 한다. 나를 안다는 것은 자신을 느끼는 것이고, 자신의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인정할 때, 진정 자신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은행가가, 교수가, 건축사가 아니어도 자신은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이 들어 아무런 직업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주체로서의 나는 내 색깔을 가지고 내 행복을 당당히 만끽할 수가 있다. 타인이라는 군더더기를 던져 버린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존재와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가 되어 숨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사적인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된다. 그 에너지를 자신과 주변을 사랑하는 데 쓸 수 있다.

출생과 더불어 시작된 인생수업이 끝나고 졸업할 때 우리는 어떤 상을 가지고 떠날까? 소풍 온 세상에서 그저 잘 놀다 가노라고 말 할 수나 있을까? 교문을 나서며 많이 사랑했고, 많이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과제는 무엇인지, 무얼 가지고 졸업할지, 청마년 새해에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진정한 힘과 행복은 자신이 누구인가,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깨닫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니까.

‘행복은 우주속의 작은 원석인 나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에서부터!’ 이미 갖고 있는 것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부를 발견할 때 비로소 행복이라는 인생의 꽃은 활짝 필 듯 싶다.

“난 내 삶이 불완전 하기 때문에 더 즐겁다”라고 누군가는 말했다. 60년 만에 돌아왔다는 청마년에 불완전 내 인생에 수고와 노력으로 채워진 삶에서, 진정 어떤 졸업선물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

| 글. 변지혜 Byun, Ji-hye

·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건축 읽기: 미술관으로 들어온 건축

Reading the architecture :
which came in to the
Art Museum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Nordic Passion : 북유럽 건축과 디자인”展이 열리고 있다. 이처럼 미술관에서 건축전시가 이뤄지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올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그림일기, 정기용 건축아 카이브’展이 열렸고, 건축사 승효상은 국립현대미술관의 2011년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여름에는 4명의 건축사들이 모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실험영화의 상영 공간인 전시장을 채운 ‘종합극장: Interspace Dialogue’展도 개최했다. 이미 MoMA에서는 1932년 〈국제주의양식〉이라는 전시가 필립 존슨(Philip Johnson)에 의해 개최되었으며, 지난 2006년에는 〈현대건축전〉이 열렸다.

건축이 미술관 전시로 들어오는 것은 각 장르가 매우 가깝게 함께 움직이고 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모형부터 건축 도면까지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왜 건축전시가 미술관에서 열리게 되었느냐는 것이었다.

미술관에서 건축이 왜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선뜻 던진 대답은 ‘창조성을 삶에 품는 것이 건축이고, 건축의 의미를 미학으로 읽어내는 것이 미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노르딕 패션 전시장의 3층 2부 전시장은 핀란드 건축물과 함께 핀란드 알토대학 건축학전공 학도들의 실험적 건축을 소개하는 공간이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벽면의 작품들은 각기 다른 모양으로 표현되고 가공된 큐브형 작업이다. 큐브라는 제한된 구조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창조성을 발현하여 못을 쓰지 않고 구조물 혹은 조형물을 만든다. 심지어 이를 악기로 만든 학생도 있다. 가장 단순한 구조로 가장 멋지게 잘 표현하는 것이 건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큐브들 앞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건축 모형들은 한술 더한다. 건축 모형이야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은 기존의 정교한 조각을 보는 듯 생생하다.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곡선이 아름다운 사우나나, 직사각형의 나무판을 조각내어 구조적으로 재미있는 형태로 만든 축제 게이트는 눈만 감아도 그 크기나 재미를 머리에 떠올릴 수 있다. 재미있는데 더불어 아름답기까지 하니 미술작품인지 건축물인지 분간이 가질 않는다.

관람하는 사람들은 한 발짝 한 발짝 작품에 다가가서 건축물을 미술작품을 보듯 읽어내고자 열심이다. ‘함께 온 사람과 가보고 싶다’, ‘들어가면 이런 느낌일 것 같다’는 소감, ‘설마 진짜 이런 건축물이 있어요?’하는 질문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는 것을 보면 미술작품을 보듯 건축물의 아름다움이나 의미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도시에서의 삶은 건축물로 가득한 공간에서 건축물과 건축물로의 이동으로 채워지기 일쑤다. 나보다 더 큰 몸집의 건축물은 건축사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들어가는 순간 거대한 크기로 위압되거나, 혹은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을 보는 것으



필자는 홍익대학교 광고홍보학/예술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로 화제가 이동된다. 그래서 건축의 아름다움이나 의미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다반사다.

미술관에서 건축물을 가끔 만나는 것은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건축물을 읽어보는 재미있는 시도가 아닐까 한다. 특히나 명화를 보는 것처럼 뛰어난 창조성을 발휘한 건축물은 읽어보려는 노력을 통해 삶의 공간에 감동하고 또 다른 삶의 영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건축이나 미술이나 모두 인간의 내재된 창조성에서 영감을 받아 표현한 예술적 산물이다. 특히 건축은 창조성을 바탕으로 미감과 함께 생활을 위한 실용성과 안정성을 위한 균형미를 갖춘 특별한 형식의 작품이다. 오늘날 미술이 회화나 조각과 같은 기존의 장르에서 탈피하여 디자인과 함께 확장한 영역 중 하나가 건축인 것은 이러한 건축의 독특한 예술성 때문일 것이다.

전시를 기획한 안애경 큐레이터는 건축 전시를 통해 북유럽 사람들의 삶에 대한 철학과 태도를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다. 미술관에서 만나는 건축 전시는 이렇듯 건축을 떨어져서 바라보고, 상상하고, 읽어내는 재미있는 장(場)이다. 그런 면에서 미술관의 건축 전시는 그 누구보다 건축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한다.

미술관을 방문한 관객이 되어 건축물을 미술작품 보듯 조금 떨어져서 보면 미처 만나지 못했던 낯선 건축물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새롭거나 낯설게 건축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는 않을까. **㉮**



- File : WP_Luukku_x, Project : 'Luukku' Zero Energy House, Year : 2010, Designer : Aalto University Wood Program, Image Credit : Montserrat Zamorano Gañán
- File : WP_Telitta_1, Project : Tent Sauna, Year : 2004, Designer : Aalto University Wood Program, Image Credit : Anne Kinnunen

Happy New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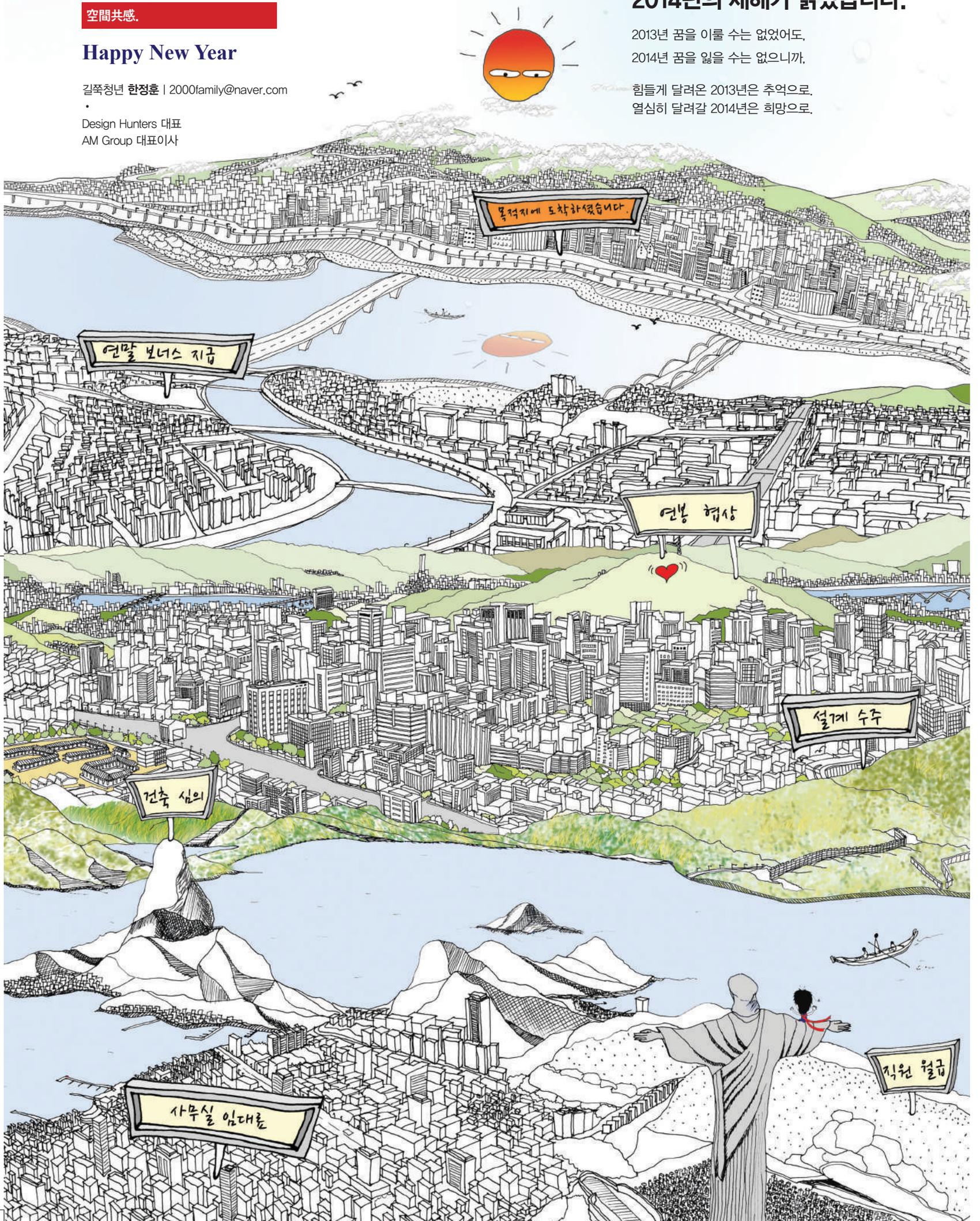
길쪽청년 한정훈 | 2000family@naver.com

Design Hunters 대표
AM Group 대표이사

201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3년 꿈을 이룰 수는 없었어도,
2014년 꿈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

힘들게 달려온 2013년은 추억으로,
열심히 달려갈 2014년은 희망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Will I be able to live totally different person from the past?



빌라 아말리아 파스칼 키냐르 지 | 송의경 역 | 문학과지성사 | 2012. 02. 29 | 원제 Villa Amalia

마흔 일곱, 늙지도 젊지도 않은 나이.

너무 늙지도 너무 젊지도 않은 나이...

마흔 일곱의 프랑스 여자 안은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 손에 길러져 작곡가가 되었다. 그녀는 16년이나 동거하던 남자친구의 외도를 목격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모두 지워버리고 자신의 인생과 '삶의 본질 안에서 혼자이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런던으로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집을 팔고, 자물쇠와 열쇠를 바꾸고, 모든 옷과 가구를 버리거나 팔고, 피아노까지 팔아버린다. 남자친구의 짐은 상자에 담아 그의 사무실로 보내고 은행의 잔고는 모두 찾아 남자친구가 모르는 초등학교 동창의 계좌에 입금한다. 거기 더해 머리스타일을 전혀 다르게 바꾸고 옷도 새로 사 입고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사랑했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이 나 자신의 이미지와도 헤어져 길을 떠난다. 안은 생각한다.

'북아프리카의 가장 먼 오아시스로 가서 세상과 동떨어진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아무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 있다면 말이다. 그것은 다른 시간이라. 그 시간을 다른 여인이 살게 되리라. 그 시간은 다른 세계에 존재하리라. 그 세계가 다른 삶을 열어주리라.'(95쪽)

지금까지의 삶을 지우고 다른 세계로 가서 다른 시간을 산다는 이 소설의 아이디어는 주인공과 비슷한 나이에 있던 나를 단숨에 매혹했다. 몸담고 있던 조직이 주는 월급이라는 달콤한 마약을 이제 곧 뿌리쳐야 한다는 자각이 들기 시작했고,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벗어나 며칠이고 나무나 파도만 바라보며 무위도식 하고 싶다는 충동이 강렬해지던 때였다. 우리의 주인공 안은 독일과 스위스를 거쳐 이탈리아 나폴리만의 작은 섬 아스키아에 머문다. 그 섬의 산중턱에서 푸른 지중해를 굽어보는 파란 지붕의 빌라 한 채를 발견하고 그 집과 사랑에 빠진다. 책의 제목이 빌라 아말리아라는 점이 암시하듯 아말리아라는 여인 소유의 그 집은 이 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다.

"암석 안에 안전하게 자리 잡은 빌라는 바다 전체를 굽어보고 있었다. 테라스에서의 조망은 무한했다. (중략) 그녀는 바라보는 즉시 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풍경이 아니라 누군가였다. 사람은 아니고, 물론 신도 아니고, 한 존재였다. 특이한 시선. 어떤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 인 얼굴.'(147쪽)

자연에 눈길이 가기 시작한 나이였기에 그녀의 장소에 대한 사랑이 이해가 갔다. 소설은 그녀가 과거의 흔적을 지운 뒤 16년의 세월을 기술하고 있다. 빌라 아말리아를 떠난 뒤의 일들은 다소 모호하고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녀는 외부와는 거의 단절된 상태로 작곡에 몰입하고 산책하고 연주하고 음반을 녹음한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주변의 냄새와 소리를 민감하게 느끼고 야위고 늙어가면서 점점 아름다워졌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겪었다.

'얼굴의 피부 밑으로 뼈들이 두드러져 보였다. (중략) 그녀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아름답지만, 이마와 턱뼈에 엄격하고 극단적인 무엇이 드러나 있었다. (중략) 미소를 지으면 감미롭기 그지없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었다. (중략) 고통, 수영, 사랑, 음악, 허기가 그녀를 강렬한 여인으로 만들었다.'(339쪽)

47세의 선택 후에 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일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익숙했던 직장과 집과 남자를 떠나긴 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내재해 있던 욕구와 운명에 충실한 삶을 찾았고, 최선을 다해 내면의 부름에 답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으며 여전히 남은 오래된 물음을 다시 떠올리며 빌라 아말리아를 다시 읽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늙고 싶은가...

그리스어, 라틴어에 능한 고전 철학자이며 첼로 연주자인 저자 파스칼 키냐르는 프랑스 공쿠르 상과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 프랑스 문인협회 춘계대상, 모나코의 피에르 국왕상을 수상한 프랑스의 국민작가이다. 그는 46세가 되던 1994년에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파리에 은둔하며 글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빌라 아말리아의 주인공 안이 파스칼 키냐르의 실제 모습이 많이 반영된 작가의 여성판이라는 해석도 있다. 글 | 정아숙

부산·경남 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

Looking for Identity of Busan · Gyeongnam Regional Architecture

그간 건축사지에 수록된 건축 작품들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되어 대한민국의 다양한 지역의 작품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하여 왔다. 그러므로 한지역의 작품과 문화적인 배경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집을 기획하여 보기로 한다.
 그 두 번째로 영남지역의 문화와 건축을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해보았다.

- 대담일시 : 2013년 12월 19일
- 대담장소 : 부산시 센텀그린타워 내 가가 건축사사무소 회의실
- 지역총괄기획 : 양재혁 / 동의대학교 교수

김형수 편집국장 : 이번 특집은 호남지역 건축특집에 이어 “지역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의 두 번째 시리즈로 기획되었습니다. 지역적인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과연 그 지역만의 독립적인 건축적인 정체성이 존재하는가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부산·경남지역의 정체성을 반드시 강박관념보다는 부산·경남지역의 인문, 자연, 역사와 이 지역의 건축사의 활동을 전국 독자들에게 소개한다는 편한 마음으로 대담을 진행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영남지역만의 지리 자연 및 역사, 사회 인문적 특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형수 편집국장



김기수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남부 영남지역 건축특집 대담의 사회를 맡은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김기수교수입니다. 이번 특집을 위해 부산 지역을 방문해주신 편집부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담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부에서 이번 대담을 위해 8개 항목에 대한 질문을 준비해 주셨는데 영남지역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의 대담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울산 창원 각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환경 및 역사적 환경에 대하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진 : 부산의 경우 세 가지의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부산은 가야시대와 조선시대 동래의 본거지로써 자존적인 시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주류에는 약간 떨어진 정치·공간적인 여건으로 인해 지역·역사적인 바탕은 다소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자유분방한 지역성을 갖게 해 준 근거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의 특성은 일제 침략의 핵심지이자 일본과 최 근접한 공간 여건으로 인한 일본의 영향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이미지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강하게 인지되지요. 또 6·25전쟁으로 인한 피난과 연계된 향수와 기억들도 부산의 근대성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는 근거가 되지요. 셋째는 첫째와 둘째 이유와 연관되어 인지되는 혼종적 특성입니다. 북에서 내려오는 산악축과 바다가 만나는 끝점지대이자 낙동강의 하류지역이며, 고속도로와 철도가 중첩이 되는 ‘대한민국의 끝단’이라는 특성은 물자와 사람들을 몰려들게 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특성은 부산이 가진 다양성의 원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담자(가나다 순)

- 강동진 교수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부산
- 김기수 교수 /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사회 및 정리 / 부산
- 김형수 건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인 겸 편집국장
- 손숙희 건축사 / 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 부산
- 안성호 건축사 / 시반 건축사사무소 대표 / 부산
- 안용대 건축사 / 가가 건축사사무소 대표 / 부산
- 유진상 교수 /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경남
- 한삼건 교수 / 울산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 울산



안성호 :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할 때 동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동래가 부산에 속해 있습니다만, 조선시대까지는 동래가 읍성이었고 옛 시청과 향만이 있던 부산의 원도심 지역은 초량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던 한적한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동래는 영남남

부지역의 해안에 있던 읍성들이 대부분 그러했지만 왜구를 대비하는 군사도시였습니다. 동래읍성, 금정산성, 부산진성, 다대포성들이 있었고, 울산으로 잠깐 옮긴 적을 빼곤 경상좌수영도 동래에 있었죠. 이러한 국방도시로서의 동래의 성격은 임진왜란 이후 강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도시 성격이 사대부 중심의 문화라기보다는 하급무관들과 민중이 중심이 되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휘관이나 장교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동래문화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동래기영회도 퇴역한 토착무관들이 만든 단체였는데, 이들이 동래야유나 학춤의 후원자였고 근세에는 일제의 침탈에 저항하여 근대교육기관을 세우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민중성과 저항성은 부마항쟁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동래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의 원도심 지역에는 왜관이 있었고 일본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관은 일본인들의 무역주재소라고 할 수 있는데, 공무역을 위해 일본상인들이 상주하고 있었고 자치조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있었습디만 임진왜란 때 없어졌다가 일본인들이 끈질기게 요청해서 다시 세워지는데, 영도와 두모포를 거쳐 용두산 아래 왜관이 세워진 게 숙종조니까 약 330년 정도 전일

니다. 우리가 '초량왜관'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조선 사람들과 만나기 어렵게 동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다 위치를 잡고 군사를 배치해서 접촉을 막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밀무역이 성행했다고 합니다. 왜관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경험이 지속될 수 있었던 데다 특히 밀무역을 통해서 동래는 자연스럽게 실리를 우선하는 기풍과 외래 문물에 대한 개방성을 일찍부터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 이어지는 부산의 특징이죠. 이 초량왜관이 개항 후 그대로 일본인들이 자치권을 가지는 전관거류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제가 자기들 살던 곳 앞 바다를 메워 향만과 철도를 만들면서 근대도시 부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대륙침략의 물류기지로 부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실리를 우선하는 풍조와 외래 문물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민중성과 저항성이 조선시대 역사적 환경이 만들어 낸 부산의 정서와 기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삼건 : 사실 이번 주제가 영남 남부지방의 건축에 관련된 것이지만 여러분들 중 울산에 대해 잘 아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울산은 공간적으로 부산, 경남과 가깝고 역사적 배경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조선시대의 군(郡)과 현(縣) 단위가 지역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공간적 범주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울산의 도시적 성격을 잠시 소개드리면,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왕조인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의 외항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주는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다보니 신라시대 천 년간 울산은 밖으로 열린 신라의 대외교역

창구였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되면서 수도가 바뀐 결과 울산이 가진 '수도외항'이라는 특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지요. 수도에서 먼 평범한 지방 도시가 되어버린 울산은 일본이라는 외적을 방어하는 군사기능이 뒷썩워집니다. 고려 현종 때인 1018년에 방어사를 둔 이후 조선 초인 1415년에는 경상좌병영이 울산에 설치되었고, 이 병영은 1895년 지방제도 개혁 때까지 유지됩니다. 심지어는 경상 좌수영까지 울산에 위치한 적이 있었으니 고려 이후 울산은 해양위협세력인 일본방어의 최대 거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울산시내에 산재한 성곽은 축성연대도 모두 다르고 기능도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한편 울산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때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38년부터 이케다(池田)라는 일본인 개발업자는 울산을 인구 50만 공업도시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태평양전쟁에 패하면서 이 계획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1962년부터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시작된 울산공업단지 개발이 일제강점기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공업센터 기공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2012년에 논문과 단행본으로 출간한 바 있습니다만 이들 울산개발계획이 박정희 정권의 성공과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출발점이 된 것이지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 개발사업이 울산에서 이루어졌지만 철두철미하게 지역민은 배제한 채 일본인들 그리고 중앙정부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그들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본과 기술, 노동력은 밖에서 공급하고 울산은 항만건설에 적합한 바다와 넓고 값싼 토지만 제공한 채 개발이 추진되었던 것이 현재 울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이는 전형적으로 국가주도의 개발구조에 의해 지역은 소외된 채 울산이 공업도시로 변해왔지만 지금도 이 틀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진상 : 진주를 포함하여 영남 남부를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을뿐더러 그 래서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진주 지역을 언급하기도 적절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주, 부산, 울산 쪽을 제외한 영남 남부지역은 마산, 창원, 진해 지역으로 압축하여 그 특성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는 얼마 전 창원이라는 하나의 도시로 인위적 행정적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창원은 600년 역사를 갖는 대도호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호주의 캔버라를 모델로 하여 35년 전에 현재의 물리적인 형태로 우리나라 최초의 체계적 도시계획으로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닷가 쪽 절반의 도시가 산 아래 절반의 도시를 먹여 살리는 이른바 자급자족형 기계공단 도시가 된 것이지요. 경남도청이 있는 곳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처럼 제 2의 피난수도를 염두에 두고 35년 전 당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이 미치지 않는 분지형, 방어형 도시로 개발 방법을 선택하여 무기를 생산하는 상당수 기계공단을 창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창원은 작위적으로 재편 생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천하고 도시 정체성이 부재합니다. 하지만 창원의 좌우에는 영남에서 가장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있어 도시 정체성이 강한 마산과 진해가 연결해 있으며 이들 도시들이 모여 3년 전 창원이라는 하나의 행정도시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 전 각각의 도시를 살

펴보면 마산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참으로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자신의 물건을 강매하기 위해 새로운 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유명한 일본제품이 청주입니다. 한편 진해는 일본이 청일전쟁을 치루기 위해 '군항'으로 개발한 도시입니다. 근대건축문화유산이 국내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지만 지금 그 문화유산의 상황은 풍전등화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마산은 이미 1/2 이상의 근대건축문화유산이 최근 5~6년 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최근 저희 뜻있는 건축사 및 전문가 집단에서 근대문화유산 보존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3년여를 노력한 끝에 근대문화유산 보존 활용 조례를 통과시키고 도와 시의 예산에 전수조사와 보존 활용에 관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상기에서 본 지역적 특성 속에는 근대 항만도시, 노동자가 많은 신도시, 공업도시의 특성인 개방성과 진보성이 녹아있습니다. 반면 안정을 추구하여 주변 지역으로써 불안한 입지를 탈피하려는 의지와 기본적으로 내재된 친 정권 성향의 강한 보수성, 즉 현재만 놓고 본다면 절대적 보수성 속에 간헐적이고 지속적인 '진보'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김기수 : 앞서 세분 교수님과 안성호 건축사께서 각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어서 지역의 사회, 인문적 특성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용대 건축사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용대 : 바다를 통한 교류와 혼종성, 지리적 위치로 인한 왜색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개방성을 지닌 반면에 한편으로는 외세 침략에 대한 저항과 거부로 인한 내향성, 폐쇄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구조의 특징은 과도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고지대 난개발, 바다 매립을 통한 가용지 확보, 기형적인 도시 공간구조와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산사람의 기질은 언어가 거칠고 길지 않게 표현함으로써 자칫 친절하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지만 속정은 여린 심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고 보입니다.



손숙희 : 현재 우리들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가는 도시의 모습, 이전의 도시가 갖는 모습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바다가 보이거나 접근성이 좋은 곳의 개발에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가끔은 '이러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경우 현재 부산시민공원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만, 기존 건축물을 살려두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또한 부산근대역사관은 나의 어린시절 미문화원으로 기억되는데 그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그나마 남아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지요. 유엔평화공원의 경우도 이제 관련된 시설들이 인근에 하나둘씩 어렵게 생겨나지만 이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그저 가능한 자리에 늘어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이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나 발전에는 너무나도 열정적인 부산의 기질이 느껴지지만,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그걸 기억하려는 노력은 특히 부족한 것 같다, 즉 부산의 역



반구동 유적(발굴 현장사진, 아래쪽이 경주에서 흘러오는 동천, 위쪽이 울산시 중구일대)



처용암과 공장지대



공업센터 기공식 현장

사와 흔적을 담고 있는 건축물을 그저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고민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삼건 : 앞서 제가 울산에 대해 국가주도, 지역소외라는 언급을 했는데, 조금 보충하자면요 1962년 개발이 시작되었을 때 울산에는 2급 중앙직 공무원이 수장이었던 울산특별건설국이 설치되어 197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건설국은 주로 울산의 도시기반시설을 담당했는데 서열이 분명한 공식사회에서 지방직 6급이었던 울산읍장이나 시 승격 후 5급 공무원인 시장이 울산을 위해 무슨 주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울산에 들어서는 공장의 대부분이 대기업 소유이다 보니 공장부지나 선택단지 결정에도 울산시장보다는 그들의 입김이 더 세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경상남도와 중앙정부를 직접 움직였으니까 울산 입장에서의 도시계획의 중심을 잡아줄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금에 와서 돌아해보면 난개발, 지역 고유 유산 파괴 등 많은 부작용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처용설화로 유명한 개운포라든가, 일제강점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바 있는 춘도섬 일대는 공장과 항만, 쓰레기 매립장으로 둘러싸여 이제는 도저히 지정문화재라고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울산광역시외의 해안선이 약 180여km 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공장이 막아버렸습니다. 매립된 해안선도 약 600만평이 넘으니 말 그대로 상전벽해(桑田碧海)지요. 다만, 문제는 우리세대에 맡겨 버려지는 논리로 울산을 개발해 온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것도 외지인이, 외부의 권력이 말입니다. 어쩌면 울산은 마치 공업화의 실험장 쯤 된 느낌이라 할까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변하지 않겠습니까. 62년 공업센터 지정당시 울주군을 합친 인구가 20만 정도였는데, 지금 120만쯤 되니 50년간 6배가 되었죠. 울산 토박이가 없다는 말씀도 되고, 압축 성장으로 주민도 급격히 늘다보니 지금 울산시민 가운데는 내 고향, 우리 마을이라는 주인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80%라는 말도 되지요. 개발이 뒤쳐진 지역에 사는 분들은 이런 변화를 부러워한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실체를 본다면 그런 생각을 고집할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안성호 : 앞서 한삼건 교수님께서 일제가 울산에 50만 공업도시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에도 70만정도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1930년대 후반에 세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부산의 땅이 최대 그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전쟁통에 이것은 시행되지 못했고, 광복과 함께 귀환동포들이 몰밀듯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어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번에는 피

난민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광복 당시 30만명 정도이던 인구가 100만을 넘어섭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었던 도시골격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갑자기 인구가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부산의 고질적인 도시문제인 인프라와 공간의 부족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이 진행되면서 부산이 동남권 경공업중심도시의 역할을 맡게 되고, 이번에는 농촌인구가 부산으로 대거 유입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공공공간의 부족과 고지대의 불량주거지들은 지금도 부산의 경관을 지배하고 있는 원형질입니다. 조금전 여러분들께서 주변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1980년대 이전 서울로의 집중현상이 심하지 않았을 때 부산은 중앙을 의식하는 일종의 오리엔탈리즘으로서의 주변부 의식은 심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열패감이나 시기, 모방대상으로서의 중앙 이런 식의 부정적인 주변부 의식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사실상 쇠퇴정책을 펴고 있었다고 볼 때, 부산은 항구도시로서 여전히 외국문물과 정보를 최전선에서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주변부였지만 정보와 문화는 주변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집에서 일본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고 일본 잡지나 전자제품들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방이 가라오케라는 일본문화가 부산으로 들어와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좋은 예이죠. 고급문화에 대한 아쉬움이 절실하지 않았을 때이기도 했지만 부산의 민중적 정서에 맞는 연극 같은 장르에서는 훌륭한 성과를 놓고 있기도 했습니다. 다방이나 카페 인테리어는 부산이 전국에서 최고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급속하게 커지고 개발이 진행되면서 부산이 가지고 있던 개방성과 문화적 흡수력이 상대우위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다 1990년대 이후엔 신자유주의 정책과 함께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서울로 급속하게 집중되기 시작했고, 서울과 부산, 중앙과 주변부의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만들어 낸 중앙 집중은 인력과 문화의 중앙집중을 만들어 내고 그러면서 부산이 점차 독자성과 활력을 잃고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주변부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공업탑-1967년 4월 건립



누리마루



아미산 전망대



통영 전혁림 미술관

다. 그리고 이것은 부산의 인적 구성 변화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은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산이 개방성과 민중성을 유지해 온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혼종이 만들어내는 활력인 것이죠. 그런데 1980년대 서울로의 집중현상이 가속화된 시기에 사회활동을 막 시작한 세대가 지금 50~60대입니다. 이들은 부산에서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란 첫 세대로서 이전 세대와는 달리 고향의식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부산의 주력 계층이 되면서 혼종이 만들어내던 개방성과 활력이 같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과 주변의 격차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거꾸로 주변부 의식을 강화하면서 급속하게 보수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남부 영남지역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와 이를 대표하는 작품이 있다면?

—김형수 편집국장

김기수 : 앞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제가 타 지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던 10여년 전 일들을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 부산건축계의 최대 화두는 지역성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지역에서 개최되었던 각종 공모전과 토론회 등에서도 건축에서의 지역성이 주요 주제였습니다. 지금 돌아해보면 당시 지역건축계는 지역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지역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자료들이 매우 빈약한 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대답에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사실적 내용이란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10여년 전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이제 내용적 측면에서도 성숙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아가 이를 토대로 건축의 지역성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번째 주제인 지역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의 문제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만, 먼저 손숙희 건축사님께서 말씀을 이어주시죠.

손숙희 : 역사적으로 영남지역의 경우 사찰이나 근대역사와 관련된 건물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을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로 표현하기에는 본인이 무지한 관계로 최근의 경향으로 본다면 특히 부산의 경우 지역적인 아이덴티티 측면에서는 당연히 바다와 관련된 것들이 떠오른다고 봅니다. 광안대교의 경우 디자인적으로 논하기보다는 광안리 해수욕장과 함

께 했을 때 존재가 가능하며, 또 누리마루, 오륙도 가원, 아미산 전망대 역시도 낙동강과 어우러져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남지역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완공된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피스스킬업의 경우도 건물자체도 훌륭하지만 남해의 경관과 함께 했을 때 그 느낌이 배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에 거슬리지 않으며 건물이 그 자연속에서 또 다른 풍경으로 다가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 지역의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부산에는 타 도시에 비해 산복도로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산복도로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건축 프로젝트도 부산의 아이덴티티를 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동대신동 산복도로에 폐가를 철거한 자리에 주민을 위한공간을 신축할 기회가 있었습디만, 부지는 산복도로보다 2개층 정도 낮은 계단길 하부 구석진 공간을 활용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변은 주거환경지구로 원룸이나 빌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나마 숨을 쉴 수 있고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의 지역성을 반영한 작품이나 아이덴티티는 그 장소가 갖는 환경을 잘 활용하여 이들과 어울리는 건물이 그 장소에 있으므로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진 : 저는 약간 엉뚱한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연’과 ‘방치’가 영남 남부지역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산록의 형세와 발달한 지형을 따라, 해안과 항구의 높고 낮은 자유로운 곡선과 따라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형성된,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맥락적인 디자인이 이곳의 지역다운 진정한 디자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군집, 즉 웅기종기 모여 산과 바다와 조화되고 단일의 형상으로 인지되는 디자인이 이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영남 남부지역의 디자인적 아이덴티티는 역시 지역성과의 소통과 조화가 핵심일 것입니다. 딱히 이거다 할 정도로 기억나는 곳은 없지만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다를 다르게 느끼게 했던 거제의 ‘트로피칼 드림’(설계 : 민규암) 펜션이 떠오릅니다. 펜션 외피의 물성은 지역과 일치하지 않았지만, 거제의 바다 이미지를 한 단계 고급스럽고 세련된 경지로 이끈 사례로 보여 집니다. 특히 숙박객들이 각기 다른 바다와의 조우를 느끼게 함으로써, 각자 다른 거제의 바다를 상상하고 품게 한 창의적인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생각합니다.

유진상 : 영남 남부지역 대표 건축을 언급하면서 역시 지역 건축의 보수성과 진보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시도하였지만 지역적 온건주의가 남아있

는 현대 건축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설령 주목할 만한 외관이나 공간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인습적 시공 마감과 부실한 디테일의 사례는 제외한 결과입니다. 우선 주거 또는 주거형 건축물로 안정적 주거 기능과 파격적 리듬을 갖춘 두산중공업 기숙사(강기세, 2007), 영화시나리오를 공간 시나리오로 각색한 개인주택 자하루(유진상, 김기태, 2007), 경관을 잘 차경하여 조합한 카페형 주택 블루피쉬(황홍렬, 정현식, 2008), 규칙적 모듈의 평범함을 절대적 단순미로 치환한 주상복합 빌딩 DNA 빌딩(조건영, 2006)을 들 수 있습니다. 기타 건축으로는 각층의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호텔 엠베스터 풀만호텔(이민관, 조태근, 2008), 건축과 표현의 상호작용을 잘 소화해낸 경남도청 별관(김정식, 김혁, 2011), 건축의 조각적 표현미를 잘 실현한 힌튼 남해 골프&스파리조트, 건축과 미술이 온전히 하나가 된 통영 전혁림 미술관,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근대 건축물로는 마산 성요셉성당, 마산 양덕성당(김수근, 1978), 마산 문신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안용대 : 지역의 정서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해외나 서울에 의존하여 타자의 시선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건축에서의 지역성이 명확히 드러나기가 어려워, 논의를 하다보면 부산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설계한 것이 지역성이 아닌가 하는 자조적인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부산의 지역성을 논의한 내용들은 파도, 갈매기, 배 등을 표현한 형태적 상징성, 거칠거나 수평적 조형 등의 표현성, 산동네 풍경이나 골목의 자글자글한 공간성 등으로 거칠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형으로 나타나는 지역성의 표현은 사람들의 기질을 닮아서 매끈함 보다는 거친 맛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이 건축에서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축적인 성과 측면에서 대표적이라 하기는 어렵겠지만 홍재동 건축사의 작품인 홍원건축 사옥은 거친 질감의 표면 마감과 조형적 표현에서 볼 때 부산의 지역성을 잘 표현한 예로 들고 싶습니다.

안성호 : 저는 지역성의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역성을 이야기할 때에 건축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내부의 기율과 구분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이나 지형과 어울려야 한다든지 지역의 건축적 형태와 맥락에 맞아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건축이 가져야 하는 요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건축적 고려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또 앞에서 다른 분들이 충분히 말씀하셨으니, 다른 관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축의 지역성을 이야

기할 때 한 지역의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떤 기질, 우리가 흔히 에토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건축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역성을 그곳의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통하여 공유해온 무엇이라고 본다면, 지역성을 이야기할 때 넓게는 영남 남부 좁게는 부산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적인 가치와 기억, 기질 이것들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건축을 만들게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건축적 질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고 건축이 일상성과 공공성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 지역의 삶에 건축사가 애정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질이라는 관점에서 영남 남부, 좁게는 부산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건축사로 승효상 건축사를 들고 싶습니다. 비록 주된 활동무대는 서울입니다만, 부산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건축으로 가장 잘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삼건 : 저의 경우는 공부가 부족한 탓에 울산이라는 지역의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를 잘 드러내는 작가가 누구인지, 또 작품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울산대를 다녔고, 또 모교에 부임해서 후배들을 가르친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울산을 화두로 삼아서 꾸준하게 설계를 하는 작가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건축사협회 회원 중에서 윤덕민, 김정우, 김동관, 김진한 건축사 등은 상당히 좋은 작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작품활동이 어려운 이근우씨, 대학 일로 작품 활동을 쉬고 있는 김정민 건축사도 주목할 만 하다고 봅니다. 한편 완공된 건축물 중심으로 울산의 건축문화를 바라본다면, 공공건축물이나 대학캠퍼스를 제외하면 역시 산업과 관련된 건축이나 장소 등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업원 복지를 위해 구축하는 건조물 환경이 있지요.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마음회관 같은 시설은 최고수준입니다. SK에너지가 조성해서 기부한 울산대공원의 수영장, 곤충관 같은 건축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이런 건축은 규모가 크기도 하고, 또 클라이언트가 대기업이다 보니 지역 건축사가 참여할 길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건축이 모여서 울산 지역의 건축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고, 또 건축의 장소성을 도외시하는 작가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반드시 울산을 잘 이해하거나 충분히 인식하고 설계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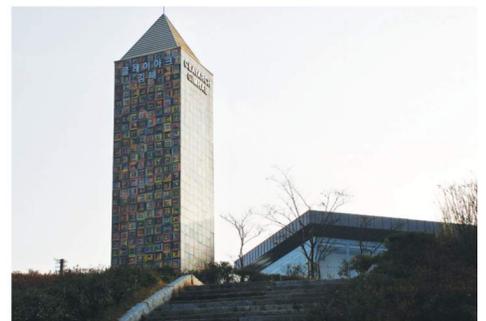
안성호 : 주변부 의식에 대해 조금 보충하자면, 주변인으로서 중앙에 대하여 가지는 의식도 기질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하루



블루피쉬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



울산 객사 학성관



울산대학교 건축대학



울산시청

다. 조금 전 손숙희 건축사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에서 유행하는 건축이 별다른 여과장치 없이 부산에 바로 지어진다는 것도 중앙 - 이때는 서구나 외국이겠죠 - 을 의식할 때 나타나는 주변부 문화 현상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는, 특히 부산은 고급문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덜했고 서민적이고 저항적인 문화가 주로 향유되어 온 곳입니다. 유교문화보다는 불교문화의 영향이 강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변부 의식이 부산 특유의 민중성이나 저항성과 결합될 때, 직관적이고 민중적인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그래서 중앙의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건축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고 봅니다. 최윤식 건축사의 문화골목이 이러한 건축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영남남부 혹은 부산 출신의 건축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현상 하나는, 물론 이건 별 근거 없는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대개 시류에 대한 저항성과 함께 논리적인 성향을 함께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근본주의적이고 이론적인 성향이 강했던 영남학파의 유교적 전통과 관련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론을 통하여 자기 작업을 설명하려고 낭만주의적 예술가보다는 저항적 지식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서구 전통의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 건축사로서 건축적 담론 생산에 참여해야 한다는 시대적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좀 근본주의적이고 저항적인 촌놈 기질 이런 것이 영남남부지역의 건축사들이 가지는 기질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질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하고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건축사였다면 승효상 건축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질이라는 관점에서 영남남부 혹은 부산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건축사로서 승효상 건축사를 꼽고 싶습니다.

남부 영남지역의 설계현황과 환경, 건축설계 교육에 대하여?

-김형수 편집국장

김기수 :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 건축계에서 지역성 문제를 삼았던 10년 전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당시 지역성의 문제를 건축과 연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적 환경과 더불어 건축적 형태를 연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대표하는 작품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규모의 작품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대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연, 형태보다는 장소와 기질의 문제가, 대규모 작품이나 유명 작가의 작품보다는 곳곳에

숨어있는 작품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 합니다. 물론 이 경우 타 지역 건축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어쩌면 이는 디자인 아이덴티티 문제에 있어 지역 건축사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인 지역의 설계현황과 함께 교육환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죠.

안용대 : 부산지역의 정치환경, 사회의식, 경제적인 여건이 전반적으로 건축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건축심의회나 현상공모, 건축사 인증제 등 건축계 내부의 제도적인 문제들도 건축사들의 실무여건을 점점 힘들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문제는 너무나 오래되고 진부한 이야기이나 현재까지도 그 해결의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요. 지역 건축계와 관련단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는 건축사 개인의 의식부족이 맞물려 있으며 오히려 개인의 의식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 일수록 작가정신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건축교육 문제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건축교육을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그 가능성을 찾는다면 설계과제나 지역의 학생공모전에서 주어지는 사이트나 주제에서 지역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삼근 : 사실, 건축사로서의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한 지역의 건축문화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울산에서 작품으로서의 건축, 나아가서 건축문화가 배태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에 울산대에 건축학과가 생긴 이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울산대 개교 당시 대학이 한 곳 밖에 없던 울산지역에 지금은 대학이 더 생겨났지만 아직도 4년제 대학 건축학과는 울산대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울산대 건축과 교수 가운데 설계가 전공인 사람은 거의 빠지지 않고 울산시와 구, 군의 건축위원으로 참여하고, 지역 내 건축 공모전 심사위원에도 항상 참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울산지역의 많은 실무 건축사가 학창시절 사제간으로 만나서 사회인이 된 후에는 심사교수, 심의위원과 건축사로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건축과 교수는 건축계의 권력이 되고, 건축사들의 출세기도 없다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지역의 바람직한 건축문화 발전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정 학연이나 인맥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좁은 지역 건축계가 불화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누구나 심사와 심의는 공정하게 임하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인맥을 쌓

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아는 일 아닌가요.

유진상 : 앞선 토론에서 저는 영남남부 지역 설계의 보수성과 진보성을 언급했습니다만, 지역 설계 현황을 예를 들면서 진단해보겠습니다. 영남 남부지역 건축을 일반화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주택건축 소위, 표준주택(다가구 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벽돌과 화강석 마감으로 대표되는 획일적 마감과 국적 불명의 기와지붕, 그리고 지붕위로 우스꽝스럽게 튀어나온 물탱크실로 구성된 이 표준주택들이 영남 남부지역에 유난히 많습니다. 한번 검증된 표준주택의 시공 편의성과 보장된 매매율에 매혹되면 웬만해선 다른 공간 설계나 시공을 시도하지 않는 거죠. 영남 남부지역 건축의 긍정적 특징 역시 주택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이처럼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던 건축주들이 어느 순간 가장 파격적인 디자인과 공간을 시도하는 특징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전체적 개수는 많지 않지만 그 질과 창의력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도전적 디자인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물론 이는 동일 설계비와 시공비, 건축조건을 가정하였을 때 건축주와 건축사의 선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건축주와 건축사 모두 어느 순간 보수성을 내려놓고 실험적 디자인에 동의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지역 건축 현실을 좀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속희 :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피해갈수는 없겠지만 바다조망의 꿈을 안고 부산을 찾는 개발프로젝트들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바다에 대한 기대는 인정하지만 그저 바다만 바라보기를 부산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만, 수주가 줄어든 수도권의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은 지방 특히 부산에 관심이 많아 결국 지역의 사무소들이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부산의 경우 디자인적인 노력이 많아져 관공서 프로젝트의 경우 규모가 작은 것도 좋은 아이디어를 위하여 공모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공사비를 기본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이에 따른 설계비도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과업 범위는 무한봉사 수준이다 보니 부족한 공사비는 디자인을 완성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일반 건축사들은 공사비증액은 꿈도 못하는 끝없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유진상 : 영남 남부지역의 경우 전체 다가구, 다세대 주택 설계 및 시공 수요의 90% 이상이 사실상 건축사의 손을 떠나 비전문가의 설계와 감독을 받아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만연하여 지속되는 것은 비현실적인 설계비의 영향이 큼니다. 설계비 때문에 건축사가 포기한 주택설계 시장을 비전문가가 파고들고 건축사는 오히려 비전문가들에게 하도급을 받아 도장만 찍어주거나 반복되는 허가용 도면을 그려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건축사들이 더 단합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장사들이 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비전문가들에게 시장을 내주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지역 건축사의 역할 중 좀 더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자면 히도급자들에게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입니다. 지역 건축설계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실험적 설계의 시공을 도와준 히도급자들에게 가장 큰 상을 주고 명장의 호칭을 받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저는 건축현장에서 30~40평생 설비, 벽돌, 타일, 목공, 페인트만 다루는 장인들을 술하게 보아왔습니다. 그 분들을 내가 '명

장'으로 추대하는 순간 내 설계의 시공 완성도는 두배 세배 높아집니다. 이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명장'제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합니다. 이 상을 시공사가 가져가서는 결코 진전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 역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배울 수 있도록 건축사사무소 직무연수 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에 투입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너무 모르기에 비현실적 '애니메이션 설계' 라는 환각에 빠져있고 그걸 조장하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수들이 먼저 변해야겠죠.

안성호 : 지역의 설계환경은 나쁩니다. 경제적인 환경이나 중앙으로의 지나친 집중 등이 일차적인 원인이겠죠. 보다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축이라는 개념과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축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축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에 대한 개념이 아직 지역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서울은 경제적 집중과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에서 세계도시가 되면서 서구의 부르조아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그 결과 전문직능인으로서의 건축사를 인정하고 요구하는 분위기와 수요층이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죠. 부산이 서울처럼 세계도시가 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 우선은 건축에 대한 개념을 시민과 공유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써야 대화가 되는데 그간 우리의 언어로 시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시민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이 그간 꾸준히 있어 왔고 그 결과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언어로 건축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는 노력과 함께, 시민들이 좋은 건축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일상 속에서 직접 느끼게 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답적인 예술가가 아니라 지역의 일상에 밀착된 동네건축사로서의 자세와 노력이 계속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설계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학교 교육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삼건 : 설계환경과 건축교육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사실 저도 원래는 건축설계를 좋아했고, 또 하고 싶었는데 박사과정을 마치고 울산대학에 자리 잡으면서 그런 기회는 전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대학 강단에서 한해도 거르지 않고 학생들에게 설계 강의는 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 설계교육이나 설계실무에 대해 안테나는 늘 세워두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건축설계를 비롯한 건축시공 시장은 일부 대형건축물을 제외하면 전통적으로 지역 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아파트로 획일화되면서 중앙의 1군 브랜드아파트가 전국을 석권하고 초고층 대단지가 일반화된 결과 지역의 주택시장에서 지역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업체는 완전히 밀려나 버렸습니다. 분배구조가 왜곡된 거지요. 예를 들어 1,000세대 아파트를 단독주택 1,000세대로 보면 건축사사무소 1곳이 1년에 단독주택 10건 설계로 현상유지가 된다고 가정할 때 100개 사무소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사사무소 1곳이 독점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문제는 지역 건설시장의 사활이 걸린 분배문제로 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수가 일을 독점하니 지역 건축계가 고사하고, 건축사사무소가 늘고 있으니 대학교육도 파행을 겪습니다. 학생들이 건축설계는 물론 건축분야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 뿐 아니지



태화강 대공원과 고층 건축

요. 졸업 후에도 가장 재미있는 단독주택 설계를 통한 실무 습득, 즉 훈련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지역 건축업계가 브랜드 아파트에 지배당하면서 건축사는 일을 빼앗기고, 그 후배들은 실무수련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건축사사무소가 너무 많거나 건축시공회사가 많아서 생기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좀 오래된 통계라서 시효가 지났지만, 제가 일본서 학위 후에 니켄(日建)설계에서 일할 때 인 1993년에 봤던 일본의 건축사는 목조, 1급, 2급 합쳐서 80만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와 같이 4층 이상 RC건축 설계가 가능한 1급 건축사만 해도 25만명이었는데, 가령 일본인구가 1억3천만이라면 우리가 약 5천만 정도 되니 1993년의 일본과 20년이 지난 올해의 우리가 경제 수준이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9만6천명 정도의 건축사가 있어도 1993년 당시 일본 건축사만큼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이처럼 소수가 전체를 독식하는 아파트가 주는 폐해는 지역의 설계분야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도 하고 싶네요. 건축이 인간의 기본활동인 의식주(衣食住)에서 주(住)을 맡고 있는 만큼 이제는 건축이나 도시 과목이 대학의 교양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가는 대학이나 총장이 있어서 건축을 교양과목으로 만들어 간다면 우리 건축문화가 크게 성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클라이언트가 건축설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강동진 :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해양 건축'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바닷가 옆에 있으면 모두 '해양 건축'이라는 농담 섞인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00% 정답이라는 수궁(?) 속에서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설계교육은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평생 무슨 일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도시(건축)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설계가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이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약하고 낮은 자, 낡고 오래되고 약한 공간의 편에 서야 하는 당위성을 전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남부 영남지역의 향후 건축전망 및 기대에 대하여?

-김형수 편집국장

김기수 : 마지막으로 향후 지역 건축계의 전망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대담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앞서 다하지 못했던 말

씀이 있으시면 이번 주제와 연계해서 말씀을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상 : 많은 사람들이 지역 건축경기 침체를 건설경기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그런 때 일수록 중소규모 의식있는 건축주들은 모험을 시도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 보수적 건축주의 마음과 지갑을 움직이는 것이 이 지역 건축시장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건축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단합해서 비전문가의 하도급 시스템을 타파하고 저항하여 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허가방, 즉 도장만 찍어주는 건축사들에 대해서 뒤에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에게는 상을 주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반대로 필요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벌을 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기에 앞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허가방 건축사들에게는 보수적 건축주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건축사의 윤리를 논하기에는 우리 건축시장은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경제논리에 종속적입니다. 또 다른 예로 건축사와 지역 전문가 관련된 제도적 허술함을 언급할 필요도 있습니다. 건축 관련 심의를 나가보면 '여성 심의위원 30% 할당제'로 인해 건축 지식 전문한 아동가족학과 교수님이나 사회학과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 경우 등을 종종 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연루있는 여성 건축사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괴롭기는 여성 비전문가분들이나 심의를 받는 대상 양쪽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제도는 도처에 널려있습니다. 건축사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수,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은 건축의 인문학적 가치를 대중화시키고 학교 평생교육원에 건축 대중화 관련 설강을 하여, 향후 우리들의 실 고객이 될 '건축주 학생들'에게 좋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합니다. 이 고객들이 지역 건축사와 눈높이를 맞추고 좋은 인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안용대 :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금의 건축현실이 어디 영남지역만의 문제인가만은 지역 건축계의 관점에서 전망하고 해결할 과제로 설정하는 것은 분명히 영향력을 만들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뜻을 같이 하는 소규모 단위의 건축 집단의 활동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작가 정신을 견지해 나가는 개인의 노력이 만드는 건강한 건축기반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숙희 : 부산의 지리적인 특성이나 역사적인 사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건축할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욱 더 지역을 이해하고 그곳과 어우러져 또 하나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로 기억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규모를 떠나서 하나하나가 작품이라 생각하고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힘이 부족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노력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의 전력이라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규모 사무실과 경쟁할 수도 이길 수도 없지만 나름의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싶은 것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강동진 : “좋은 건축은 있지만 좋은 도시는 없다.” “건축은 도시와 공동

체적 운명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건축은 추상적인 건축과 틀 안에 갇힌 건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건축설계와 건축시공은 도시설계(가꾸기)와 도시시공(만들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 번에 큰돈을 버는 오브제 지향적인 건축이 아니라, 사회의 부족한 곳을 채우고 매우는, 장소를 창출하고 자연을 매력있게 가꾸는, 경관의 관계를 연결하고 보호하는, 그리고 역사와 문화에 기반 한 따뜻한 마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채움 작업과 조정 작업을 건축이 담당해야 만이 지역의 건축기반이 튼튼해 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건축의 파이를 창조적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닫히고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감히 유일의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한삼건 : 세 가지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하나는 건축사들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간을 다루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자각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압축성장을 하면서 건축설계분야를 둘러싼 환경이 정말 크게 변했는데, 건축사 스스로가 시대를 앞서서 변화를 이끌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환경 탓을 하거나 ‘건축사법’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뒤쳐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공간 전문가로서의 진정한 자각을 바탕으로 변화를 선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공부를 권합니다. 보통 건축사는 사무소경영, 수주활동, 설계실무, 업무조정 등 온갖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거의 혼자하다 보니 차분하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참신한 발상을 위한 자기수양이 힘들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인이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라도 평생 해간다면 차별화 된 작품 세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진정한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갖추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경험한 것 두 가지만 소개하면, 다카마쓰신(高松伸)의 경우 일반회사에서 전문 영업맨이 단지 다카마츠가 좋아서 스스로 찾아와서 수주를 담당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영업에 약한 건축과 출신 직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과를 올렸지요. 니켄(日建)설계의 경우 제 옆자리에 몽고어과 출신 고참 직원이 있어서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소설가 빠치는 문장가였습니다. 공모전용 패널리스트나 보고서의 문장은 모두 그 사람 작품이었습니다. 이처럼 전혀 다른 특기를 가진 사람이 모일 때 더 큰 시너지가 생기겠지요.

안성호 : 강동진 교수님께서 하셨던 협업에 관한 말씀을 받아서 오늘의 주제인 지역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지역 건축계 내에서 협업이 잘 안되는 집단이 아이러니컬하게도 건축사들과 교수님들인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서 건축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지역 건축은 차치하고 건축에 대한 토론도 그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역 건축계 내의 권력관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지역에서 건축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 건축에 대하여 대화와 토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의아합니다. 지역 건축이나 아이덴티티를 위해서는 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집단이 지역 건축의 문제점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공동의 지향점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건축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건축사들의 성과물이나 교수님들의 연구결과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두 집단이 공동의 지향점을 가지고 건축적 규범을 함께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 성과들은 개인적인 성취로 그칠 뿐 지역 건축계 내에 확산되고 공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리고 의외로 지역의 건축사들이나 교수님들 중에는 건축 내부의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주제라든지 미학으로 관심을 한정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여기’가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은 건축 내부의 디스플린을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 다음은 ‘지금 여기’가 가르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겠죠. 지역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이런 지역학을 바탕으로 건축계 내부에서 진지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간 축적된 역량들이 모여 공동의 지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기수 : 약 3시간 반 정도 진행한 대담을 이제 정리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역건축에 대한 진지하게 대담에 임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건축계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주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또 다시 건축계에 불황의 한파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건축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함에 따라 건축계에 주어진 역할 또한 변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일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지역의 건축을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은 변화 속에 변하지 말아야 할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따라서 오늘 대담을 통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속에서 지역의 건축문제를 고민하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 특집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전국의 건축사분들께서 영남 남부지역의 건축적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정보라도 제공이 되었다면 대담을 진행한 큰 의미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청마의 기운을 받아 모든 건축사 여러분 새해 사업 번창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대담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 대담이 늦은 시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시간이 넘도록 너무나도 의미있고 진지한 대담을 진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경남지역의 다양한 도시적인 특성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동진 Kang, Dong-jin /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에서 조경학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ICOMOS-Korea(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 위원으로,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계획학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김기수 Kim, Ki-soo /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동아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경도공예성유대에서 건축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주)공간건축사사무소에서 5년간 건축실무를 익혔으며, 지난 2001년부터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정회원이며, 도쿄모모 코리아 부회장을 맡고 있다. 문화재청 근대분과 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문화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건축위원이다.



한삼건 Han, Sam-geon / 울산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울산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울산시 월드컵경기장 설계전문위원, 울산시 북구 도시계획위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 지명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울산 경실련 정책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일본 동경대학 학술출판회에서 공저한 '한국 근대도시경관의 형성'으로 지난 2013년 일본건축학회 저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외 참석자의 약력은 이어지는 회원작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새항운병원

New Hangun Hospital



설계자 | 안용대_KIRA | ㈜가가 건축사사무소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로 있다. 공간건축, 이로재건축에서 실무를 하였으며, 다수의 미술전시 참여 경력이 있다. 주요 작품으로 요산문학관, 미래로여성병원, 부산대 제2예솔관, 디오센터사옥, 새항운병원 등이 있다.

- 설계팀 | 곽순찬, 허인수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유진구조이엔씨
 - 기계설비분야(소방포함) : 기술사사무소 원라인
 - 전기분야(소방포함) : ㈜광명토탈엔지니어링

건축주 | 김민성
감리자 | ㈜가가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진경종합건설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704-19번지 외 2필지
 주요용도 | 의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826.40㎡
 건축면적(Building Area) | 639.37㎡
 연면적(Gross Floor Area) | 4,313.4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77.37%
 용적률(Floor Area Ratio) | 471.73%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1층, 지상 8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문경석물갈기, 알루미늄루버, T24 칼라복층유리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12~2009. 0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9. 03~2010. 02
 사진(Photographer) | 이인미(Lee, In-mi)

Client | Kim, Min-sung
Architect | Ahn, Yong-dae
 Project team | Kwak, Sun-chan / Heo, In-soo
General Contractor | Jinkyung Constrction
 Location | 704-19, Yeonsan-dong, Yeonje-gu, Busan,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YUJIN Structural Engineering Construction Co.,Ltd
 HAVC Engineer | Professional Engineer's Office HAN-GIL
 Electrical Engineer | KWANG MYUNG Total Engineering Co.
 Finishing | Mun-Kyung Stone, Aluminum Louver, Color Double Glazing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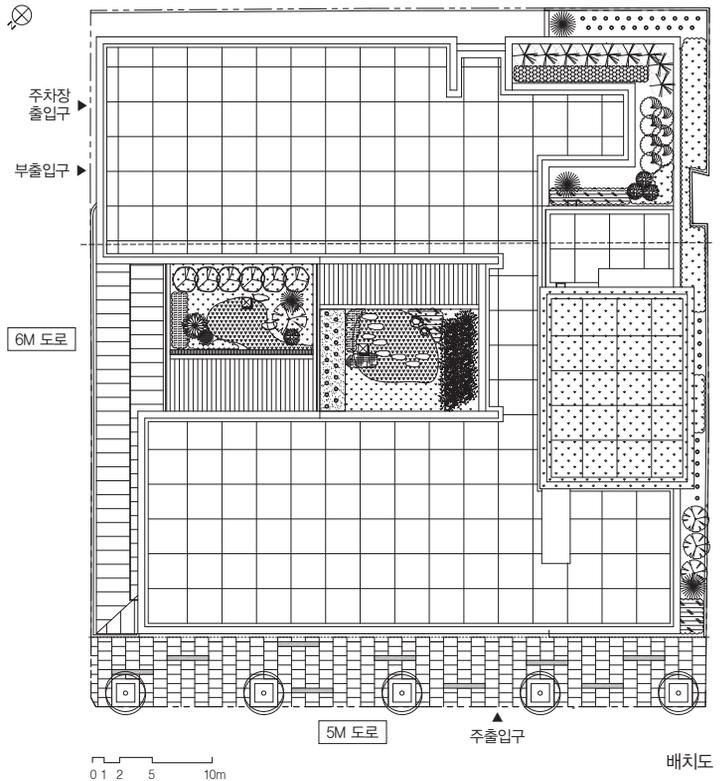
대장, 향문, 소화기 전문병원으로 식당(지하층), 편의시설(1층), 외래진료(2층), 수술실(3층), 검진센터(4층), 병실(5-7층), 병실 및 관리시설(8층)의 각기 다른 기능은 마당을 사이에 두고 공간이 적절히 구분되거나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Brand is value, Brand is attention

무한경쟁시대의 병원은 브랜드가 필요하다. 의료특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능적으로는 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진료의 전문성과 관련된 이미지를 시민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병원의 경영과 밀접하다. 연속되는 매스형태는 새항운병원의 진료특성을 나타내는 아이콘으로 작동한다. 환경적 요소의 도입은 시대적 화두이며 병원의 성격과 다르지 않다. 연속되는 매스의 사이 공간에 환경요소(마당, 나무, 빛)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건물의 이미지는 매스형태와 더불어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가 중심이 된다. 연속되는 매스와 함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외부의 공간은 이 건물의 핵심적 디자인 이미지이며, 건축과 도시와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Eco Hospital

주된 포인트는 내부공간의 환경성 향상이다. 5층의 'ㄱ'자 마당과 6층~8층의 정면에서 좌측면으로 관통하는 트인 마당을 두어 채광, 환기 등의 환경을 향상시킨다. 5~6층 병실의 중정은 환자과 보호자들을, 8층 중정은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다양한 마당들은 병원과 부속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외부로 노출되어 건물에 표정을 부여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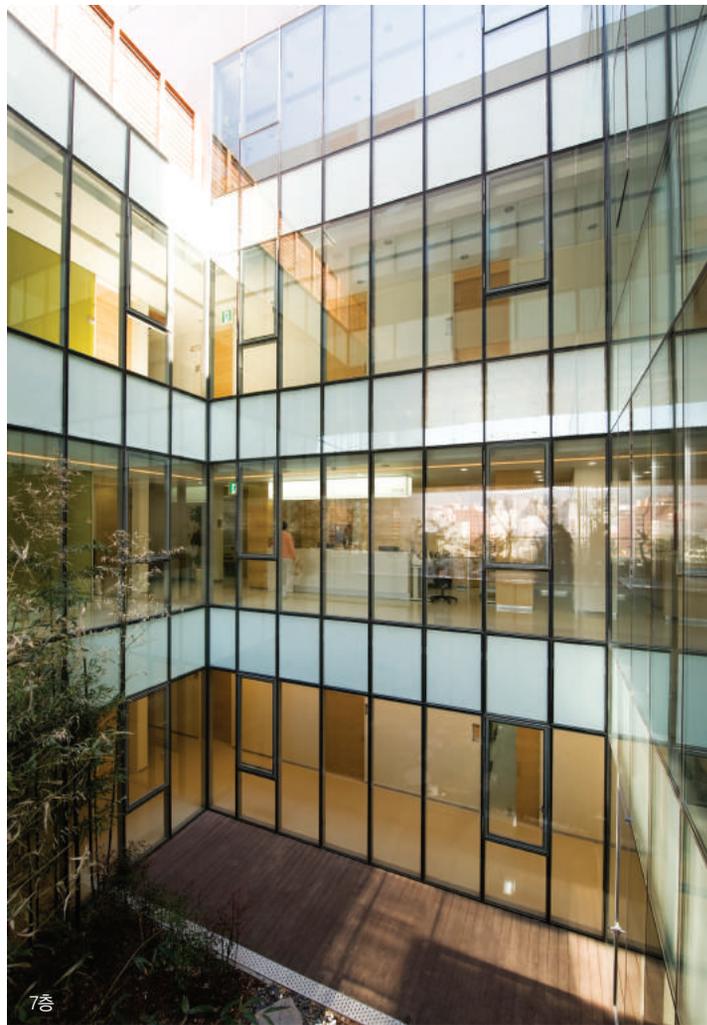
전경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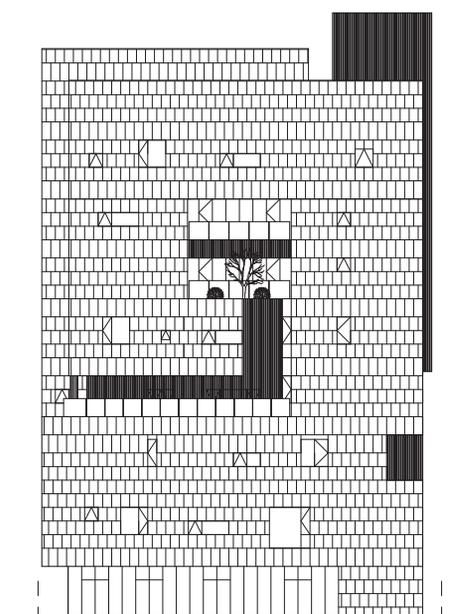


정면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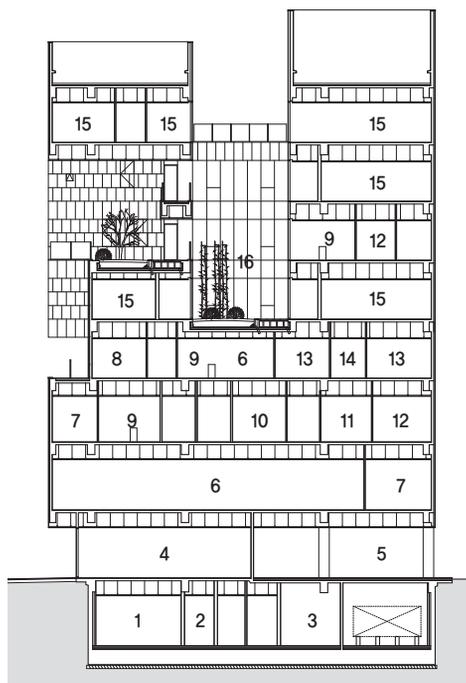
7층

- | | | | | | | |
|---------|-----------|----------|---------|-----------|------------|---------|
| 1. 식당 | 4. 근린생활시설 | 7. 진료실 | 10. 회복실 | 13. 촬영실 | 16. 중정 | 19. 수술실 |
| 2. 주방 | 5. 주차장 | 8. 임상병리실 | 11. 처치실 | 14. 접수/조작 | 17. 엘리베이터홀 | 20. 탕비실 |
| 3. 발전기실 | 6. 대기홀 | 9. N/S | 12. 준비실 | 15. 입원실 | 18. 상담실 | 21. 기계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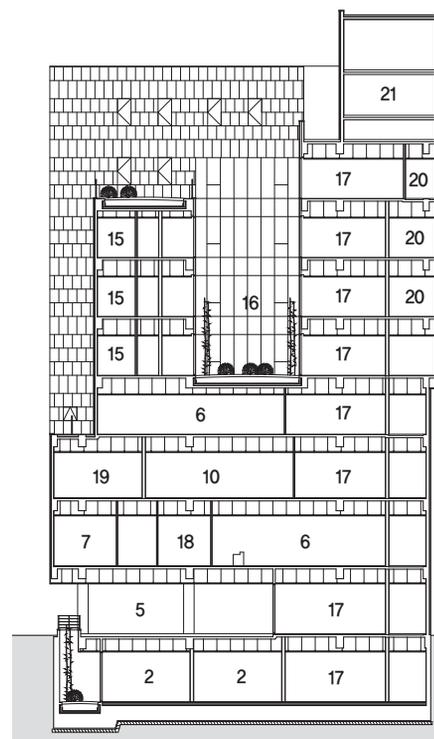


0 1 2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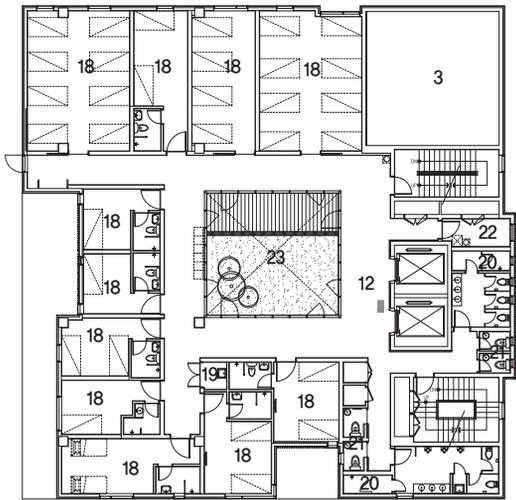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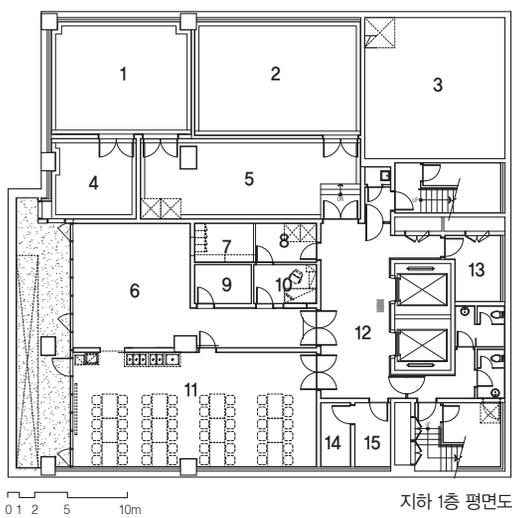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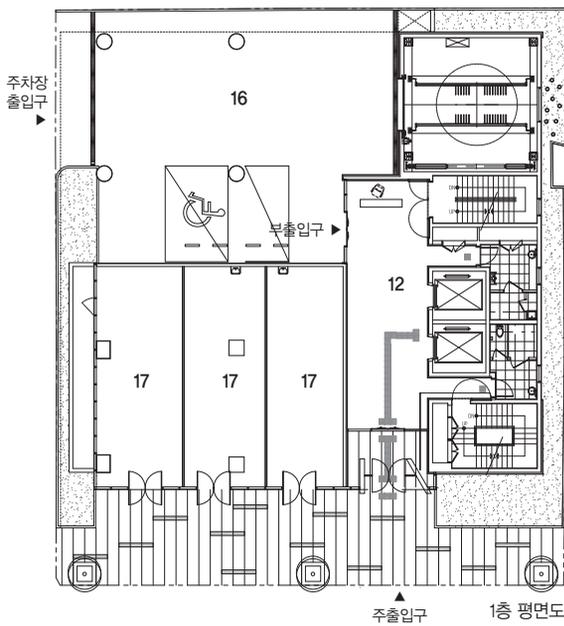
중단면도



횡단면도



1. 전기실
2. 저수조
3. 타워 파킹
4. 발전기실
5. 기계실
6. 주방
7. 주방직원실
8. 세탁실
9. 창고
10. 영양사실
11. 식당
12. E.V.홀
13. 의료가스실
14. MDF실
15. 방재센터
16. 주차장
17. 근린생활시설
18. 입원실
19. 소독실
20. 샤워실
21. 좌욕실
22. 탕비실
23. 중정





6층



2층 데스크



6층 중정



8층 원장실



8층

화명수목원 전시온실

Hwamyung Municipal Arboretum Greenhouse



설계자 | 안성호 KIRA | ㈜시반 건축사사무소

서울대 건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대 건축학과에서 근대주거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월간 「건축과 환경」과 「공간」 편집부를 거쳐 부산에서 발간되었던 건축지 「이상건축」의 조대편집장을 지냈다. 주요 작품으로는 일본 아타미시 한국정원, 진해시 동부도서관, 성산패총 아철지보호각, 해양대학교 국제교류협력관, 남해 이순신순국공원 리더쉽체험관 등이 있다.



설계자 | 공부성 KIRA | 루가 건축사사무소

경성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도시공학과 석사를 수료했다. (주)시반건축, (주)서강건축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현재 루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남구보호회관, 감전동 오토리더, 청학동어울림마당,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태종대관리사무소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경수, 박영진, 박정설, 정정인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변대근(동인구조)
 - 조경분야 : 변문기(오엘컨설팅)
 - 기계설비 : 그린플러스
 - 소방분야 : 백남금(세보엔지니어링)
 - 전기분야 : 현규섭(부흥이앤씨)
 - 통신분야 : 정기용(부흥이앤씨)

건축주 |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감리자 | 건축사사무소 일우

시공사 | ㈜협성종합건설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산 11-5번지

주요용도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10,653㎡

건축면적(Building Area) | 879,79㎡

연면적(Gross Floor Area) | 943,11㎡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0.79%

용적률(Floor Area Ratio) | 0.85%

규모(Building Scope) | 1F

구조 | 철골조

주요마감재 | 복층유리, 자연석, 호튼층 커빙기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12. 30~2009. 04. 3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9. 06~2010. 10

사진(Photographer) | 이인미(Lee, In-mi)

Client | Busan Metropolitan City

Architect | Ahn, Sung-ho / Kong, Boo-seong

Project team | Kim, Kyung-soo / Park, Young-jin / Park, Jeong-seol / Jung, Jung-in

General Contractor | Hyupsung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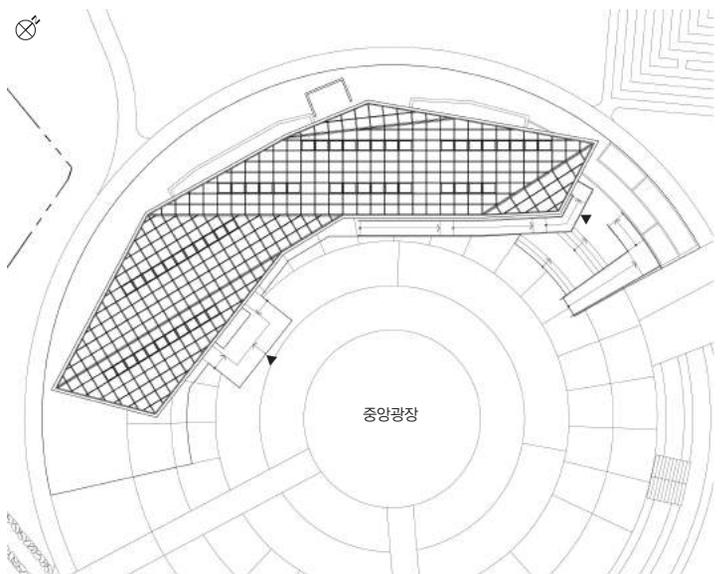
Location | 11-5, Hwamyong-dong, Buk-gu, Busan, Korea

Structure | S.C.

Structure Engineer | Byun, Dae-geun(Dong-in Structure)

HVAC & Electrical Engineer | GreenPlus + Boo-heung Engineering

Finishing Materials | Pair Glass, Stones on Site



0 1 5 10m

배치도



화명수목원 전경

화명수목원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공립수목원이다. 전시온실의 설계공모가 나오고 금정산에 있는 현장을 찾아가보니 수목원 조성기본계획에 따라 중앙광장은 이름에 걸맞게(?) 완전한 원형으로 평탄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시온실의 대지는 중앙광장의 동심원 원호에 자리 잡혀 있었는데, 요구된 건축면적을 맞으면 딱 차는 면적이어서 중앙광장을 동심원으로 에워싸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하학과 투시도법의 공간이 산 속에 만들어지고 있었고, 전시온실도 그러하기를 요구받고 있었다.

‘어떻게 조성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기하학과 투시도법을 해체하면서 산의 질서 속으로 스며드는 건축을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설계가 시작되었다. 대지경계선 안으로 원 지형선들을 몇 개 가져온 후, 이에 따라 공간을 굴절시키고 연결시켜 다시 점의 부감법적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굴절된 형태를 통하여 수목원 입구에서 온실로 접근하면서 시점에 따라 전시온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를 바랐다. 조성기본계획의 투시도적 단일시점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싶었다. 이 굴절된 온실 공간 위에 관람로가 떠 있는데 여기서도 온실 전체 공간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굽어진 공

간들이 느슨하게 관람로를 따라 연결되며 깊이감과 기대감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온실은 수목의 성장과 관리를 위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무란 성장조건이 다 다른 법이라, 일조와 열환경이 다른 공간들이 제공되는 것이 다양한 전시작물의 성장에 유리하다. 공간의 굴절은 온실 내부에 다양한 미세기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할 것이다.

온실의 지붕도 몇 개의 절곡면으로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도 시점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여 건축과 하늘이 만나는 윤곽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다. 수목원에서는 건축보다 산과 나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시 전시온실이 하나의 완결된 형태로 인지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전시온실의 단면은 한쪽이 들려져 있다. 산을 올라가듯 경사로를 따라 온실의 상부로 진입하여 아래로 내려오는 관람동선을 이룬다. 원 지형의 기억을 유지하면서 바깥의 풍경과 내부의 수목들을 만나는 다양한 시점을 제공하려는 생각이 단면화된 것이다.

다시 점의 부감법적 공간과 공간의 경계들이 느슨하게 이어지는 것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전통건축의 공간적 특질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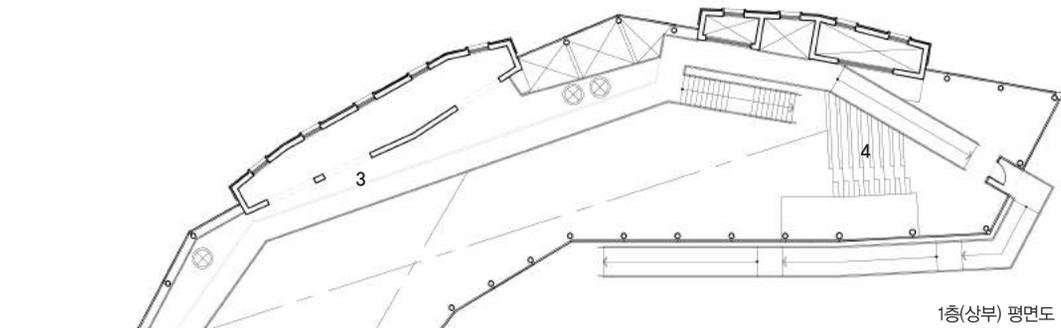


진입로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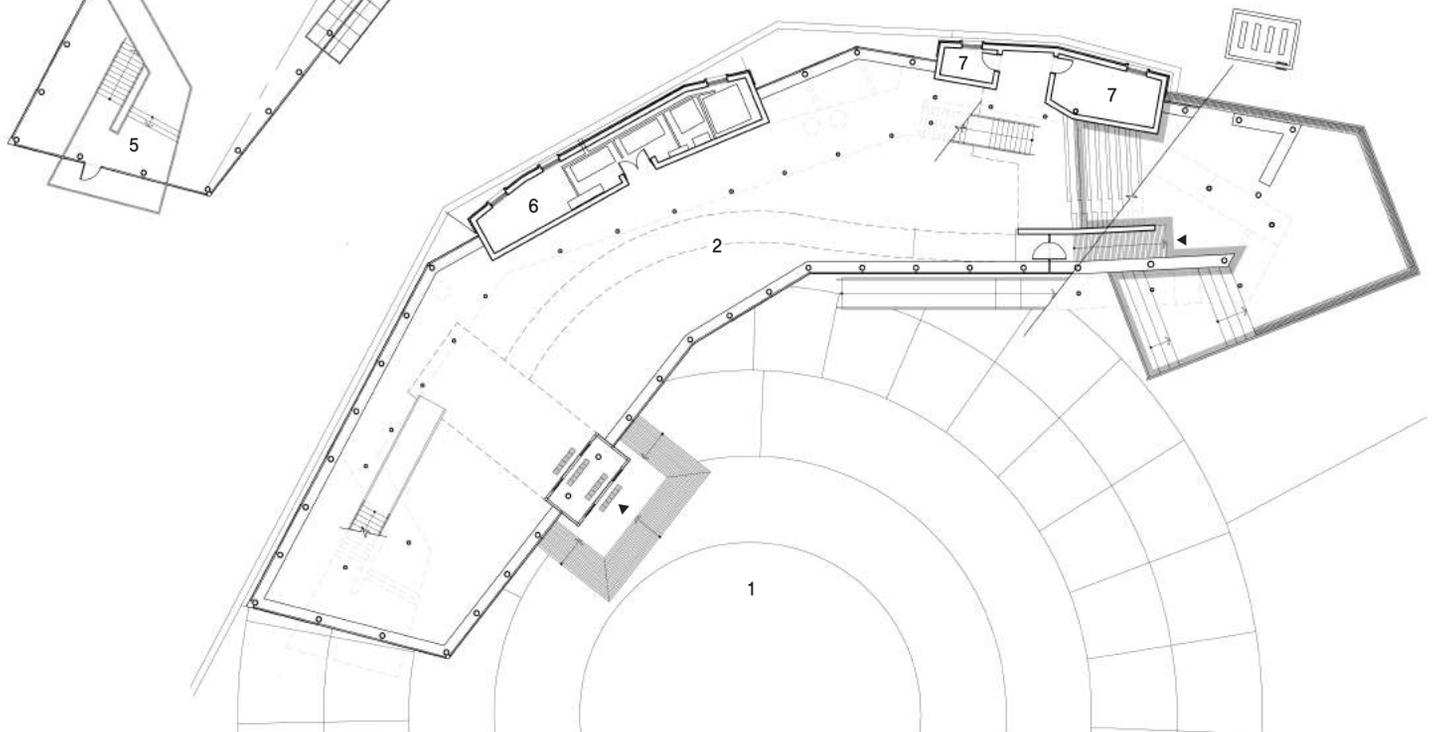


진입로에서 바라본 전경

- 1. 중앙광장 3. ECO-WAY 5. 전망 계단 7. 창고
- 2. 전시온실 4. 식물 교육장 6. 설비실



1층(상부) 평면도



1층(하부) 평면도

0 1 5 10m



북측에서 본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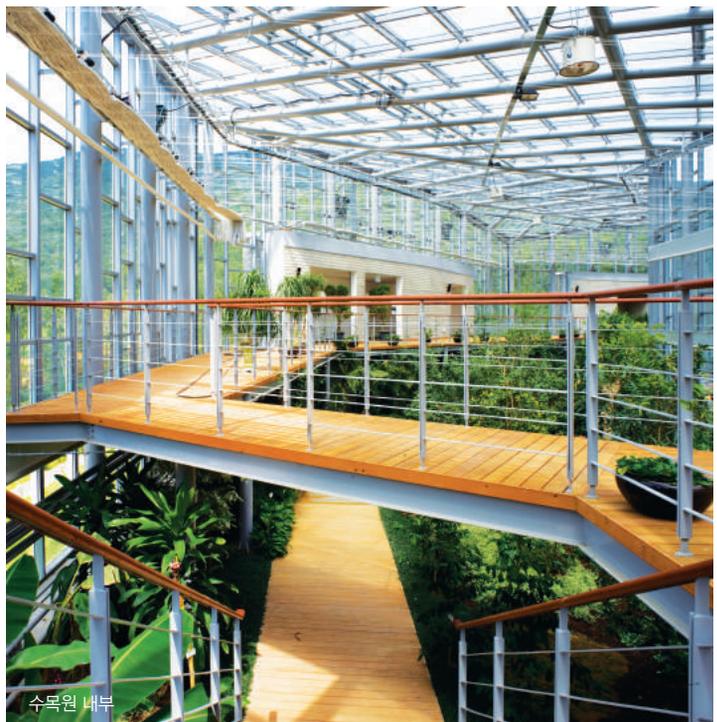
건물 외부 램프



산에서 바라본 전경



진입로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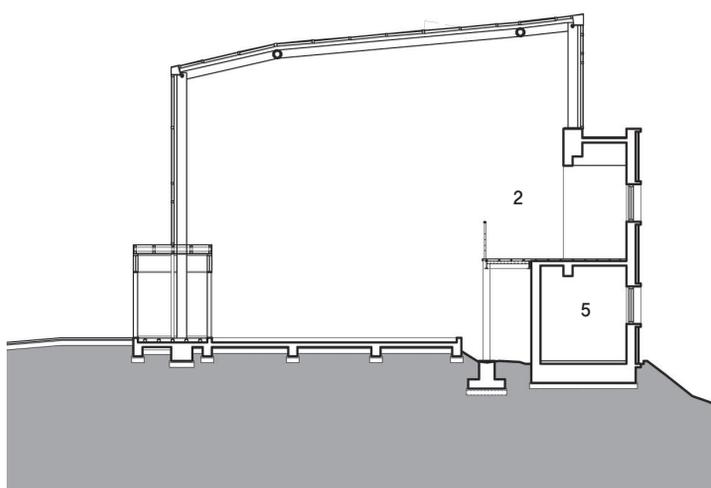
수목원 내부



- 1. 전시온실 3. 식물 교육장 5. 설비실
- 2. ECO-WAY 4. 전망 계단 6.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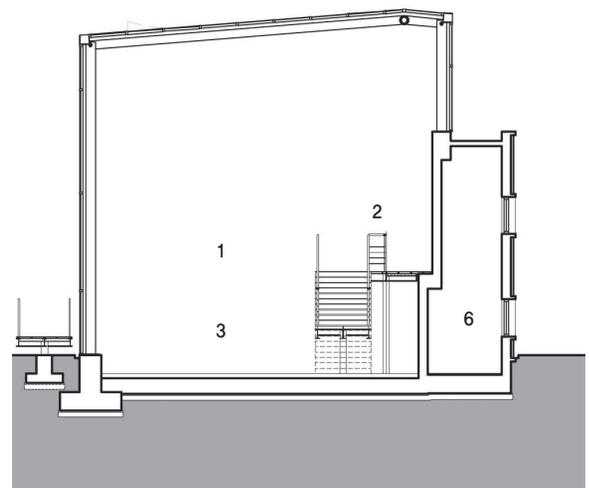


횡단면도



0 1 5 10m

종단면도-1



종단면도-2

부산 서구 송도 해양레포츠센터 (Wave - Scape)

Songdo marine leisure center



설계자 | 손숙희, KIRA | ㈜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경성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공학 박사를 수료했다. 손 건축사는 '아미산 전망대'로, 지난 2011년 부산시가 주최하는 '부산다운 건축대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기장초등학교, 건설인력양성센터 등이 있으며, 현재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부산도시공사 설계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 설계팀 : 조정훈, 이형상, 손지영, 최창규, 박정훈, 현 진, 정성희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대성
 - 기계설비분야 : SL
 - 통신·소방설비분야 : 금정엔지니어링㈜

건축주 | 부산광역시 서구청

감리자 | ㈜수가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양지종합토건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35-5번지

주요용도 | 관광휴게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15,275㎡

건축면적(Building Area) | 271,96㎡

연면적(Gross Floor Area) | 507,5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0,36%

용적률(Floor Area Ratio) | 0,67%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T0.5 접합발색강판(평이음, 돌출이음), T50 베이스패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2. 6~2012. 1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10~2013. 05

사진(Photographer) | 윤준환 Record A(Yun, Jun-hwan)

Client | Busan West Ward

Architect | Son, Suk-hui

Project team | Cho, Jeong-hoon / Lee, Hyeong-sam / Son, Ji-yeong / Choi, Chang-gyu /
Park, Jeong-hun / Hyeon, Jin / Jeong, Seong-hui

General Contractor | Yang ji Construction

Location | 135-5, Amnam-dong, Seo-gu, Busan, Korea

Structure |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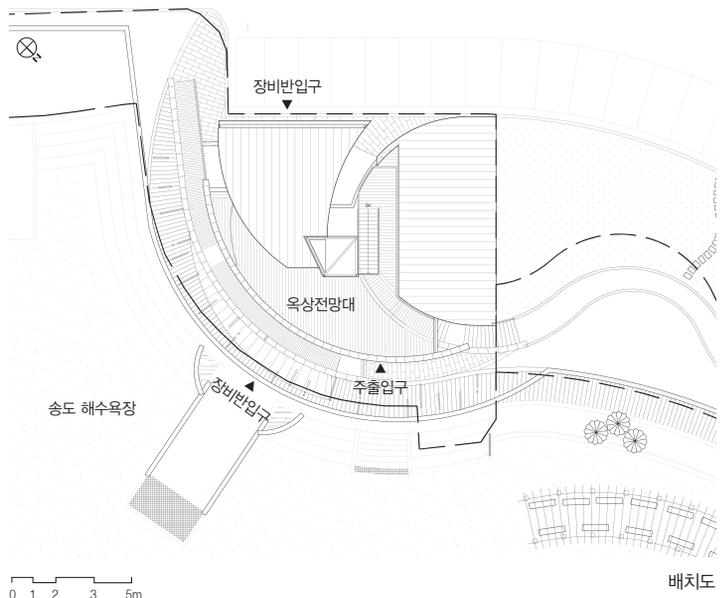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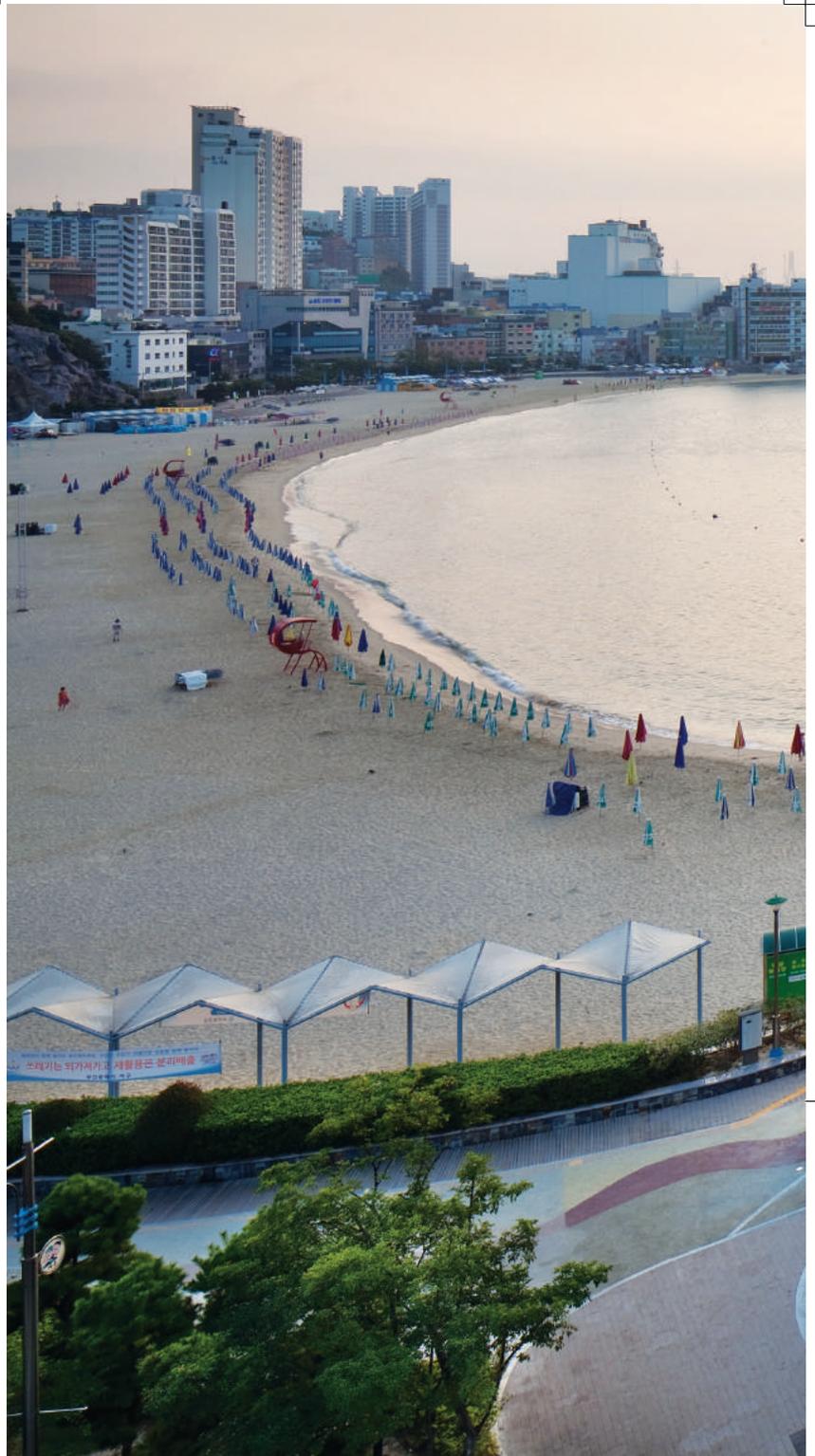
Structure Engineer | Dae Seong Engineering

HAVC Engineer | S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SL Engineering

Civil Engineer | Not Selected

Finishing | T 0.5 Colored Steel Plate/ T50 base panel





북서측 조감뷰에서 본 송도 바다

Prologue

어릴적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았던 해수욕장. 파도와 바람, 케이블카와 구름다리.
 행어나 떨어질세라 다리 난간줄만 꼭 잡고 발을 못 떤던 추억의 해수욕장...
 뭐가 그리 좋은지 다이빙대에는 사람들이 어찌나 몰리던지...
 한순간 잊혀진 송도. 지금은 그 추억을 모두 안은 채 새로운 모습이다.
 변함 없는 파도와 소나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이곳을 다시 찾는 발걸음이 옛 송도의 명성을 찾아가고 있다.

Wave-Scape

해안선을 연상하게 하는 산책로와 조경이 물결처럼 흘러 이곳에서 맴돈다.
 물결의 흐름은 하나둘 나뉘어 동선이 되고 공간이 된다. 어느 곳은 길게 늘어
 저 사람들을 맞이하고, 어느 곳은 높은 파도가 되어 시선을 가려준다.

흡사 파도와 배의 모습으로 자리하여,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송도의 풍경이 되
 길 기대한다.

송도해양레포츠센터의 바람

해수욕장을 찾는 이들의 동선은 공원과 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
 고, 그 시선을 바다로 향하게 오픈하였다.
 해양레포츠 소형장비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면서 들은 쉽게 분리되어 있다.
 그 형상은 파도와 물결의 모습이며, 그 외피는 물고기의 비늘모양으로 바다의
 푸르름을 담을 수 있는 은빛으로...
 송도길에서 바라보는 지붕은 바다와 함께 어우러져 모든 이의 시선에 담길
 수 있도록...
 사람들은 옥상에 모여 바다내음과 추억을 만끽할 수 있도록... **㉮**



북측에서 본 진입로



남측면 전경



동측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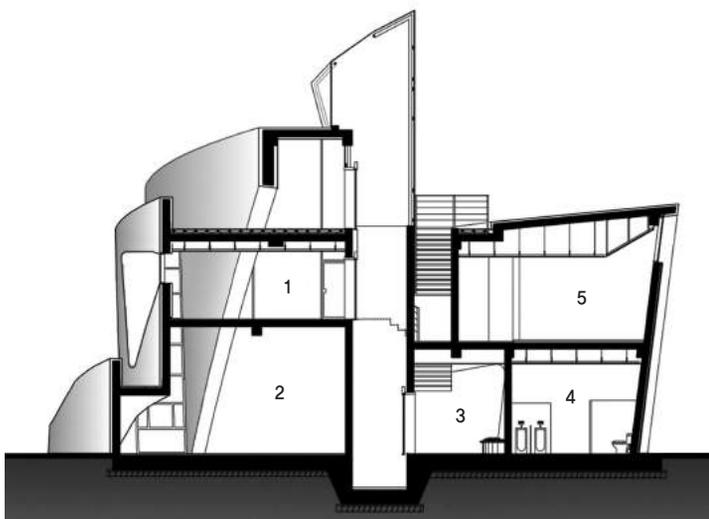


입구에서 본 송도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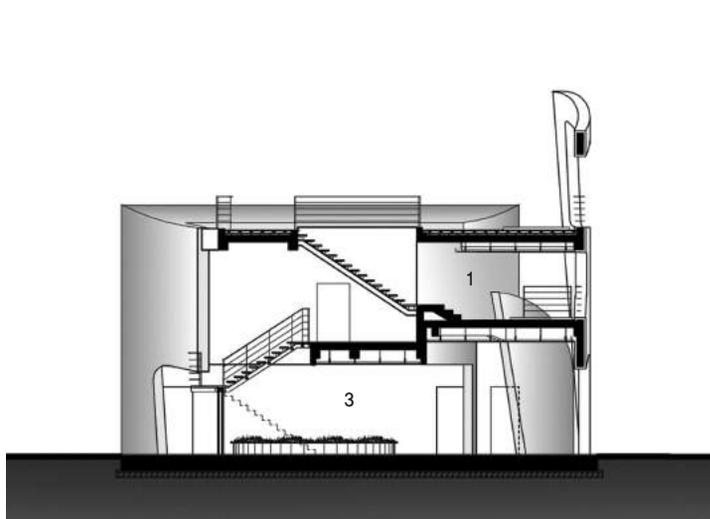


내부에서 본 송도바다

- 1. 휴게실
- 2. 장비보관실
- 3. 엔트런스홀
- 4. 화장실
- 5. 탈의실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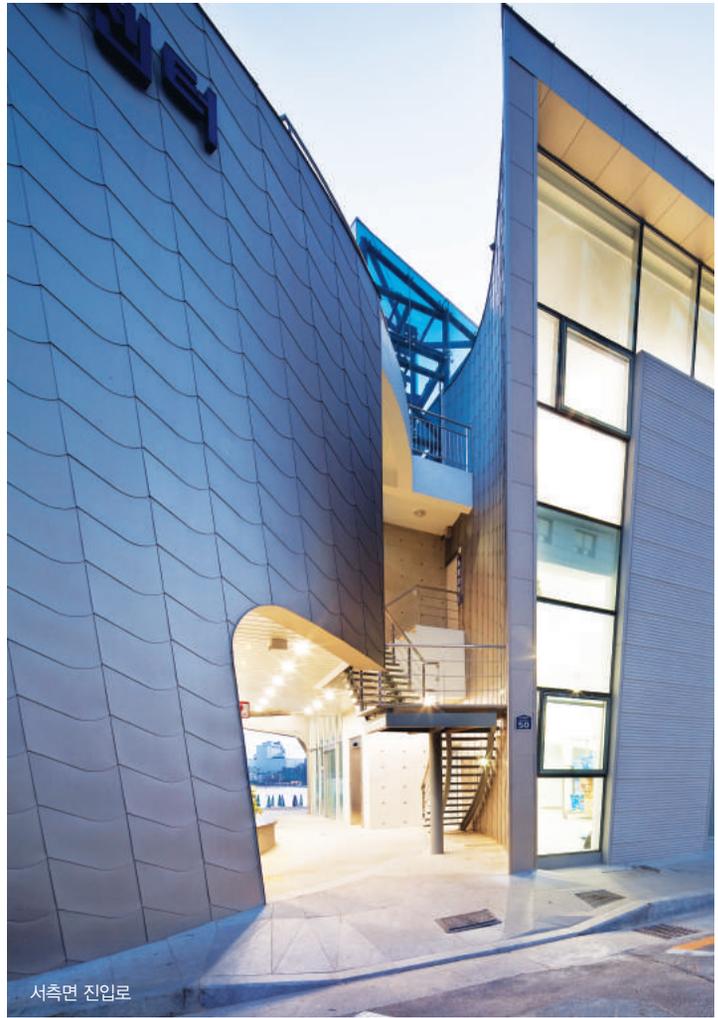


횡단면도

0 1 2 3 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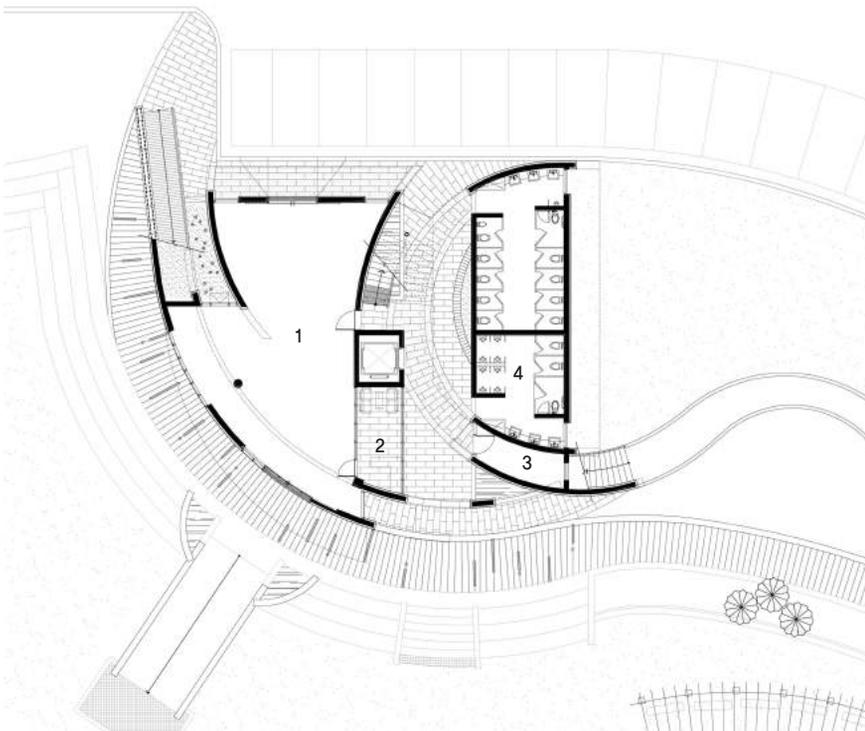


경사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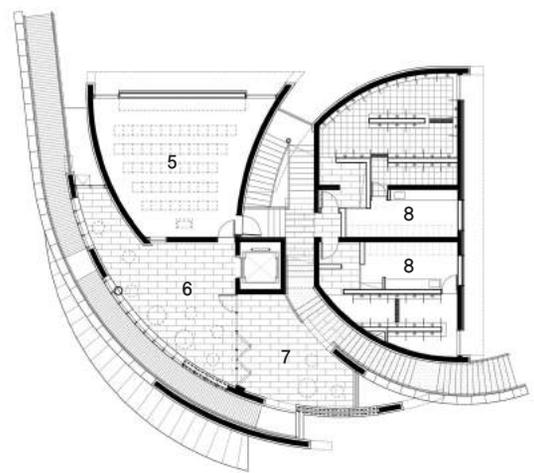
서측면 진입로

- | | | | |
|----------|--------|------------|--------|
| 1. 장비보관실 | 3. 창고 | 5. 사무실/회의실 | 7. 휴게홀 |
| 2. 접견실 | 4. 화장실 | 6. 시민휴게시설 | 8. 사위실 |



0 1 2 3 6m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북동면에서 본 송도해변



동측면 전경



옥상에서본 송도바다



송도바다에서 본 동측면

산복도로 이바구공작소

Mountainside Road Renaissance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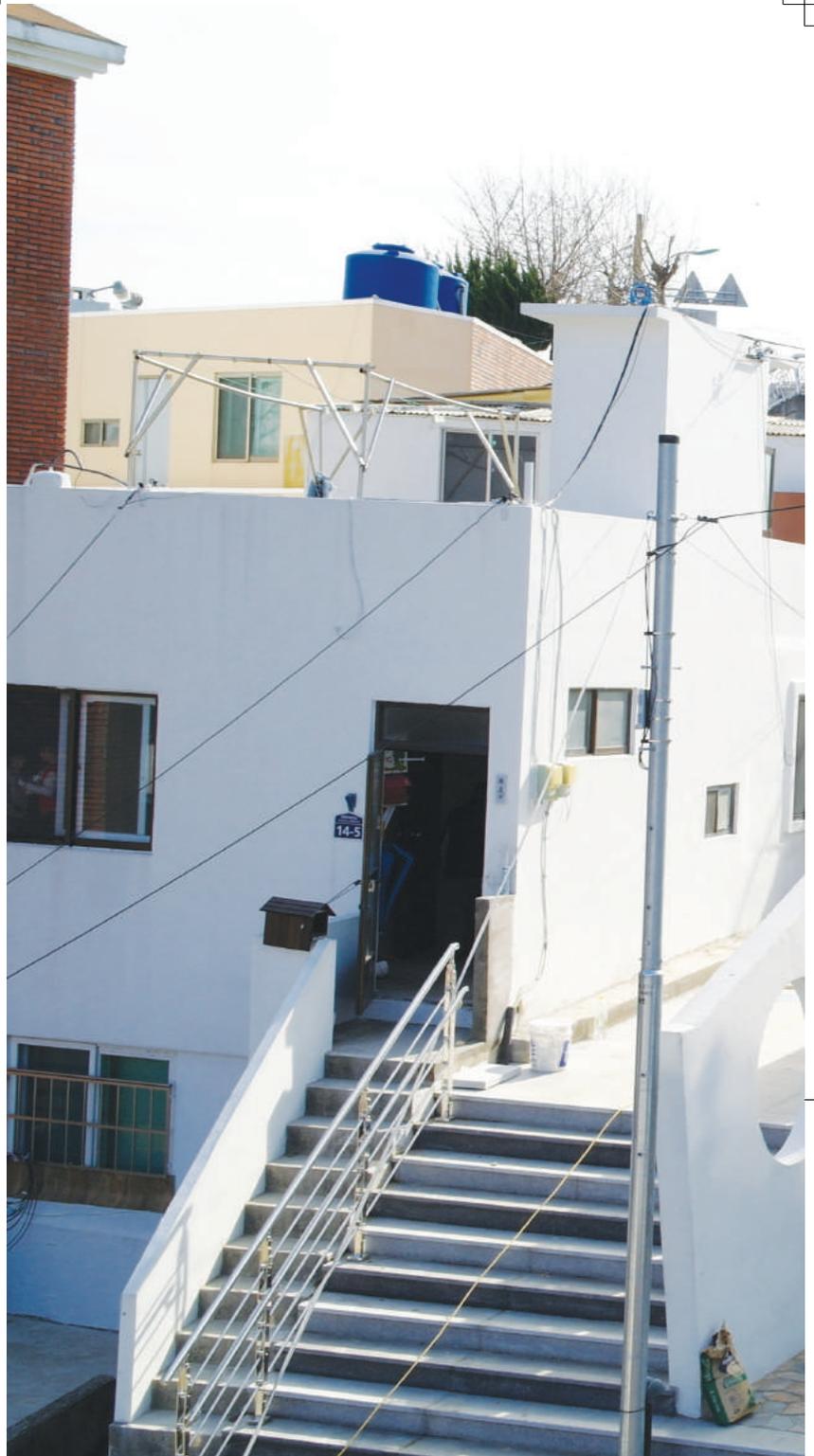
설계자 | 한영숙, KIRA | 사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경성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동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시 가로구역별 높이계획, 산복도로르네상스 공공 건축물, 부산진 역사문화가로 개항문화관, 행복마을 만들기 실행 계획 등 공공건축물 계획 및 공공지침 수립, 공공건축/공공공간의 사회문화적 가치,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설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 설계팀 | 김용민, 김성경, 신나은, 손혜경, 김예리
- 전문기술협력
 - 건축적산 : 금오건축적산연구소
 - 설비분야 : ㈜도시이앤씨
 - 토목분야 : 건우ENG
 - 사진작가 : 이인미

건축주 | 부산광역시 동구청
감리자 | 사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용신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875-2
 주요용도 | 생활자료관
 대지면적(Site Area) | 492.0㎡
 연면적(Gross Floor Area) | 264.51㎡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천연칼라몰탈, 적삼목, 슬레이트매트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2. 08~2013. 02

Client | Busan Dong-gu Office
Architect | Han, Yeong-suk
 Project team | Kim, Yong-min / Kim, Seong-kyeong / Sin, Na-eun /
 Son, Hye-kyeong / Kim, Ye-ri
 Location | 875-2, Choryang 2-dong, Dong-gu, Busan, Korea
 Structure | R.C



아카이브 투시도



0 1 2 3 5m

배치도



「산복도로 이바구공작소」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을만들기사업 중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 건축물로서 지역적, 장소적 가치가 있는 산복도로의 추억을 공유하고, 주민들과의 소통 공간, 산복도로의 공간적 변화와 다양한 가치, 그로인한 주민들의 삶의 변화 모습을 지속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마을 아카이브 기능이 담겨질 수 있도록 기획 및 계획된 건축물이다.

망양로 버스정류장과 접하고 있는 입지의 접근성을 최대한 살리고, 좁은 골목길로 통할 수 있는 옥외계단을 배치하여 주민과 이용객, 관광객과 등산객의 접근성 및 통행의 축을 연속적으로 만들었다.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면 이하의 최고고도지구 특성으로 전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옥상 공간을 오픈식으로 계획 배치하였고, 이벤트마당, 골목마당 역할의 공간을 방문객과 통행의 목적으로 하는 주민의 동선으로 분리 계획하였다. 한정된 공간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열람공간 및 세미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평면계획을 하였으며, 각종의 접이식 문으로 외부공간과의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다목적의 활용성과 유기적 다양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야기 수집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바구공작소동과, 안내센터 및 사무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동으로 구분하여 평면구성 하였다. 이바구공작소는 전시공간 연출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Open Plan으로 구성하여 작은 공간속에서 최대의 공간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산복도로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상징성을 지닌 건축물과 산복도로 주위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는 형태 및 질감이 반영되는 건축물의 입면 및 메스계획을 하고, 조망할 수 있는 옥상전망공간과 함께 산복도로의 풍경이 건물내부에서도 하나의 프레임으로 되어 전시 및 연출 될 수 있는 창을 설치하였다. 기존 대상지의 단면형태가 버스 통행 도로의 옹벽하부에 위치하여 기존 경사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층별, 동별로 계단식 단면으로 구성하였다. 인근 주택지와의 소통 및 증축활용 가능성을 위한 골목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면 계획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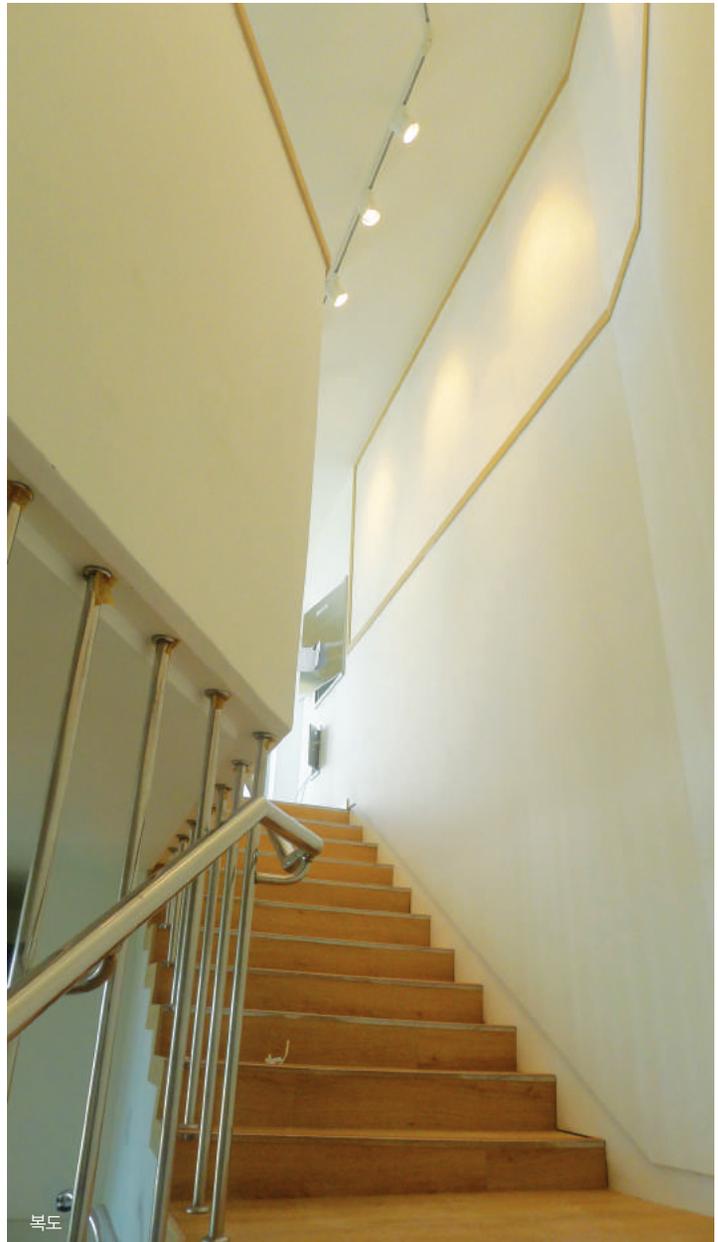


내생의 최고의 날 “그리고, 기억...년” (傳)
2013. 5. 14 ~ 6. 16 이바구공작소

북측에서 본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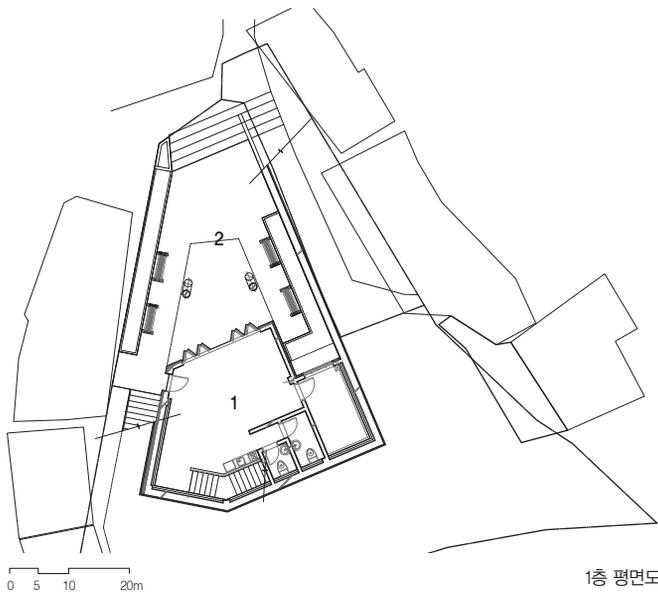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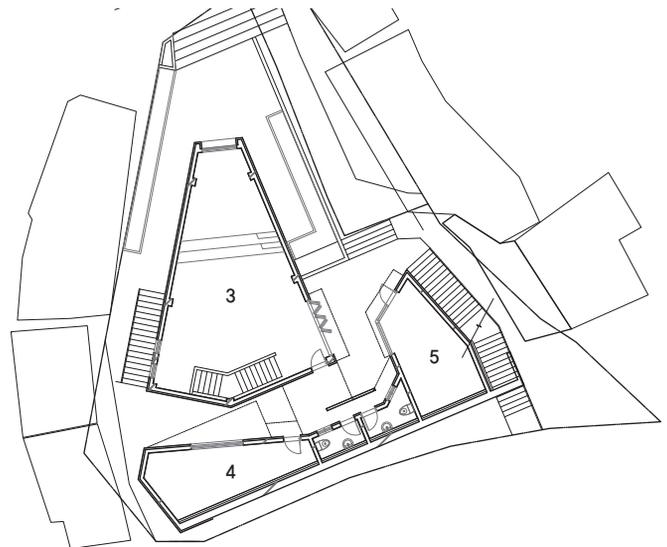


복도

- 1. 열람 및 임시보존공간
- 2. 진입마당
- 3. 이바구공작소
- 4. 사무실
- 5. 안내센터, 기프트샵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필로티 부분



측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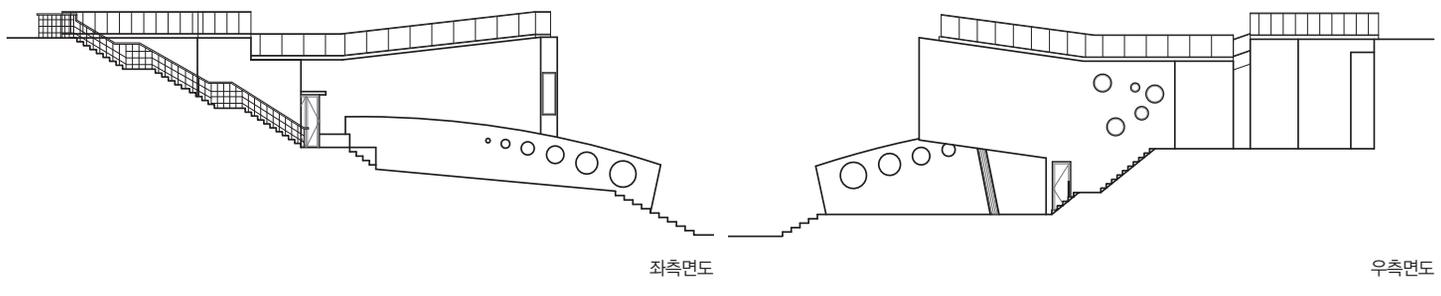
내부 및 외부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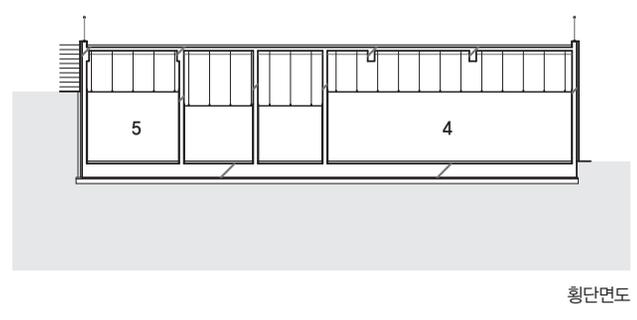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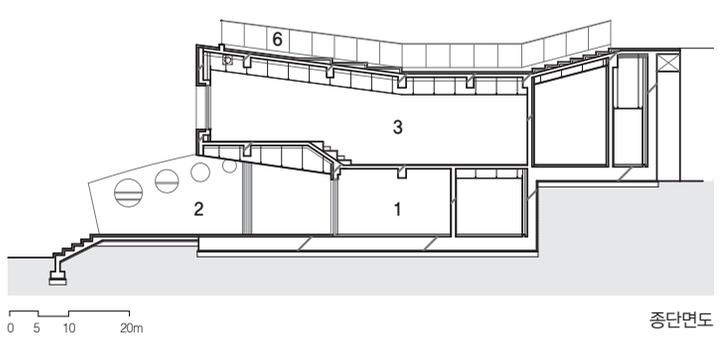
옥상전망대



안에서 바라본 외부전망



- 1. 열람 및 임시보존공간 3. 이바구공작소 5. 안내센터, 기프트숍
- 2. 진입마당 4. 사무실 6. 전망대



문화골목

Cultural Alley



설계자 | 최윤식_KIRA | ㈜가산 건축사사무소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경성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실내디자인 석사를 취득했다.
 현재 ㈜가산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해운대구청과 부산시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동아대와 부산대, 신라대, 동서대, 동명대, 경성대에 출강한 바 있다.

본 프로젝트는 대학가 앞에 위치한 기존주택가의 도로에 접하지 않은 4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설계 및 증축, 리모델링하고 소극장, 갤러리, 커피숍, 주점, 레스토랑 등을 배치하여 각 주택의 접근로를 서로 소통시켜 골목을 형성시킨 소규모 복합문화공간이다.
 기존주택의 구조 및 재료를 최대한 살리고 외부조건, 소품들도 옛 기억을 가능한 추억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

• 설계팀 : 정지원, 김현문, 김구미, 김정희, 강기일

건축주 | 최윤식

감리자 | ㈜가산 건축사사무소

시공사 | ㈜가산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2-4번지의 3필지
 주요용도 | 복합문화공간(근린생활시설, 갤러리, 소극장)
 대지면적(Site Area) | 937.2㎡
 건축면적(Building Area) | 419.12㎡
 연면적(Gross Floor Area) | 805.43㎡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4.72%
 용적률(Floor Area Ratio) | 85.94%
 규모(Building Scope) | 지하 1층~지상 3층
 구조 | 조적, 철골, 샌드위치패널
 주요마감재 | 목재, 외단열시스템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7. 11~2007.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8. 01~2008. 05
 사진(Photographer) | 조명환, 이은미(Jo, Myeong-hwan / Lee, Eun-mi)

Client | Choi, Yun-s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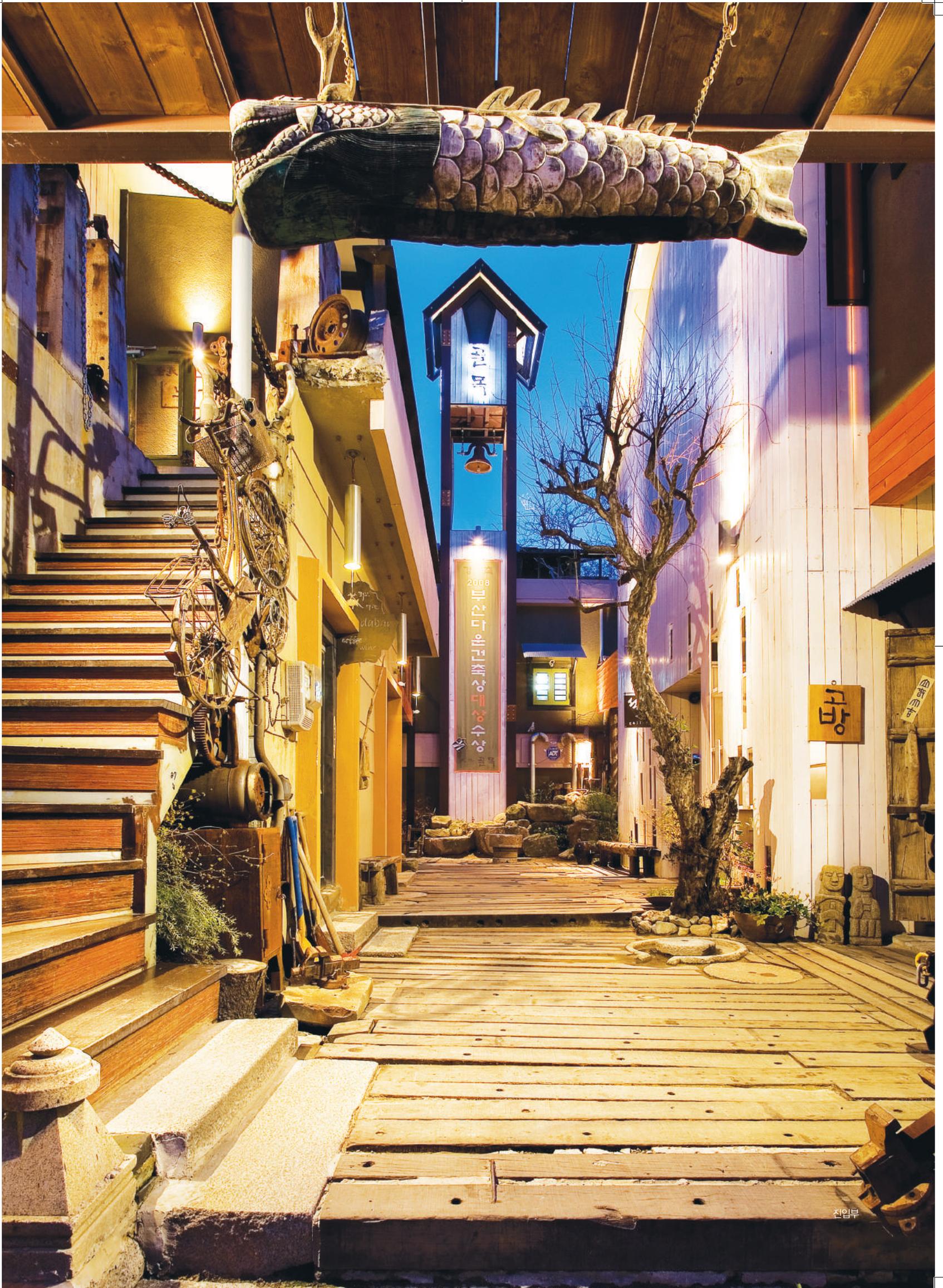
Architect | Choi, Yun-sik

Project team | Jeong, Ji-won / Kim, Hyeon-mun / Kim, Gu-mi /
 Kim, Jeong-hui / Kang, Ki-il

Location | 52-4, Daeyeon 3-dong, Nam-gu, Busa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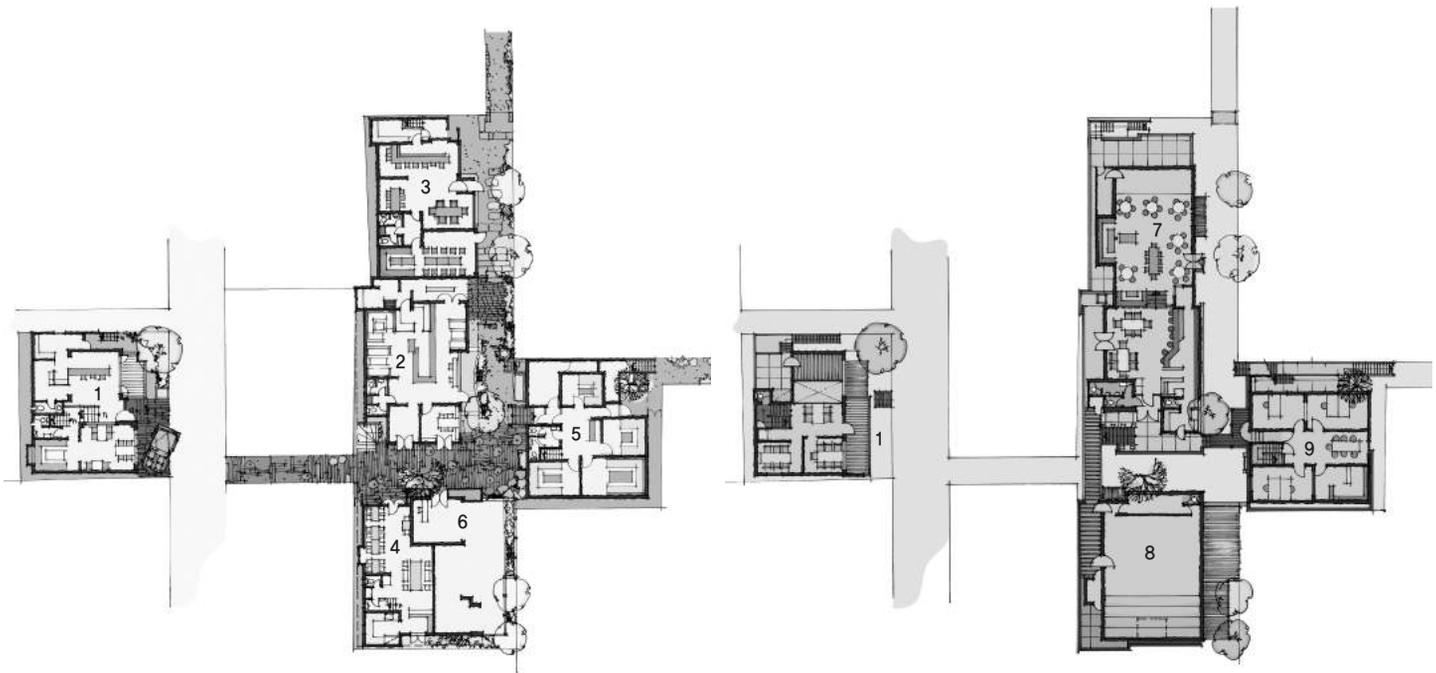
조감도(스케치)





전경

- 1. 레스토랑 3. 바 5. 노래연습장 7. 라이브카페 9. 사무실
- 2. 커피숍 4. 주점 6. 갤러리 8. 소극장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정면도



갤러리 석류원



용천소극장



노가다(라이브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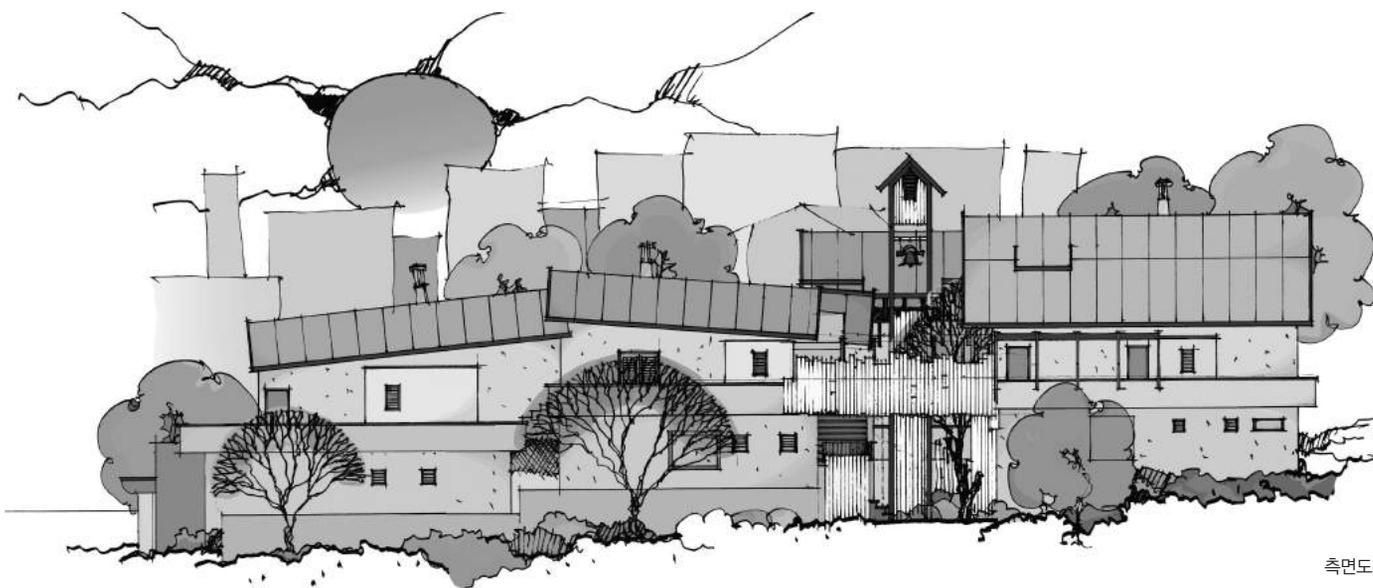
아트샵



다반



선무당 내부



측면도

자하루 (自下樓)

Jaharu



설계자 | 김기태 KIRA | ㈜이누 건축사사무소
국립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공간구성 건축사사무소, ㈜삼풍 종합 건축사사무소, ㈜가원설계종합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다. 국립 창원대학교에서 건축공학과에서 석·박사를 수료했다. 현재 국립 창원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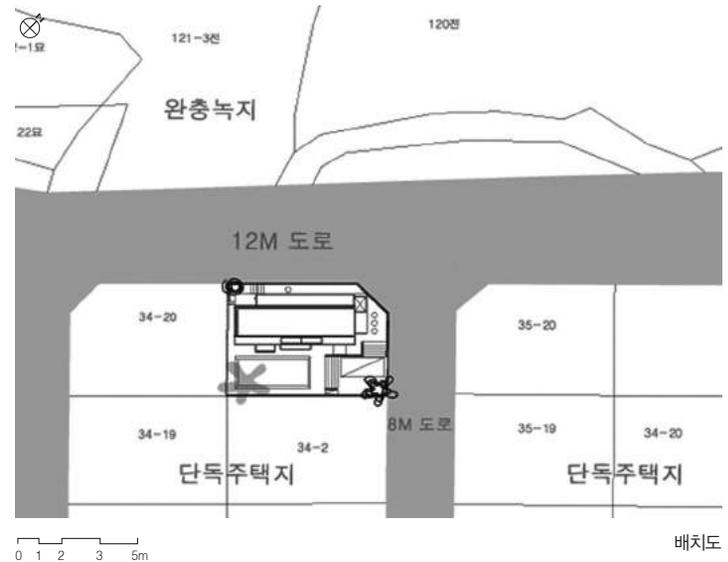
설계자 | 유진상 | 창원대 건축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하였다. 파리 소르본에서 어학 및 근대미술사를 수학과 파리 도시건축연구소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2004년 UIA국제공모 한국 대표작가로 선정된바 있으며 2011년 창원 근대건축유산 보존연구회, 씨네마테크 창원을 공동 설립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창원 자하루, 창원 청강재, 창원 다락하우스, 고양 시 화정 명품거리, 창원시 금강치과 인테리어 등이 있다.

- 설계팀 : 김기태, 이학규
- 전문기술협력
 - 전기통신 : 김태철
 - 창호시공 : 김해운
 - 도장시공 : 박종근
 - 설비시공 : 허영욱
 - 미장시공 : 이시열
 - 목공시공 : 황명용
 - 타일시공 : 김성수
 - 조경시공 : 류찬용

건축주 | 유진상
감리자 | 유진상
시공사 | 등지를 만드는 사람들

대지위치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 27번길 26-2 (사파동 34-1)
 주요용도 | 주택(Residence)
 대지면적(Site Area) | 247.5㎡
 건축면적(Building Area) | 60.97㎡
 연면적(Gross Floor Area) | 140.97㎡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31.98%
 용적률(Floor Area Ratio) | 48.86%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 - 드라이비트, 노출콘크리트, 블록, 창호 thk24 복층유리
 내부마감 - 수성페인트, 자기타일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6. 09~2006. 12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07.01~2007. 05
 사진(Photographer) | 유진상(Yu, Jin-sang)

Client | Yu, jin-sang
Architect | Kim Gi -tae / Yu, Jin-sang
 Project team | Kim, Gi-tae / Lee, Hak-gyu
General Contractor | Nest Makes People
 Location | 26-2, 27 street, Bieum-ro, Sungsan-gu, Changwon, Korea
 Structure | R.C
 Electrical Engineer | Kim Tae chul
 Window System Engineer | Kim Hae woon





전경

설계는 소위, 표준주택(다가구 주택)과 동일한 공사비로 전혀 다른 공간적, 기능적 성과를 성취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다소 소박한 욕심에서 출발했다. 대지는 우리 주변의 도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250㎡의 다가구, 단독주택 혼합지의 북향 땅이다. 두 개의 도로를 접하지만 동시에 전원적 경관을 제공하는 다양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단독주택의 일상적 평범함과 여러 가지 색을 갖는 정신적 풍요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했다. 물론 이 같은 성과는 건축주와 설계자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될 수 있었다. 건축주의 또 다른 요구사항은 기능적인 부분과 이야기가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기능적 부분'은 좁은 대지 내에 독립된 두 세대, 또는 세 세대가 사용 가능한 두 채의 집을 넣는 것과 구성원 변화에 따른 내부공간의 가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는 계획했던 두 채의 집 중 한 채가 지어진 상태이며 준공된 건물 내부에는 여러 개의 가변 장치가 설정되어 건축주의 융통성 있는 공간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는 기능적 공간이 동반하는 각각의 여백에 건축적 장치들을 설정하면서 기능공간이 사유의 공간으로 치환되는 과정이다. 프랑스 현대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행복의 건축」에서 "어떤 공간과 어떤 희망이 일치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집' 이라 부른다"고 했다. 집은 인문학의 총화이다. 그러므로 단순 거주공간을 탈피해 '느끼고' '관찰하고' '호흡하고' '생각' 하는 사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영화 시나리오를 공간 시나리오로 각색하여 공간을 전개해 보았다. 영화적 요소를 좀 더 역동적이고 다양하게 도입하기 위해 대지의 형질을 부분적으로 특화시켜 끌어올렸다. 대지전체를 조닝하여 사유의 연못, 공간리듬 테라스, 주차 및 놀이마당, 후원 등으로 스토리텔링하여 영화적 요소가 적극적 삶의 공간이 되도록 각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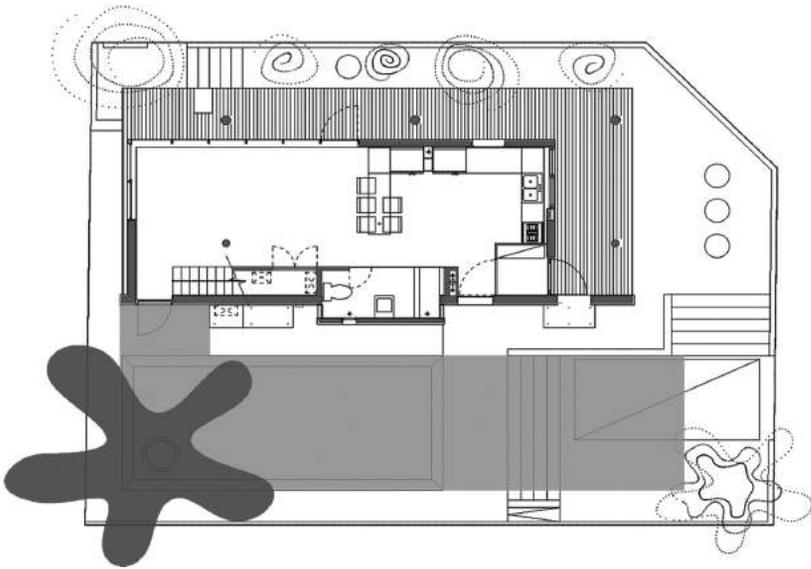
자칫 공간들이 흩어져서 표현적 요소들만 산만하게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 거주공간을 들어올리고 전체를 하나의 구조틀로 묶어 떠 있는 매스와 비어 있는 공간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였다. 기능별로 독자적 볼륨(침실 매스, 거실과 부엌 공간)을 부여하고 그 사이 공간을 하늘과 땅과 산을 향해 최대한 열었다. 차경 사이사이로 사람과 나무를 담아 영화적 공간을 각색해 보았다.

작품명 자하루(自下樓)는 주변 터무니와 맥락을 끌어들이거나 이에 순응하려는 소형개념과 건축주의 철학, '검양'의 의미를 함께 담은 이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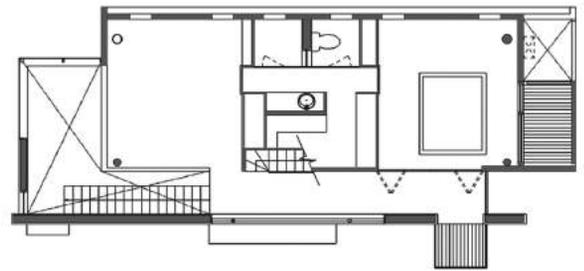




진입로에서 바라본 전경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건물 외부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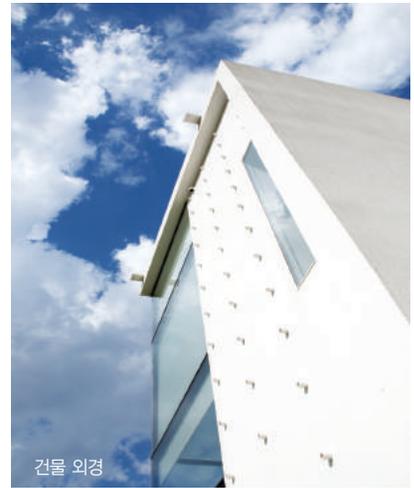
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뒷마루



건물 외부



건물 외경



건물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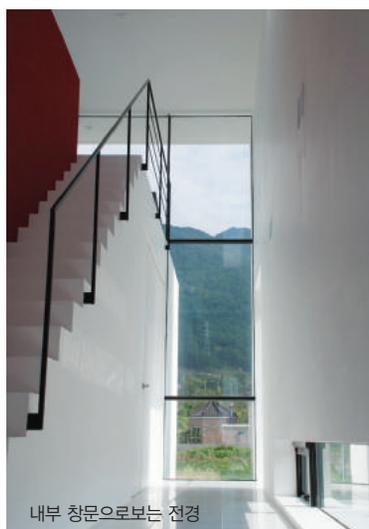
자연생태연못



뒷마루와 동네 정자 쉼터



상부 막이면과 요소들보기



내부 창문으로보는 전경



놀이마당과 거울못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당선작

Hanam-si Disabled Persons Welfare Center

발주자 : 하남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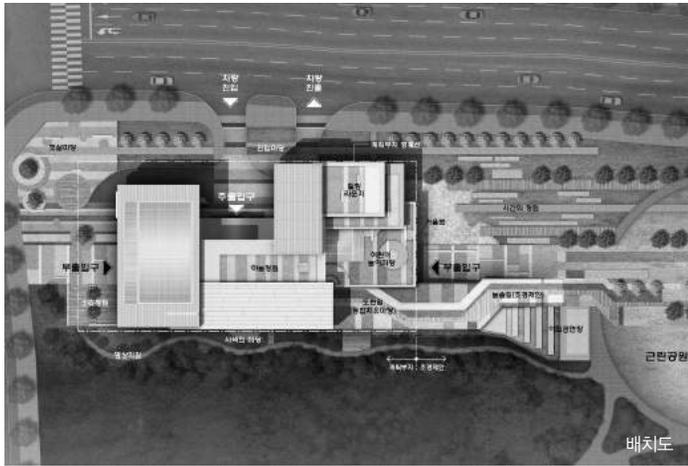
설계자 : 박병욱 · 김수현 KIRA |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
 박훈 KIRA | (주)서한종합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안대호, 서종기, 김상복, 윤주미, 권현수, 이선재(나우동인건축)
 박재찬, 한 훈, 최상복, 하진영(서한건축)

전문기술협력

- 구조 : CS구조엔지니어링 - 전기 : 나라기술단
- 기계 : 삼산설계 - 토목 : CNU - 조경 : 제이티엔지

대지위치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근린5공원 부지 내
주요용도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대지면적 2,100㎡
건축면적 1,680㎡
연 면 적 6,370㎡
건 폐 율 80% (계획부지 기준)
규 모 지하 1층 ~ 지상 4층
주요마감 실외 - 알루미늄쉬트, 테라코다, 고밀도목재 패널
 실내 - 화강석, 대리석, 친환경 수성페인트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의 전문적인 재활서비스와 장애인복지관의 패러다임인 사회통합의 수용, 그리고 도시의 새로운 상징인 미사강변도시와의 연계가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상징성(사회통합), 기능성, 공원화라는 큰 키워드를 수립하였다. 사회통합 개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사회와 교류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기반층은 남측의 공원과 연계한 심리적 치유 축과 북측의 도시적 관계 축을 제안하여 다양한 사회, 자연과 관계 형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또한 최상층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류시설로 제안하였다. 재활시설의 기능적인 방향은 쾌적한 재활 환경을 부여하기 위한 수직(성인과 아동), 수평(장애와 비장애)으로 구분한 조닝계획과 장애인의 쉬운 길찾기를 위한 중정형의 개방된 공간계획을 들 수 있다. 그밖에 짧은 피난 동선계획(아동 15m이내, 성인 25m이내), 무장애공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안하였다. 공원시설로의 장애인복지관은 공원의 긴밀한 접근성 및 시각적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원 및 인접시설과 교류하며, 자연 속의 숨 쉬는 도시 휴게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결국, 현 시대의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많은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교류하는 장으로서 'PARK UNION(공원을 통해 하나되는 시설)'을 제안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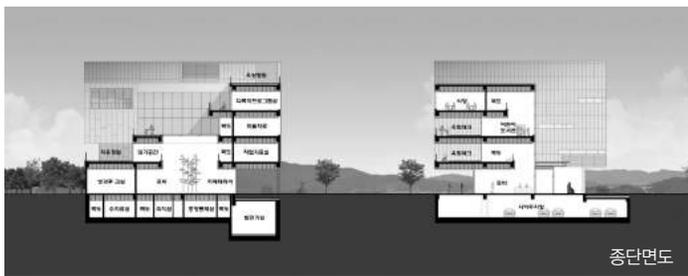
배치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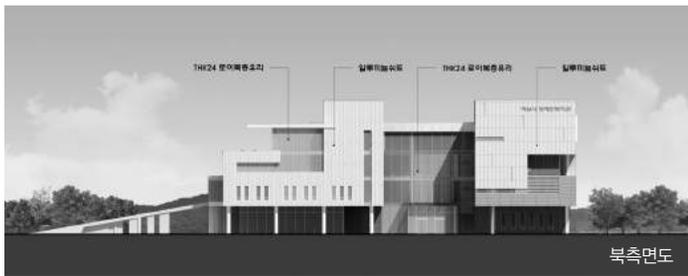
4층 평면도



중단면도



3층 평면도



북측면도



2층 평면도



남측면도



1층 평면도



서단면도



동단면도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우수작

Hanam-si Disabled Persons Welfare Center

발주자 : 하남시청

설계자 : 고희석 KRA | ㈜그롭신도시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배성환, 김기태, 정철호, 민경준, 김상진,
 함승표, 정희성, 신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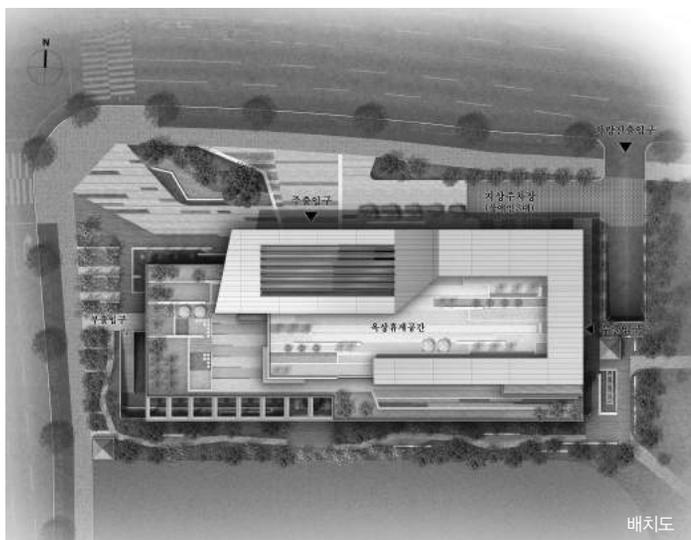
전문기술협력

- 구조 : 형상엔지니어링
- 전기/통신 : 대일이앤씨기술㈜
- 기계/소방 : ㈜목원엔지니어링
- 토목 : ㈜다솔컨설턴트 - 조경 : ㈜환경디자인 아르떼

대지위치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근린5공원 부지 내
주요용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대지면적 189,944㎡
건축면적 1,848,20㎡
연 면 적 6,171.07㎡
건 폐 율 0.97%
용 적 율 2.16%
규 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규 모 지하 1층 ~ 지상 4층
주요마감 THK3 알루미늄패널,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화강석 버너구이, 로이복층유리

장애인을 배려한 편리한 복지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복지관, 친환경 건축물을 지향하는 녹색복지관, 주변 환경에 순응하고 도시와 호흡하는 복지관 건립이라는 네가지 디자인 전략을 바탕으로 독창적이며 특색 있고 예술성, 조형성 및 상징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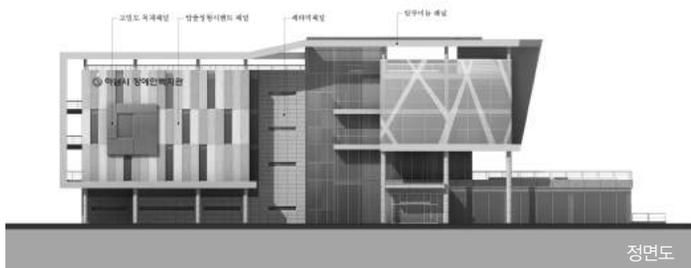
대지에 인접해 있는 북서측 사거리에서의 조망과 남측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려, 동측방향으로 인접해서 별도의 시설물이 계획될 것이라는 발주처의 제한으로 공원과의 자유로운 연계가 불가한 대지현황에 따라 상징적인 장방형 매스를 횡방향으로 배치하고 남측 사회복지시설을 고려하여 중층부의 매스를 북측으로 set-back 시켜 간섭을 최소화했다. 또한 사거리에 인접해 오픈공간을 두고 저층부는 필로티로 계획하여 보행접근이 용이하도록 배려했으며, 사거리의 접근성과 정면성을 우선하여 고려했다. 차량출입은 사거리의 혼잡을 고려하여 최대한 동측으로 이격하여 안전한 보차분리를 도모했으며, 지상주차공간으로 drop-off zone이 형성되도록 계획했다. 북측에 코어를 집중 배치하여 도로변의 소음 등 주변환경에 대응하고 주요 거실공간을 남향 배치하여 실을 더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으로 계획했다. 지역주민의 이용성을 고려하여 사거리에 인접한 지하에는 식당, 1층에는 카페테리아와 체력단련실 등을 계획했고, 관리가 필요한 2층에는 의료재활시설, 3층에는 사회재활교육시설을, 4층에는 직업재활교육시설로 구분하였으며, 지붕에는 옥상정원으로 계획하여 자연을 통한 치유가 가능하도록 층별 계획을 수립했다.ダイナミック한 조형디자인으로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상징성을 겸비한 친환경 외피디자인을 수립했으며, 돌출된 두 개의 매스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는 상생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



배치도



배면 조감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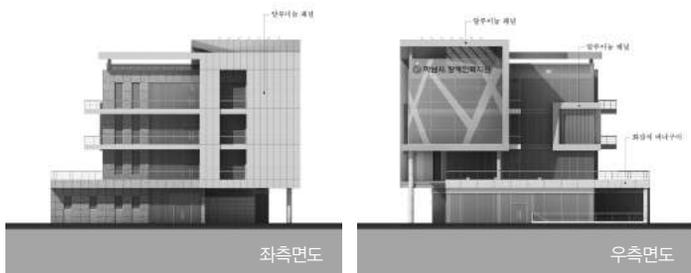
2층 평면도



배면도



1층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중단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여신처럼
받들고 있어요.”*

프랑스의 영웅이자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러브레터

My husband does not love me.
He adores me like Goddess.

재산도 배후도 없는 코르시카 섬 출신의 왜소한 체구의 젊은이에서 프랑스의 황제가 되고 유럽의 거의 모든 강국들을 지배했으며, 모스크바에서 카이로까지 위력을 행사했고, 자기 형제들을 스페인과 나폴리, 네덜란드, 베스트팔렌의 왕좌에 앉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3~1821).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한 후 엘바섬에 유배되었다가 탈출해 다시 황제가 되었으나, 영국과 치른 워털루 전쟁에서 패한 뒤 세인트헬레나섬에 유배되어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극적인 삶을 살았던 나폴레옹은 사랑도 드라마 같았습니다. 나폴레옹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인은 1804년 노트르담 성당에서 거행된 대관식에서 직접 왕관을 씌워 준 조세핀입니다.

조세핀은 나폴레옹 보다 6살 많고 아이가 둘 있는 이혼녀였습니다.(조세핀의 전 남편은 이혼 몇 년 뒤 혁명에 해악을 끼친 인물로 지목되어 1794년 처형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경박했으며 향락적인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하루하루 무위도식하며 사치를 즐겼고 슬픔 따위는 모르는 여자였지만, 온순하고 선량하고 베풀기를 좋아해 사람들을 매혹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1795년 12월 조세핀을 처음 만난 26살 청년장교 나폴레옹은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다음해 3월에 결혼합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부양해야 할 형제자매가 많았던 나폴레옹은 조세핀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여자든 돈만 많다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조세핀의 경우에는 재력과 영향력이 있는 여러 명의 남자와 즐기면서 그들의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그녀의 경제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의 조세핀이 빛과 남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채 말입니다. 조세핀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당장 돈은 없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다가 주로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파티를 즐기는 생활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나폴레옹을 두 번째 남편으로 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던 조세핀에 대한 나폴레옹의 사랑은 수많은 편지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평생 75,000여 통에 달하는 편지를 썼는데, 이중 대다수는 아내 조세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혼 후에도 조세핀에게 보내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침 7시입니다. 나는 당신으로 인해 충만한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신의 모습과 어제의 그 황홀한 기억은 나의 감정을 조금도 쉬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깊은 느낌에 몰두해 있으며, 나를 불태우는 당신의 입술로부터, 당신의 심장에서부터 나오는 불꽃을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

에게 평화가 주어질까요? 정오에 집에서 나오십시오. 세 시간 후에 나는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달콤한 사랑이여, 수천 번의 키스를 보내오. 하지만 내게는 키스를 보내지 마오. 당신의 키스는 나의 피를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1795년 12월)

결혼 직후부터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와의 전쟁을 시작으로 고단한 출정길에 오릅니다. 나폴레옹은 군복 상의 주머니 속에 조세핀의 초상화를 품고 다니며 낮에도 여러 번 꺼내보고 입 맞추고 심지어 초상화에게 말을 하며 아내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는 날마다 조세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세핀이 답



나폴레옹 대관식, 자크 루이 다비드 그림

장을 보냈다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고 전쟁터의 남편에게 가는 길을 최대한 미루며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아폴리트 샤를르라는 9살 연하의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나폴레옹)는 자신의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다. 그녀는 한 번도 그와 사랑에 빠진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조세핀의 사업파트너 중의 하나였던 아멜랭은 이 당시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충분치 않은 아내의 사랑에 대한 나폴레옹의 불편한 심기는 편지에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밀라노에 도착해서 당신의 아파트로 급히 들어갔소. 나는 모든 걸 뒤로 하고 당신을 보기 위해 왔소. 당신을 내 팔에 안기 위해... 그런데 당신은 거기에 없었소. 당신은 축제가 있는 시내로 달려갔던 거요. 내가 도착했는데 당신은 나를 떠났소. 당신이 사랑하는 나폴레옹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거요.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변덕 그 자체요.(1796년 11월 27일)

조세핀으로 인해 나폴레옹은 희망과 실망, 열정과 분노 사이를 오갔습니다. 파국 직전까지 가는 듯하다가도 나폴레옹의 뜨거움과 조세핀의 능숙한 대응으로 이어지던 이들의 결혼생활은 1804년 두 사람이 황제와 황후가 된 뒤 평온을 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1809년 나폴레옹은 이웃 나라와 결혼을 통해 동맹관계를 돈독하게 하기를 원해 이혼도 하기 전에 러시아의 공주에게 청혼했다 거절 당하고, 이듬해에 오스트리아의 황녀 마리 루이제와 결혼합니다. 외교적인 고려만이 이혼의 이유는 아니겠지요. 나폴레옹은 이미 1807년 러시아로 진격하는 도중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난 마리아 발레프스카라는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져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세핀에 대한 어쩌면 일방적이었던 사랑에 지쳐서 그랬는지 그토록 원하는 아이가 둘 사이에 없어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나폴레옹의 마음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조세핀은 비로소 나폴레옹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큐피트의 장난처럼 느껴집니다.

이혼 후에도 조세핀은 황후라는 호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정부로부터 해마다 200만 프랑의 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낙천적인 성격대로 새로운 애인을 사귀고 사람들에게 선심을 베풀고 파티를 하며 살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이혼 후에도 조세핀에게 편지를 보냈고 빔을 갚아주기도 했고 비밀리에 방문해서 조세핀을 만났습니다. 이혼 5년 뒤인 1814년 봄, 나폴레옹은 프랑스로 밀려들어온 연합군에 대패해 엘바섬으로 유배됩니다. 그가 유배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5월 29일, 조세핀은 갑작스러운 편도선염에 호흡기가 부어올라 손쓸 새도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바섬의 나폴레옹은 이를 동안 방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웅이기 전에 한 남자였고, 황제이기 전에 한 여자를 간절히 사랑하는 인간이었던 나폴레옹. 그도 조세핀이 죽은 7년 뒤 병들고 쇠약해져 숨을 거둡니다. 한 때 유럽을 지배했던 황제도 그 황제의 마음을 지배했던 황후도 이제는 200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의 사랑이야기는 엇갈리는 사랑에 마음을 앓고 있는 연인들에게 위로처럼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내 사랑이 끝난 뒤에 상대의 사랑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비탄에 빠진 청춘들에게 황제 나폴레옹은 이런 충고를 하지 않을까요? ㉮



조세핀 황후. 앙투안 장 그로 그림



아르콜레에서의 보나파르트 장군. 앙투안 장 그로 그림

* 1797년 조세핀이 친구 테레지아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폴레옹에 대해 설명한 부분.

** 두 사람의 사랑이야기는 여름의 마지막 장미(발트라웃 레빈 지음/주행숙 옮김, 아일랜드)와 나폴레옹 평전(조르주 보르도노브 지음/나은주 옮김, 열대림)을 참고했습니다.

| 글.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건물외벽 간판비용 회수를 위한 건물유치권 행사 가능성

Possibility of Building Lien Exert
for Expense Collection of Signage
which on Building Elevation

사안의 개요

가. A저축은행은 2008. 2.경 S건설회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S건설회사가 시공한 호텔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S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호텔 간판설치를 마친 김모씨가 공사대금 4,800여만원을 원인으로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자 A저축은행은 유치권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A저축은행은 소송에서 “김모씨가 호텔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제1심·제2심은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고, 김모씨의 공사대금 채권은 호텔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의 요지

가.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김모씨)가 S건설회사로부터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하수급하여 완료함으로써 4,800여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S건설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건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판 설치공사 대금 채권을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 피고가 설치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을 심리하여 그 간판이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일부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된 물건인지 등을 명확히 한 다음 피고의 채권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의 간판 설치공사에 따른 대금 채권이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피담보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판례 평석

가.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유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길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피담보채권과 물건 간의 관계를 '견련성'이라고 한다. 실무적으로 유치권이 문제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공사 관련 채권이므로 유치권의 견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공사 관련 채권에서 유치권 성부에 결정적이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건물의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이 건물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물건으로 남아 있으면서 건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다면 간판 설치공사 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위 판결의 제1심·제2심에서는 피고의 채권이 당연히 호텔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건물의 옥탑, 외벽 등에 설치된 간판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경우 해당 간판의 ① 건물 자체와의 독립성, ② 건물로부터의 분리 가능성에 따라 견련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설치된 간판의 종류와 형태, 간판 설치공사의 내용 등에 관한 사실심리를 다시 하여 유치권 성부를 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

글. 유현준_Yoo, Hyun-joon

•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도시와 인간

Urban and Human



(주)유현준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자 미국 건축사(AIA)이다. 하버드, MIT, 연세대학교에서 건축공부를 하였고,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Richard Meier 뉴욕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MIT 교환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학과장을 맡고 있다. '김수근 건축상 프리뷰상'과 '건축가협회 베스트 7상', '젊은건축가상', '한국현대건축 아시아전' 초청작가를 수상 및 5번의 국제현상설계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저서로는 「현대건축의 흐름」, 「모더니즘 : 동서양문화의 하이브리드」, 「529 12」가 있다.

한국형 도시

얼마 전에 필자는 「세계 경제의 미래」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의 주제는 향후 30년 정도의 세계경제를 인구구조의 분석에 의해서 예측한 책이다. 기존의 경제학 책들과는 달리 연령대별 인구구조에 따라서 세계경제가 부침을 거듭한다는 내용으로 단순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들렸다. 그 책의 저자에 따르면 베이비 붐 세대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시절은 경제의 가을에 해당한다. 이때는 집도 잘 팔리고 소비도 많이 된다. 하지만 이들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베이비 붐 세대가 소비를 줄여서 경제의 겨울, 즉 디플레이션이 된다는 것이다.

건축시장의 분위기에 민감한 건축인인 필자가 읽었을 때 아주 공감이가는 내용이었다. 저자는 인구구조의 도시화는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도시화는 80%가 되면 멈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이미 그 지점에 도달해 있다. 다시 말해서 시골에 사는 인구가 서울로 이사를 올 인구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 말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집값을 오르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2013년 우리는 도시화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다. 정량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정성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도시가 다른 선진국의 도시처럼 성숙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도시화를 성숙시키는 것이 우리세대가 향후 수십 년간 이룩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도시화의 성숙은 무차별적으로 유럽의 도시를 모방하는 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한민국 고유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의 조건

2,000년 전에 이태리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는 로마라는 도시를 만들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의 요소는 도로망의 구축과 상수도 시설의 완비였다. 로마 정부는 유럽 전역으로 사통팔달 뚫려 있는 도로를 구축해 물류망을 완성했고, 동시에 로마 시민을 위해서 먼 시골에서부터 수로를 건설해 물을 도시로 끌어들이었다. 이것이 가능했기에 우리가 아는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고대 로마가 있을 수 있었다. 이들은 당시로서는 최고 밀도의 메트로폴리스를 구축할 수 있었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의 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수도꼭지를 틀면 너무나 당연하게 수도물이 나오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로마 트레비 분수/출처_ Wikipedia

조상들은 냇가에 살든지 아니면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어야 했다. 물의 공급이 냇물과 우물같은 천연의 공급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고밀도의 도시를 만들 수가 없었다. 물의 공급은 곧 도시화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수도 시스템이 없기도 했지만 당시의 주된 산업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선조들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나 ‘사농공상(士農工商)’같은 말이 달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농업은 모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었다.

당시의 통계는 없지만 조선시대까지 국가 총생산량의 대부분을 농업이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생산의 기반이 이처럼 땅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구는 시골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부가가치 생산을 위해서 한 사람당 일정규모 이상의 땅이 필요했고, 당시의 교통수단은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는 집과 생산기반인 땅은 가까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지면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의 골자는 하나님은 인간이 땅에 흩어져서 살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큰 탑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여러 개를 만드셔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농업은 사람이 흩어져야 하고 상업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 바벨탑 이야기를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흩어져 살아야 하는 농경 중심의 사회와 모여서 살려는 상업 중심의 사회문화가 충돌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농경보다도 유목사회는 더 넓은 땅을 필요로 한다. 넓게 펼쳐진 몽고초원을 상상해보라! 유목사회에 기반을 둔 유대민족의 성경속 바벨탑이야기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그런 결말이 유대인들에게는 해피엔딩이었을 것이다.

다시 로마도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2,000년 전에는 로마를 비롯한 몇몇 고대의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농경 중심의 경제구조였기 때문에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경제구조뿐 아니라 로마처럼 고비용을 들여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은 사람이 사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로마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상수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도시는 일정규모 이상 성장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태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 중세시대까지도 농업중심의 산업이었고 모여 산다고 해보아야 영주를 중심으로 작은 성에서 사는 정도였다. 성 규모의 도시화 이유도 전쟁을 피하기 위한 보안의 목적이 지 경제시스템 때문이 아니었다. 중세 때는 땅을 가진 소작농이 자신의 땅을 영주에게 주고 영주는 군인과 기사를 휘하에 두고 소작농의 안전을 지켜주는 상호보완적인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처럼 고대부터 서서히 발전해온 도시화의 흐름은 결정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 이유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산업혁명 때문이다. 산업혁명은 인류의 생산기반을 땅에서 기계로 바꾸었다. 이 말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때 땅이 필요 없고 기계를 놓을 만한 좁은 건물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다. 이때부터는 과거 농사를 지을 때와는 반대로 높은 밀도로 사람들이 모여 살수록 주인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것이다.



농사짓는 사람/출처_ 인빌뉴스

농사는 햇볕을 받아야 가능한 산업이다. 즉 땅에 평면적으로 깔려서 햇볕과 비를 맞아야 자연으로부터 얻은 자원인 태양에너지와 물과 땅속의 영양분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산업이다. 반면 2차산업은 햇볕과 비가 필요없다. 당연히 고층으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쫓겨 넣으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과 상품이 상호 유통되기 쉽게 모여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다. 이처럼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더 모여들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근대도시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이때 어떠한 현상이 생겨났는지 그 때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사람들의 밀도가 너무 높아졌다. 물은 더 필요했고, 그 사람들이 배설하는 하수는 더 많아졌다. 기존의 기술로는 그러한 고밀도의 상황에서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고밀도로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모였을 때 환경의 질은 떨어지고 전염병은 발생하게 마련이다.

여기서 한번 산업과 연결해서 질병의 역사를 살펴보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가축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발생한 것이다. 가축에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되었을 때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다. 인류는 이처럼 농경사회를 시작하면서 영양공급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늘어서 급격하게 인구가 급증을 했는데 동시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다.

유럽이 한 때 흑사병으로 전체 유럽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사건도 이러한 인구증감 싸이클의 하나이다. 이렇듯 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만들어지고, 다시 질병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류는 면역성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면역성의 강화는 곧 그 종족 혹은 그 문화의 경쟁력이 되었다.

다이아몬드 교수의 책 「충, 균, 쇠」는 이러한 과정을 잘 설명해 주면서 농경사회를 먼저 받아들인 종족이 어떻게 농경사회에 늦게 진입한 아메리카 대륙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이겼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 중 충으로 죽은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 그들 대부분은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퍼트린 전염병으로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과 혼혈을 통해서 면역성을 물려받은 사람들 뿐인 것이다.

새로운 발명품 : 하수도, 도심공원

다시 도시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인간이 어느 밀도 이상 모여서 살았을 때 발생하는 고밀도 도시에 해결책을 제시한 도시가 파리이다. 파리는 처음으로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었다. 최근 영화

로 개봉해서 많은 사람이 본 소설 '레미제라블'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마지막에 주인공이 탈출하는 그 하수구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설비라고 할 수 있다. 파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시의 패권을 쥐고 가장 유명한 국제도시로서의 명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파리는 거미줄처럼 구축되어 있는 지하철로도 유명하다. 이 같은 입체적인 인프라구조가 파리를 다른 도시보다 앞서나가게 했다. 하지만 파리를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대부분의 건축물은 8층을 넘지 않는다. 그 정도가 당시로서는 얻을 수 있는 가장 고밀도의 도시인 것이다.

비슷한 시대에 런던은 도시를 위해서 어떤 발명을 했는가? 런던은 '하이드파크'라는 도심형 공원을 만들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연속에서 살던 인간이 인공의 환경인 도시에 와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명품이 도시속에서 자연을 도입한 '센트럴 파크'이다. 이 훌륭한 발명은 이후 보스턴과 뉴욕을 비롯한 모든 도시의 필수품처럼 되었다. 이외에도 최근 이후에 도시를 산책할 수 있게 가로등도 발명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더 좋은 공급을 해주는 도시는 세계적 도시로 발돋움 하였다.

엘리베이터와 도시

파리와 런던 이후 '새로운 8층'이라는 도시밀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밀도의 도시가 발생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뉴욕이다. 우리가 지금 보는 고층건물이 들어선 뉴욕의 도시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답은 바로 엘리베이터이다. '오티스'라는 사람은 파리 국제박람회에서 안전장치가 달린 엘리베이터를 선보였다. 본인이 직접 탑승한 후 줄을 끊어서 떨어지다가 중간에 안전브레이크 장치로서는 시연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홍보했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닐 것 같은 기계 장치를 통해서 기존의 8층 정도의 건물이 80층까지도 지을 수 있는 건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뉴욕 전경

1920년대에 지어진 102층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1970년대 초까지도 5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왕좌에 있었다. 최근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듯하다. 아마도 50년 동안의 최고층 빌딩이라는 수식어는 앞으로도 깨어질 것 같지가 않다. 이렇듯 뉴욕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었다.

뉴욕 맨하튼의 남쪽으로는 구도심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미국역사 초기부터 유럽에서 건너온 배들이 정박하는 곳이었다. 따라서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물류센터가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가장 고밀도의 도시는 현대 산업사회에 가장 효율적인 도시가 되기에 최적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더불어서 현대에 와서는 벨에 의해서 발명된 전화가 가장 많이 보급이 되면서 텔레커뮤니케이션도 가장 잘 보급된 도시가 되어서 미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월스트리트의 증권시장도 구축되어 명실상부한 세계도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된 것이다.

미래의 대표도시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큰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의 발전 이야기이다. 뉴욕 이후에 많은 도시들이 세계 최대도시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LA도 영화 산업을 기반으로 중심을 옮기려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뉴욕의 신년 애플드랍을 더 많이 보고 있다. 이를 보아도 아직은 뉴욕이 전 세계의 중심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동경은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로 자신의 브랜드를 내세웠고 동경 증권시장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듯 했다.

한때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던 일본경제는 1990년대 거품 붕괴와 함께 인구노령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라앉는 추세이다. 두바이는 중동의 오일 머니를 앞세워서 현존 최고층 빌딩을 만들고 새로운 세계도시 패권을 가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초고층 타워를 세워서 세계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은 20세기에나 통하던 전략이다.

중동은 자신의 문화와 정치가 더 발전하기 전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자국민 여자가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다니기 어려운 현실, 길거리에서 키스를 하는 것과 같은 자유로운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도시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는가? 현재는 상하이 그 배후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지고 차세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10년 내에 찾아올 중국경제 거품을 견뎌내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나라도 올림픽 이후에 노동운동이 본격화되었고, 이후 노사문제와 임금상승, 생산성 하락, 정치민주화 운동 등이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과연 중국이 외동아들·딸로 키워진 지금의 신세대가 향후에도 일당체제를 수용할 것인가? 그럴 리 없다. 필자는 1995년에 북경 맥도날드에 갔다가 섬뜩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북경의 맥도날드에 사람들이 공항에 체크인을 위해서 줄 서있듯이 햄버거를 먹으려고 줄을 서있었다. 중국인들은 남들이 하는 자본주의의 맛을 어느 누구보다도 원하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나라에 필적할 만한 초고속 성장을 했던 것인데, 그런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일본과 중국이 길을 못 찾을 때 서울이 차세대 세계도시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떨까? 서울은 한때 IT설비의 인프라가 가장 앞서나간 도시로서 차세대 국제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지금은 세계6위로 떨어졌지만 한때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가장 발달한 도시였다. 도시 어디를 가나 공짜로 공급되는 와이파이가 깔려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도시 곳곳에 분수를 통해서 물을 공짜로 가져갈수 있었던 로마시민이 누리는 혜택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배우나가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보면 2,100년대의 도시로 네오서울이 나온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미래의 중심도시가 서울이 배경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많은 정치가들은 서울의 산업과 인구를 분산해서 전체 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루기를 원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좋은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서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기존의 서울을 해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국토 전체를 서울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제는 국가보다는 도시 중심으로 브랜드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니 말이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딴 대한민국보다는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서울의 강남지역이 알려진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난 수백년간 국가간의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 때문에 국가 브랜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질감과 거부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도시 브랜드는 국경을 초월한 개념이다. 미국을 싫어하는 중동 사람들도 뉴욕은 좋아하고 맥도날드 햄버거는 먹는다. 마찬가지로 21세기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다국적 기업인 것처럼, 다국적 성향을 가지는 도시 중심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다음 세대의 도시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 진화의 단계에서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도시를 만들지 궁금하다. 그 도시는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가진 생산적 도시여야 할 것이다. ■

연구.

글. 김원식

단우건축도시연구소 소장
한양대학교 지속가능건축연구소 연구교수

생태 · 환경기술과 문화의 접점지를 찾아서

독일의 바이에른 답사

An Expedition to Bayern, Germany, A Land of Ecology
where meet the technology and culture together



한양대학교 건축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벨기에의 루뱅 카톨릭대학교(L'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에서 예술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과 건축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단우도시연구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지속가능건축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로 건축 및 예술분야의 이론, 비평, 역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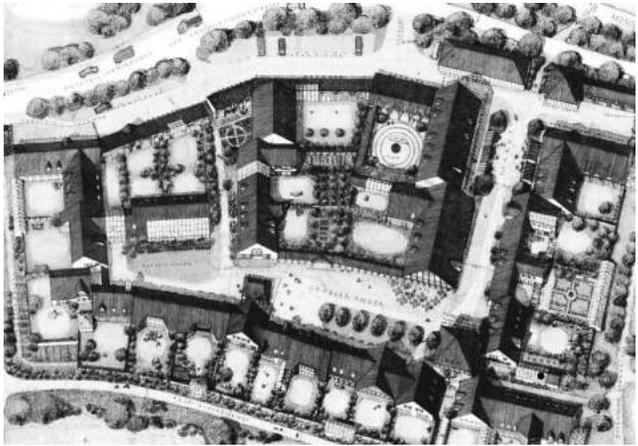


밤베르크의 1617년 지도. 밤베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산업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덕에 전쟁의 파괴로부터 회를 피할 수 있었다.

삶으로부터의 습득과 그 결과물인 지혜는 지식의 습득과 축적에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며 그것을 능가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다. 단순한 답사만으로, 그리고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만으로 이번 답사지의 모든 것을 충분하고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인지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전제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러한 전제는 이 글에서 개인적 입장과 시각으로 중시하며 보았던 것이나 장소, 시스템 등을 한정적으로 선정하여 기술함에 그친다 하여도 적절하고 너그러운 변명의 도피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독일 답사는 하나의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녹색담론 구축'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자연환경과 그것을 영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적절한 삶에 적응과 결과, 그리고 우리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인류적 차원, 지구적 차원에서의 관찰과 분석, 필요한 경우 바람직한 대안과 제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는 환경이나 녹색관련 분야의 기술이나 정책, 사상의 실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문화·사상적 측면에서의 연관고리 역시 중요한 단초가 되어 본인을 비롯한 연구진들이 맡고 있는 인문학적 접근 측면에서의 연구방향과 일치되고 있다. 연구진은 동양 및 서양의 역사학, 과학사, 철학,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풍수가 등으로 구성되어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당연히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지니고 있다. 생태, 녹색산업, 그리고 하이테크 등을 대표적 사상가로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수위를 견고하고 있는 독일의 바이에른주를 대상으로 하는 본 답사는 최명철, 김영철, 김원식, 최순영 등 주로 서양과 관련된 사람들로 답사팀을 구성하였다.

많은 준비와 분석, 그리고 고도의 지적 분별력과 역량뿐만 아니라 현지와의 긴밀한 연락과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위에 말하였듯 환경과 생태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자연을 비롯한 일체의 지구환경, 그리고 시간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의 삶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이해한 후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겨울에, 상대적으로 짧게만 느껴지는 일정과 방문지에서의 시간적, 심적 여유의 결핍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독일 땅은 오랜만의 한파로 얼어붙었지만, 흑림시대(黑林地



교밖베르크 교외의 생태단지, 세르본호프. 150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은 예전에 농장이었다. 20세기 말부터 이곳을 리노베이션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르본호프를 안내해 준 클라우스 에밍어 씨. 밤베르크의 젓줄인 레그니츠 Regnitz 강부터 이곳 단지까지 버스로 3분 내에 이를 수 있다.

帶, Schwarzwald)를 비롯한 자연환경과 각 도시와 사회의 커뮤니티에서 실시되고 있는 생태, 그린(Green) 운동, 자연보호, 에너지 절약, 솔라 에너지(Solar energy)의 채용시스템, 지속가능성의 추구 등 사회적 인프라와 기술적 인프라의 측면을 나름대로 주어진 기후환경 조건 내에서 실상을 목격하고 분석하기에 그리 어렵게 느껴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답사는 이동 경로, 즉 여정에 따라 계획을 세웠으므로 순차적 답사의 내용을 따르는, 철저한 연속적 시퀀스를 이루며 물 흐르듯 만들어진 시나리오는 아니었으나 전반적인 분위기의 파악과 확인, 그리고 내적 반성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였다. 행정(行程)은 독일의 남부 지방인 바이에른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생태 및 친환경 도시로 잘 알려진 프라이부르크(Freiburg), 그리고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소규모지만 거주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의 모범적 예가 존재하는 밤베르크(Bamberg) 등을 중심으로 거리와 소요시간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방문지가 결정되었다.

밤베르크

우리는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숙박지 밤베르크로 향하였다. 오랜 비행 후 몰려오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값진 문화유산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에 도착일 야간에 각자, 혹은 둘 셋씩 밤베르크의 구릉들을 방문하였다.

주교좌도시(主教座都市)로 출발한 밤베르크의 구도(舊都)는 로마와 마찬가지로 7개의 구릉에 주요한 대성당과 수도원 등이 배치되었고, 강을 중심으로 한 저지대에는 중세의 산업과 상업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활발한 정치, 문화, 경제, 종교의 중심지로 작용하던 밤베르크는 전형적인 중세 게르만어권 도시배치를 보여주며, 피혁, 정육과 같은 산업구역에서의 환경오염과 그에 대한 배수시설과 순환시설, 교량시설, 주거 및 산업 구역의 분리배치 등은 지금도 자세히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었다. 밤베르크의 첫 날처럼 비록 저녁 늦게 도착하여 잠시 눈을 던질 수밖에 없던 뷔르츠부르크(Würzburg), 그리고 여정 중 들르게 된 뉘른베르크(Nürnberg)를 위시한 모든 중세도시에서도 밤베르크의 구도에서

발견할 수 있던 것과 유사한 도시 조직과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에 면한 메세(Messe), 그 주위로 배치되는 정육전, 그리고 도시 내 개천 등 주위로 배치되는 피혁, 대장간 등 공해산업의 자취를 찾아보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 추적의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페스트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과 환경의 파괴로 인한 역사적 대응과 극복의 흔적의 발견은 어렵지 않다.

밤베르크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산업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덕에 전쟁의 파괴로부터 화를 피할 수 있어서 중세도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어서 역사적인 유물과 사건들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곳이다. 밤베르크에서도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대 관심을 끌었던 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26년 전에 설립된 세르본호프(Cherbonhof)이지만 도심엔 중세 시대 도시의 모양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까닭에 앞으로 이어질 중세 이후 과거 도시에서의 생태와,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의 관찰 역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최초의 장소는 2012년을 맞아 생태단지(Ökosiedlung)의 설립 25주년을 맞은 밤베르크 교외의 세르본호프(Cherbonhof)이다. 이곳을 맡아 가이드를 해 준 현지 책임자 클라우스 에밍어(Klaus Eminger) 씨의 상세한 설명과 안내로 각 건물과 그 주변, 그리고 중심적인 사상 등에 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150년의 역사를 지닌 세르본호프는 밤베르크의 북서쪽에 위치한, 이전에 농장이었던 가우슈타트(Gaustadt)에 위치한 생태마을로 세르본호프에 등록된 건물들은 여러 개의 주거건물 등으로 사용가능하도록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완전한 수리를 거쳐 재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단지로부터 밤베르크의 젓줄인 레그니츠(Regnitz) 강까지 공공교통시설인 버스로 3분 내에 이를 수 있으며 도심까지 직통으로 연결되어 전체 도시 규모로 볼 때 휴먼 스케일과 생태-기능적 측면에서의 활동을 전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건물들은 생태와 환경을 중시하여 자연스레 그린 빌딩(Green buildings)으로 불리는데, 가장 구체적이고 시대적으로 가까운 이 단지화 건축개념의 기원은 1979년의 오일 쇼크 때로 인정되고 있다. 오일 쇼크 때의 경험은 환경,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자각을



세르본호프 건물들은 생태와 환경을 중시하여 자연스레 그린 빌딩으로 불린다. 오일 쇼크는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초 독일의 남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독일 전 연방으로 번져 생태적 커뮤니티 조성에 불을 지폈다.



세르본호프 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단지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다.



신전일 뿐만 아니라 장터이자 커뮤니케이션 센터. 그리고 지식의 이전을 위한 만남의 장소다. 대규모 유리창과 격벽이 전혀 없는 완전한 개방 공간으로 에너지 보존과 절약의 관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아우크스부르크의 공동주거단지 푸거라이. 1521년 부호 아콕 푸거가 건설한 세계 최초의 공동주거단지로 현재도 1407가구, 15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1980년대 초 독일의 남부 지역에서 시작하여 독일 전 연방으로 번지게 된 생태적 커뮤니티 조성에 불을 지폈다. 예를 들어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서는 이러한 커뮤니티가 다수 건설되었는데, 그 움직임의 일환으로 조성된 밤베르크의 세르본호프는 조정단지(Landschaftssiedlung)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을 조성하고 움직임을 이끌어 온 건축사 게르하르트 테오도르 헨츨러(Gerhard Theodor Henzler)는 1979년에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도시 에콜로지 선언(Stadtökologischen Manifest)을 발표하였다. 선언의 주요 항목은 근린, 환경보호, 토지의 사용, 정원, 건강, 자연 및 문화유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답사단은 생태나 환경보호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와 유적의 보존, 사회적인 의미와 개념의 발전 등에도 관심을 충분히 쏟아야 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음 방문지로 향하며 방문한 밤베르크 교외의 폐허로 남았던 이전의 공장단지는 새롭게 리노베이션하여 대학교 건물로 활용하고 있었다.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이 단지 곁에는 비오톱(Biotope) 개념을 적용한 소공원이 있어서 역시 강한 흥미를 끌고 있었다. 다만, 비록 겨울은 겨울대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임에는 분명하지만, 뒤에 이야기하게 될 킬레스베르크(Killesberg) 공원에서처럼 봄부터 가을까지 관측이 가능한 활발한 식생(植生)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은 떨칠 수 없었다.

뮌헨

이후 방문한 뮌헨은 우리의 방문 계획과 목적에서 크게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다만 독일 전국에 걸쳐 모범적인 생태와 환경의 강조,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의 실천 등을 일상생활에서 풍성히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다. 바이에른 주의 최대 도시이자 주도인 뮌헨은 고산지대 독일어 방언 중 '수도승들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닌 무니헨(Munichen)에서 유래한다고 하듯 최초 도시의 기원은 베네딕투스회를 기원으로 한다. 수도사들은 1175년 도시의 건설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이자르 강에 다리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였다. 처녀지를 개척하고 수도원을 건설하거나 도시를 건설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수도사들의 예를 이곳에서도 찾을



거주 단위마다 각자 담당하는 작은 화단이나 텃밭 등이 배당되었고, 주호의 적절한 격리와 각각의 독특한 디자인 등이 보장되어 다양한 미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수 있는데, 이들의 활동의 평가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높이 받아왔던 과거와는 달리 환경과 생태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이 자주 심도있게 다루어지곤 한다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뮌헨은 대도시가 가지는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왕성한 활동으로 인하여 정적인 관념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뮌헨 시 차원에서의 행정과 체계, 그리고 시청사에서 발견한 안내서 등은 우리의 관심분야에서 뮌헨이 실행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를 부여받은 생태·환경보호·지속가능성 등에 관한 정책은 물론 일반 시민 사이에 골고루 퍼져있는 인식과 생활 가운데에서 발견되는 특유의 독일식 완벽주의의 생태와 환경에 관한 태도와 인식, 실천상황을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뮌헨 교외에 위치한 비엠 베발트(BMW Welt)는 볼프 프리스(Wolf Prix) 등을 중심으로 하는 오스트리아의 건축그룹 쿵힘멜블라우(Koop Himmelb(l)au)가 설계한 건물이다. 기존의 BMW 전시관에 덧붙여 증축한 부분은 생태,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을 지니고 있다. 전체 건물은 '지루한 홀을 없애고' '신전일 뿐만 아니라 장터이자 커뮤니케이션 센터, 그리고 지식이 이전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목표로 하는, 하나의 개방된 연속공간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전시장이다. 대규모 유리창과 격벽이 전혀 없는 완전한 개방공간으로 내부가 구성되어 자연스럽게 에너지 보존과 절약의 관점에서 많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여지를 지닌 건물이지만, 최상층 지붕에 8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추었고 곳곳에 지속가능한 재료, 장치, 운영 시스템 등이 운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우구스부르크 푸거라이

아우구스부르크(Augusburg)의 방문은 비단 생태의 측면에서만 아니라 사회학적인 측면, 도시계획과 건축적인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고 흥미로운 푸거라이(Fuggerei)를 돌아볼 수 있어서 많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1521년 부호 야콥 푸거(Jacob Fugger)는 박애주의와 온정주의적 의도를 가지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적 공동주거단지를 건설하였고 단지는 설립자의 이름을 따 푸거라이로 명명되었다. 현재 67동의 건물에는 140 가구 150여명의 거주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거주인 중 하나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증조부 프란츠 모차르트가 있다고 한다. 기독교적 자비의 정신과 사회주의적 온정주의의 일환으로 건설된 이곳은 설립자와 푸거가문을 위한 기도를 하루 3번 드리는 것이 거주 조건이며, 지금까지도 연 2라인 길드(현재 약 0.88 유로)만을 거주비로 지불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 푸거프라이는 마치 키르투지오 교단의 수도원처럼 각 거주 단위마다 각자 담당의 작은 화단이나 텃밭 등이 배당되었고, 프라이버시와 정체성 보장을 위하여 각 주호의 적절한 격리 및 각각 고유의 독특한 손잡이 디자인 등이 보장되어 지금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미학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공동주거단지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공동의 위생관리와 우물의 관리 등은 현대 주거단지에서도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이 계획되었다는 사실은 역사나 문화적 측면에서 묵직한 비중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푸거라이는, 지속가능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건축이나 도시의 실행과 지속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치나 시설만으로는 부분적인 필요조건에 한정되며,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제도로써 수세기를 관통하여 존속할 수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울름

역시 오후 늦게 도착하여 야간에 잠시 방문할 겨를밖에 없던 울름(Ulm)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딕 양식의 대성당이 있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방문하였으나 성당의 문이 잠겨 있어 입장은 하지 못하였다. 앞서 열거한 중세 남부 게르만어권의 도시들의 구조와 하천, 하수 시스템과 수도시설, 지형 등은 건축 및 도시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생태와 환경 등의 개념에 접근하고자 하는 본인에게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의 대상이었다.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와 서울을 근거로 활동하는 서울대학교의 이석정 교수의 안내로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외곽에 위치한 킬레스베르크



가장 높은 고딕 성당인 울름 대성당



슈투트가르트 외곽에 위치한 킬레스베르크 회헨파크의 남쪽



원예전시장으로 시작한 회헨파크는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 남쪽 부분에 대한 조경현상실계가 있었으며 라이너 슈미츠의 안 미래공원 "Zukunftspark"이 당선되었다.

의 회헨파크(Höhenpark)는 생태단지의 개념을 중시하고 만들어진, 설계경기의 당선작이다. 123에이커 면적의 공공 공원인 킬레스베르크는 1939년 원에 전시장으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는데 그 이전에는 공원의 대부분이 채석장이었다. 원예공원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현대판 관상정원(觀想庭園)으로 그 계획안은 해체주의적 곡선과 형태 등을 채용하고 있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평가자들의 눈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낡은 산물로 단순히 무시되곤 하지만, 생태와 환경, 그리고 미학적 측면에서 깊이 고려된, 도시 및 인공적 건조환경 내 자연 유입의 요소인 공원과 정원으로서는 문화,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름다운 원예정원으로 거듭나고 있어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인기 있는 곳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

프라이부르크(Freiburg)는 적어도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의 국가에서는 가히 생태도시의 모범이자 원천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답사팀 임원들은 이미 상당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각 장소의 방문과 분석에서 볼 때 마치 고고학자의 눈처럼 가정과 확인, 그리고 선지식의 교정 등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이다. 프라이부르크 교외의 보방(Vauban)지구로부터 중심지를 향해 시작된 방문은 연대적으로도 현대의 외곽지역으로부터 중세의 도심으로 이행되는 역순의 진행을 의미한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시설의 운용으로 에너지와 환경의 보존의 조건을 꾀하고 태양에너지와 수력, 풍력, 지력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함은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항목이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프라이부르크는 '환경 수도'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환경의 보존에 적극적이며 정책과 온갖 도시 시스템에 있어 본보기와 모범을 보이는 곳이다.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생태에 관한 정책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도심으로의 자동차 진입을 제한하며 자전거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도심 주변의 낮은 제한속도 지정, 카풀제도, 대중교통의 적극적 활용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민들의 많은 후원과 아울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에너지의 차원에서는 우선 일찍이 시작된 탈원전(脫原電) 정책과 아울러 에너지 자치 도시로의 지향을 답사를 통하여 가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정책의 일환으로 가로등 및 가정에 절전형 전구를 보급하고 에너지 절약 주택을 보급하여 성공한 사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화 및 다양화 정책을 통하여 태양광, 수력, 지열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의 시행이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에너지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정책의 바탕이 되었다. 프라이부르크에서 환경보전정책의 일환 중 가장 주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선진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한 쓰레기의 처리 방식이다. 분리수거와 자원의 재처리 및 재생, 재사용 그리고 유기물질의 퇴비화로서 해로운 다이옥신 등 화학 배출물의 절감과 그로부터의 해방, 그러한 종합적 활동의 일환으로서 유기농업과 환경산업의 부흥 및 자연환경의 보존을 자연스레 연결하고 총합적으로 발전시킴에 성공한 것이 프라이부르크 정책의 성공 사례이다.

우선 우리 답사단은 외곽지역 보방으로부터 답사를 시작하였다. 언급된 전차가 주된 수단인 대중교통체계 및 자전거의 활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택과 건물, 철저한 쓰레기 등 자원의 분리수거, 환경친화건축의 아이콘 중의 하나가 된 헬리오트롭(Heliotrop) 등의 방문 역시 흥미로웠다. 이후 태양광 발전장치가 지붕에 설치된 프라이부르크 축구 스타디움, 그리고 수력발전시설의 방문은 마치 유적이거나 고고학적 발굴을 하는 듯한 기분으로 이루어졌다.

잘 알려진 프라이부르크 역 주변의 태양발전 장치를 설치한 각종 건축물 등의 방문 역시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을 찾는 까닭에 순례지를 찾는 듯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다. 프라이부르크는 이러한 장소나 기관 등을 민간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관광산업과 도시를 알리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가장 기대할만한 가치가 있었던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태양에너지시스템 연구 팀(Fraunhofer-Institut für Solare Energiesysteme) 등을 비롯, 우리가 방문한 여러 기관들과 연구소 중 특정한 곳에서는 자유로운 접촉이나 방문, 대담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한정된 시간과 조건 속에서



환경친화건축의 아이콘 중 하나가 된 헬리오트롭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의 보방 지구. 환경의 보존에 적극적이며 정책과 온갖 도시 시스템에 있어 본보기와 모범을 보이는 곳이다.



프라이부르크에서 철저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설의 운용으로 에너지와 환경의 보존의 조건을 꾀하고 태양에너지와 수력, 풍력, 지력 등을 적극적으로 채용함은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항목이다.

바빠 움직여야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습득한 다수의 자료를 통한 접근 및 건축물과 단지, 도시에 적용된 첨단 기술의 태양광 발전시설과 상하수도 등을 비롯한 환경관련 시스템과 산업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관련 교육시설과 과정, 그리고 그곳에서의 수준 높은 전문가 안내 등의 경험은 값진 것이었음을 인정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돌발적으로 결정된- 생태학, 현대 환경사상에 있어 매우 목중한 가운데 자리를 차지하는- 하이데거 생가의 방문은 여러 깊은 인상을 얻을 수 있었다. 아름다운 설산은 경탄을 자아내게 했고, 곳곳에 설치된 스키장엔 많은 스키어들로 붐비고 있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흑림을 꽤 뚫고 들어가 도착한 하이데거 생가와 그 주변은 그가 가지고 있던 자연관, 생태관, 환경관을 나름대로 상상하고 이어볼 수 있었던 순간으로, 아마도 모든 답사인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한다.

마울브론

답사의 막바지에 방문한 마울브론(Maulbronn)은 중세 수도원의 유적이다. 시토회교단의 건설 원칙에 따라 선정된 마울브론의 터는 원래 울창한 숲속에 위치한 오지였으며, 수도회는 일하며 기도하는 것을 규칙으로 하는, 개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토목공학에 정통한 수사들이 많았던 교단은 치수와 관개, 그리고 포도원이나 목축업 등 농업분야에 고루 기여하여 생태와 환경 등 현대의 시각에서 볼 때 흥미로움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 마울브론은 이러한 조건과 그들의 생활양상을 잘 볼 수 있는 유적이며, 특히 이들이 오지에서 일구었던 자연개발의 양상은 오늘날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어 적어도 실천적인 측면에서 정원이나 공원, 수도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되었다.

마울브론에서 숙박한 집에서는 따뜻한 대접과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차츰 마음을 열게 되어 친해진 식당주인 내외와의 재미있던 이벤트는 답사를 마친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 대화의 주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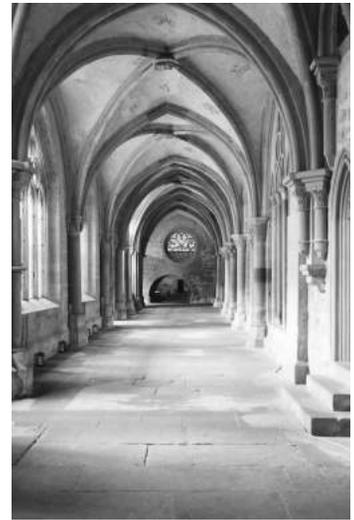
되곤 한다. 잊을 수 없는 것 중 혹독한 추위로 인해 거의 모두들 돌아가며 독감에 걸려 아픈 상태로 버티던 기억은 진실로 특별하다고 하겠다. 서로에게 약을 건네주던 따뜻한 손들은 잊을 수 없으며, 그와 아울러 상호배려와 안배는 답사모임을 인간적 유대 안에 한층 더 견고하게 묶어주고 연결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28일 출발하여 2월 5일 돌아 온 우리의 답사팀은 단우건축사

사무소의 최명철 건축사, 김영철 선생, 류전희 교수, 그리고 본인이 주축이 되었고 연구원인 김완, 한병수, 최순영 등으로 구성되었다. 답사의 결과를 돌아보건대 단순한 목격과 확인만으로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적인 방향으로 접근하는 우리 임원은 각자 다른 위치와 나름대로 독특한 시각으로 답사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품고 있음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건축실무자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최명철 건축사, 과학사 및 생태사상과 운동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경기대의 류전희 교수, 철학과 사상 및 개념 등을 중시하여 접근하는 김영철 선생, 그리고 건축 및 도시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자 하는 본인 등 각자의 시선과 판단은 서로에게 적잖은 도움과 의지가 되고 있기도 하다. 많은 부분에서 원전을 대하듯 생생한 예와 대안을 접하며 많은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후속 연구가 있길 희망하며, 아울러 이번 답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초석이 되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마울브론은 중세 수사들의 생활양상을 잘 볼 수 있는 유적이다.



하이데거 생가를 찾아가는 길. 아름다운 설산은 경탄을 자아내었고, 곳곳에 설치된 스키장엔 많은 스키어들로 붐비고 있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흑림을 뚫고 도착한 하이데거 생가 주변 모두 스키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이데거가 만끽하였을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만끽했다.



중세 수도원의 유적 마울브론.

| 글. 김석환_ Kim, Seok-hwan, KIRA
 · 터 · 올 건축사사무소

양동마을 답사를 마치고...

Epilogue of Exploration of Yangdong Village

지난 11월 16일 서울건축사 건축답사 및 사진 동호회(회장 김선양) 행사로 영동마을을 다녀왔다. 2012년 12월 발족한 이 회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전국 각지의 전통건축 답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건축 전문가인 회원들이 함께 소중한 건축문화 유산을 돌아보며 그 가치를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왔다.

이번 답사지는 지난 10월 수원화성 답사 때 필자가 추천하였는데 금번 나의 저서 「한국전통건축의 좋은느낌」의 개정판 출판을 계기로 현장 설명을 맡기로 하여 적절한 답사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답사도 다녀왔었다.



그림 1. 입구에서 바라본 양동마을 전경



그림 2. 수졸당에서 바라본 마을 안쪽 풍경

서울로부터 거리가 멀어 새벽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 7시 교대역을 출발하여 11시 20분 양동마을에 도착한 다음 먼저 식사를 하고 12시 30분부터 답사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전국적으로 안개가 짙게 끼었으나 점차 맑아져서 양동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맑게 개어 있었다. 연잎에 오곡찰밥을 싸서 지은 윤기 번지르한 밥과 된장찌개, 메론 장아찌와 맛갈스런 김치, 깍두기 등으로 맛있게 점심을 먹고 난 후라 더 즐거운 분위기가 되었다.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에 위치하는 양동마을은 산업사회 이후 개발과 상업화로 우리 고유의 전통마을의 모습이 급속히 사라져온 상황에서 격조 높은 역사 문화의 체취가 오랜 세월동안 변함없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어 ‘진정한’ 전통마을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7월 31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하회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문화 유산은 진정성과 완전성, 희소성의 가치를 두루 인정 받아야 하는데 세계문화유산 등재위원회는 이 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한 이유로 “생산영역, 생활 영역, 의식 영역으로 구성되는 한국 씨족마을의 전통적인 공간 구성을 기능적이고 경관적으로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매우 드문 사례이고, 조선 시대의 가장 시기가 이르고 뛰어난 살림집, 정사, 정자 등의 건축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이며,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고문헌과 예술 작품을 보관하고, 전통적인 가정의례와 특징적인 마을 행사를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양동마을의 입향조는 조선 초기 이곳에 정착한 양민공 손소(1433~1484)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훨씬 위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 볼 수 있다. 이 마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정확한 문헌기록은 없으나 마을의 안산인 성주산 정상 구릉지에 청동기 시대 묘제의 하나인 석관묘가 100여 기나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원전(BC 4C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웃 마을인 안계리에 고분군(古墳群)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미 삼국시대인 4~5세기경에 상당한 세력을 가진 족장 급에 속하는 유력자가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후 고려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오씨(吳氏), 아산 장씨(牙山 蔣氏)가 작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월성 손씨 4대손인 손사성의 차자인 양민공 손소는 처음 풍덕 유씨 만호 유복하의 상속자로 이 부락에 입향하여 현재의 월성 손씨 종가인 서백당을 신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풍덕 유씨의 후손이 한 사람도 살지 않으므로 월성 손씨 문중에서 외손봉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광호의 재종증손(再從曾孫)으로 성종의 총애를 받던 성균생원 찬성공(贊成公) 이번(李蕃)이 손소의 7남매 가운데 장녀와 결혼하여 영일(迎日)에서 이곳으로 옮겨와서 살고, 이들의 딸 아들이자 동방5현의 한 분인 문원공 회재 이언적(文元公 晦齋 李彦迪 1491~1553) 선생이 배출되면서 손씨, 이씨 두 씨족에 의해 오늘과 같은 양동마을이 형성되었다.

양동마을은 8·15해방 직후까지도 양반집마다 가랍집·하배집으로 불리던 노비집이 평균 한 집 반씩 딸려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헐려 나가 밭이 되었다. 이곳 마을주민들에게는 아직도 유교사상이 짙게 남아 있어 매년 4, 10월에 선조를 제향(祭享)하는 의식을 마을 공동으로 거행하고 있다

사람들은 양동마을이 500년 동안 발전해 온 데는 풍수지리상의 길지(吉地)로 꼽히는 특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선 그 요인으로 꼽는 것이 마을의 독특한 지형과 마을 앞을 흐르는 안락천의 형국이다.

양동마을 산세의 특징은 마을 전체의 형국이 물(勿)자를 이루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마을은 그 글자의 형상대로 크게 하나로 감싸는 획 안에 3개의 작은 능선이 가지를 뻗쳐 여러 갈래의 능선과 봉우리들에 의해 조망이 빼어나고 양지바른 터를 다수 형

성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아기자기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띤다.



그림 3. 양동마을의 기반인 안강평야



그림 4. 양동마을 지형분석도

양동마을은 남촌 북촌, 하촌, 상촌으로 구분된다. 북촌에는 관가정, 향단, 무침당, 영귀정, 설천정사, 대성헌, 무침당, 수출당, 경산서당, 낙선당, 서백당, 사호정, 상춘당, 근암고택 등이 자리잡고 있고 남촌은 양동천 남쪽 지형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구역에는 안락정, 이향정, 강학당, 심수정, 두곡고택, 동호정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마을 내 입지에 따라 물봉골, 안골, 갈곡(갈구덕), 거림, 장터골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양동마을의 길지 조건으로 이 마을을 감싸며 흐르는 물의 흐름을 꼽는데, 이 곳은 경주에서 포항으로 흐르는 형산강의 중류 지점으로서 양동마을 앞을 지나는 안락천(기계천)이 합류되는 합수지점이다. 풍수에서는 이처럼 물길이 만나 합쳐지는 곳을 좋은 길지로 여기는데, 안락천은 형산강의 물길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형산강 물이 차면 역수의 흐름을 이루게 된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역수의 흐름을 끊임없이 부가 쌓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 날 일행은 관가정을 시작으로 향단, 대성현, 설천정사 영귀정, 경산 서당 서백당, 상춘한, 근암고택, 수졸당, 동호정, 두곡고택, 심수정, 강학당, 이향정, 안락정 등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그 가옥들은 종가와 파종가 그리고 경주손씨 가문과 여강이씨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살았던 가옥들로서 양동마을 내에서 가장 격이 높고 사료적 가치가 높은 곳들이다. 그 가운데서도 보물로 지정된 무침당, 관가정, 향단과 중요민속자료 23호로 지정된 서백당은 가장 연대가 오래된 전통 가옥들로 그 시대 건축술과 가옥구조에 반영된 시대상을 고스란히 간직해 오고 있다.

이 마을에서 연대가 가장 오래된 서백당은 필자가 양반가옥의 원형으로 생각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 가옥인데 ‘ㅁ’ 자형 가옥의 한 몸채에서 열린 방향만을 달리하며 안채, 사랑채의 기능과 영역성을 갖추고 있는 점을 의미 있게 여기고 있다. 이 집



그림 5. 서백당 사랑채 측면



그림 6. 관가정 전면 전경

은 설창산의 주맥이 흐르는 명당으로 집터를 잡아준 풍수가 장차 3명의 현자가 태어난다고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손중돈과 회재 이언적이 태어나고 한 명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손씨 종택인 이 집에서 회재가 태어난 이후 양동마을에서 이씨의 세(勢)가 더 커지게 되자 손씨 가문이 엄명을 내려 앞으로 여기서 더 이상 이씨 자손은 낳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농사 짓는 풍경을 보는 정자’란 뜻이 담겨 있는 관가정(觀稼亭)은 손소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양동마을 손씨 가문의 명맥을 지킨 우제 손중돈(1463~1529)이 세운 집인데, 안채의 ‘ㅁ’ 자형 평면 구조를 바탕으로 전면 부분이 좌우로 날개를 뻗치며 확장된 모습을 띠고 있다. 이 집은 정확한 좌우 대칭으로 규범성을 갖추면



그림 7. 향단 전경



그림 8. 무침당 사랑채 전경

서도 서쪽의 사랑채는 기단을 안으로 들여 쌓아 루 형태로 보이게 하는 등 그 쓰임 성격에 따라 세심하게 고려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李蕃)이 서백당으로부터 독립해 지은 무침당은 물봉골을 감싸는 능선에서 안대인 성주봉이 가장 훤히 바라보이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기존의 안채에 사랑채를 별도로 증축하면서 위세가 오른 이씨 가문 종택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듯 규모와 가옥의 격을 갖춘 집으로서 안채와 사랑채 사이로 오르는 높은 터에 사당을 반듯하게 갖춰 놓았다.

향단은 회재 이언적(晦齋 李彦迪, 1491~553) 선생이 1543년경에 경상감사로 부임할 때 증중 임금이 그의 모친의 병환을 돌볼 수 있도록 지어 준 것이다. 한국 전통 건축 가운데 계획적 의



그림 9. 심수정 전경



그림 10. 안락정 전경

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집으로 그러한 감각은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 사용자의 신분과 성별에 따른 채의 배열과 각각의 건물을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동선, 그리고 채와 채 사이에 놓인 외부 공간과 지형의 높낮이에 의해 형성된 공간의 변화 및 밝고 어두움의 차이에 의해 표출된다.

그리고 강학당 등 교육기관과 생활사가 깃든 정자들은 그 시대 유교와 선비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이 마을에는 손씨 가문에 속하는 안락정과 이씨 가문에 속하는 강학당 및 설천정사 등의 강학 시설이 있는데 몇 해 전 일본 NHK 방송에서는 이 마을의 번성이 교육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교육 시설들을 집중 취재한 바 있다. 양동마을 손씨와 이씨 양가문에서 문과 26명, 무과 14명, 사미 76명 등 과거에 급제한 분만 모두 116명이나 되는데 현대에도 수많은 고위 공직자와 교수 등의 인물을 배출하여 높은 긍지를 갖고 있다.

또한 이 마을에는 손씨 가문에 속한 수운정과 이씨 가문에 속한 영귀정, 심수정 등의 정자가 있는데 그러한 정자 등에는 자연을 관조하며 심신을 수양하던 선비들의 체취가 서려 있다. 앞으로도 이 마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역사의 켜가 쌓이고 전통마을의 향기와 가치도 더욱 높아갈 것이다. 이번 양동마을 답사는 그처럼 의미 깊은 전통 마을을 회원들과 함께 돌아보며 친분을 나누는 뜻깊고 즐거운 행사였다. ㉞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붙임 참조

2. 건축사자격증 교부

최종합격자(3과목합격자)에 대하여 실무교육 후 건축사자격증을 아래와 같이 교부할 예정이오니 필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가. 실무교육 및 건축사자격증 교부일시

- 2014. 1. 14(화), 13:00~18:00 (12시 50분까지 입실완료)

나.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서울 서초구 효령로 소재)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 출구 도보 10분

다. 교부방법 : 실무교육 및 자격증 수여식 후 응시번호 순으로 교부

라. 지참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인정증명서)

※ 대리인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위임장은 홈페이지 다운로드)

2013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3과목 최종합격자 (전회시험 과목합격자 포함)

00014	황승현	00263	이용주	00613	용웅식	00809	김병권	01086	서동곤	01317	유호원	01593	김혜림
00023	이영민	00292	오장훈	00615	최재성	00832	이중희	01094	염창용	01318	김광영	01614	김준희
00033	양승규	00298	황영미	00619	정우철	00833	박광남	01100	김윤수	01327	황경미	01615	정경진
00045	최정수	00301	이동혁	00620	박재형	00837	전상현	01125	조광현	01333	박춘영	01631	최지훈
00052	김진만	00313	황정하	00628	곽상준	00839	최재복	01129	이정영	01339	이한규	01657	전철호
00054	박정만	00334	이상아	00639	안길현	00864	신요한	01150	김민찬	01343	권용철	01677	김정수
00063	박정현	00352	조인구	00647	김현정	00868	구자홍	01158	홍상희	01344	이윤주	01691	이용길
00084	강욱	00370	유경아	00664	오조영	00874	이종우	01162	안준현	01359	이승창	01692	이형훈
00096	정해권	00398	박용덕	00668	이아연	00877	문진아	01171	신명숙	01360	이경희	01698	이경구
00107	김경용	00422	이동욱	00680	안신현	00878	심현승	01183	이태섭	01363	천범현	01706	박종현
00125	박대석	00436	이중수	00696	주진만	00889	김충대	01186	강정원	01371	김재원	01710	최오봉
00134	이용석	00441	주정근	00706	박수일	00909	황재희	01188	김범수	01398	최지안	01712	박대석
00147	이재호	00445	박지성	00718	양희동	00911	우대영	01192	강해정	01427	박현진	01713	민지안
00150	지창훈	00456	권재영	00725	정조일	00913	오대영	01197	장재형	01431	정호진	01723	송인성
00157	송인권	00466	노규호	00735	차석헌	00915	최성철	01209	송충현	01443	박태준	01733	강준경
00166	김정근	00497	정상철	00743	이진철	00920	이상호	01211	전상규	01461	배한선	01738	이성우
00175	김동철	00508	나경천	00746	강석호	00933	김구태	01212	박종원	01462	김태동	01763	손한계
00178	정연국	00511	김학진	00765	허재홍	00945	김충호	01222	강문석	01467	배상훈	01766	양현
00181	최정곤	00516	전민주	00773	송민호	00951	소현진	01231	김정수	01468	신예경	01769	김영민
00197	허동호	00523	표상민	00777	장준영	00981	한동훈	01235	문경진	01477	류지훈	01771	임준혁
00199	정윤주	00525	전영일	00781	신명현	01015	정현락	01253	박은영	01491	임정빈	01785	최수인
00200	정복영	00529	이형석	00782	이동훈	01018	양태영	01264	김한나	01503	홍용완	01809	김경민
00210	권미리	00544	정재훈	00786	김정우	01030	배윤천	01268	김범수	01505	황영호	01814	이성훈
00219	윤재섭	00555	오명환	00792	김주희	01037	이관용	01283	최재평	01528	조영건	01825	조현구
00226	민현진	00562	임성우	00794	유준상	01043	최용렬	01302	장제환	01550	주병준	01834	윤요섭
00227	안현정	00570	이석훈	00796	양재석	01054	손재홍	01307	정우정	01552	주일	01837	최용문
00231	박명석	00584	오명철	00797	송훈	01061	김민수	01308	황규진	01564	서광진	01852	이광호
00245	이지훈	00606	여용구	00802	강윤구	01062	신동규	01314	장정일	01572	손종태	01854	유정임
00252	김건우	00609	백현아	00807	전세득	01063	강신태	01315	김동현	01585	김혜선	01886	이형탁

01901	강태원	02587	양명석	06043	이정옥	07441	이진민	09448	오진희	20245	임경식	38822	양창근
01921	강성철	02591	정석범	06087	권정우	07449	안형진	09455	진광호	20345	오상필	38901	양최우길
01924	엄승아	02601	오세범	06093	김경환	07478	전성렬	09459	김병길	20378	김유성	38997	석성관
01929	박경욱	02624	문수희	06099	김천기	07496	박현석	09587	김병주	20394	박광호	39122	황규옥
01933	최승태	02636	여주영	06108	양행상	07531	김행욱	09643	한상용	20437	이권형	39243	양수우
01936	국	02641	이응락	06123	오용훈	07535	이유복	09694	박미영	20508	이창석	39250	남승우
01945	김지웅	02655	고원준	06159	정용훈	07550	김상범	09717	이성훈	20512	강수한	39288	류승석
01952	황규정	02661	유주현	06163	최영태	07597	이정학	09743	문민호	20525	박재석	39297	송정훈
01954	이성림	02670	이병철	06178	강명숙	07636	박장욱	09935	이상덕	20565	최상규	39425	김병수
01960	최선호	02696	김형선	06189	김정식	07640	박수실	09989	전재영	20576	김경락	40201	이규철
01966	김삼희	02742	이현창	06208	김건욱	07693	홍철의	09999	장선영	20629	김흥수	40207	최문섭
01979	이은희	02783	김보람	06217	전화정	07764	이주영	10050	이은주	20642	류수종	40214	황인호
01989	김영환	02785	김해정	06227	한기용	07766	김진업	10063	권민경	20656	손숙희	40233	김응철
01991	황	02789	맹선국	06242	홍균표	07796	김유리	10103	강현우	20704	박수현	40291	박종호
02006	이호석	02794	최기준	06244	홍종권	07802	이재희	10131	양우영	20711	김남수	40293	박종호
02010	임주희	02818	이경욱	06259	김재욱	07813	이기호	10186	임두빈	20715	김수환	40368	정수영
02015	박효성	02828	김광준	06281	전성원	07845	김현진	10195	윤인한	20725	강정구	40571	김일환
02026	이수정	02832	김계항	06302	박상민	07856	최미란	10210	윤재구	20732	남명진	40643	김선희
02027	송영석	02849	이만호	06310	배준범	07881	손주찬	10223	이정언	20783	김성균	40702	조하나
02046	정현아	02865	이종민	06369	정우석	07884	전지영	10313	박종혁	20789	유현상	40770	임대현
02052	이행주	02880	강우현	06413	박상영	07897	한유선	10427	주명구	20834	권현호	40817	유치열
02065	정연화	02884	조경후	06434	장은준	07937	김유경	10445	권오생	20871	이해인	40819	김광오
02068	최문기	02894	이재훈	06567	백용호	07939	신성진	10468	김성식	20893	안재규	40872	유동식
02069	문금호	02899	정유나	06578	진석현	07941	이영재	10509	엄동진	20956	강유평	45570	이명식
02070	조인호	02905	김민규	06641	김성익	07999	윤인섭	10567	정성민	20967	김양환	45602	신형식
02086	김영도	02920	정윤승	06663	이병술	08031	민현준	10576	김현석	20969	박진영	45737	천용수
02136	유병욱	02932	김진우	06689	김경남	08042	권태원	10658	박형준	20999	정충진	45745	김성남
02141	안용배	02981	박정연	06742	한우순	08089	이창걸	10676	차상현	24039	반영선	45965	박경원
02142	장재두	02982	김정순	06757	서종원	08159	이선영	10680	김여경	24291	서영준	46591	송수영
02232	최익환	02993	이양재	06851	한수연	08240	이관수	10693	김영호	24334	남희창	46694	장동훈
02272	엄시진	03597	방극선	06904	이세영	08287	김동기	10748	김창훈	24423	송병환	47503	김지범
02277	김인숙	05023	한석수	06936	김결	08311	김동곤	10844	최준석	24519	이창호	47681	조칠행
02284	성우홍	05028	김동열	06941	여희석	08401	손민정	10910	이정민	25084	김영모	47691	이성현
02297	박정식	05058	곽다인	06968	최정우	08482	신치호	10953	유영진	25817	이종관	47866	김정찬
02300	권호석	05111	최영철	06986	양희준	08521	홍승범	10964	조정훈	25952	김봉환	48878	이정환
02306	이혜진	05133	양영철	07042	이주한	08574	박민관	14549	정상훈	25995	이윤희	49277	이미양
02313	김재윤	05143	박선준	07061	김성수	08590	최정화	14643	신봉기	26488	하철수	49331	장근순
02326	윤종혁	05165	윤기창	07071	김연국	08655	류정철	15122	권명구	27141	박정기	49462	백수철
02400	박경준	05212	윤종선	07088	김용주	08753	김인진	15130	최현진	29233	정동욱	49562	이선희
02401	최희경	05218	이일수	07098	김하윤	08777	주인호	15453	진형수	29689	하대현		
02406	김종태	05240	문대하	07131	김화진	08801	김영숙	16529	최명진	30009	김홍용	(외국건축사	
02419	오창훈	05276	이시권	07160	서승철	08822	윤여송	17032	신일진	30103	김명진	자격소지자)	
02432	이성석	05282	신현준	07174	최봉수	08836	이동준	17858	안성규	30214	이수용	01059	김성우
02441	황희섭	05293	김중일	07179	도주희	08859	최병열	17940	정형식	30259	김민성	01366	문영아
02442	오세원	05447	손병기	07181	장영준	08954	최우석	18439	홍상호	30409	권병구	02449	이승은
02448	김동성	05460	이창무	07184	이상민	08978	권혁천	18659	오신욱	30500	원현성	06052	신호섭
02456	김민자	05507	명	07206	윤정아	09027	라동철	18742	조선근	30629	정승은	06142	김인범
02474	이상훈	05566	신형철	07227	고재학	09067	조동철	19410	조진만	30729	양승원	06289	윤정원
02488	김준연	05665	백종태	07240	조병규	09089	박찬호	19645	조종규	30875	최기성	06356	조수정
02496	변심석	05667	강정은	07280	류근석	09095	김순욱	19812	최성원	30900	유재만	06379	소민영
02497	이재석	05673	이제원	07288	이덕영	09113	김경현	19948	하대인	30966	김하정	06381	이광현
02512	김광석	05731	송상환	07304	김세진	09142	박준복	20020	김정철	34324	이원규	06719	김진홍
02521	김상수	05756	김윤선	07350	이종규	09153	장영대	20063	조창흠	35707	정영석	07190	최무규
02542	김정운	05786	양희진	07361	박상국	09177	황규하	20091	이승암	36070	윤양종		
02554	이승종	05829	강준구	07393	김철희	09206	정현지	20092	김태규	36153	황상아		
02583	황윤택	05866	박성호	07401	정지한	09384	임현지	20170	마재성	38812	최병률		

2과목 최종합격자 (대지 설계)

00018	호대혁	00788	김호영	01243	남경훈	01590	신민경	02159	오정현	03101	한혜진	40665	김은영
00026	송영권	00791	허미화	01275	이현구	01610	조영은	02469	윤여권	03276	유진철	40776	채교문
00035	오은정	00904	민찬혁	01396	마연희	01667	이승인	02484	윤만희	10105	김도형		
00089	김태영	00905	정상민	01401	이화주	01725	하원일	02626	공윤정	10612	배민구		
00207	이석원	00975	최성호	01434	이태상	01790	이동규	02637	한지영	20717	변해숙		
00383	이후현	01034	박서경	01496	차경일	01800	이정선	02706	공선식	20853	김준기		
00578	정국한	01064	이아린	01531	김미희	01974	고희정	02746	장지윤	20941	박인욱		
00749	장정기	01085	김학정	01577	이주타	02042	장상희	02795	황동근	30272	정창운		
00755	이동근	01176	정숙영	01578	홍순목	02050	이상윤	02812	박진혁	30449	공진표		

2과목 최종합격자 (대지 설계2)

00002	차상철	00382	구철회	00679	정웅기	01168	최현	01889	이주석	02906	하해란	20751	금창영
00029	엄태웅	00401	김현준	00690	이충민	01182	정경택	01927	이종학	02984	이기수	20856	김종대
00053	변준웅	00427	박정근	00692	장인수	01219	한기열	01999	정택훈	02988	조봉래	30076	김영희
00075	김나비	00428	이준호	00714	최승희	01373	정풍교	02265	박상경	02999	한진	30351	정종태
00168	한태희	00434	김주영	00766	나기오	01575	이형래	02464	박정호	10364	윤성재	30683	신재규
00193	성민제	00462	표민이	00774	김정용	01599	정남경	02494	김인경	10451	염영규	30710	박성기
00195	김지성	00476	김상언	00780	노학진	01668	권영세	02495	정승원	10453	김정규	30847	임수연
00198	이병철	00518	신수현	00860	임수	01722	정은혜	02514	김수임	10477	이정국	30858	이득규
00244	박정훈	00538	신건만	01012	박길용	01729	윤고은	02570	김세현	20032	이문재	30986	김현희
00260	이상현	00631	김민정	01074	김현일	01742	모대근	02584	강병훈	20081	김은희	40118	서영주
00265	이종삼	00632	류정구	01111	김형석	01772	조성민	02689	장길현	20281	윤주철	40436	김태욱
00269	권용화	00649	양현준	01154	이성지	01801	박지윤	02695	신무철	20478	이수호	40814	권순형
00377	최용목	00671	변승철	01164	박달근	01832	김호진	02892	성나영	20689	이근영	40834	엄수

2과목 최종합격자 (설계1 설계2)

00009	박수미	00524	박원영	01029	김동명	02226	김효업	02727	문형태	10180	서승극	20709	최용택
00012	김수영	00549	강한샘	01032	조경훈	02237	오정실	02773	김수호	10334	신태희	20764	이재석
00024	임상진	00592	김기태	01167	채명준	02367	류원선	02790	최강섭	10437	조용희	20841	권혁민
00032	강현진	00655	신현수	01196	전병삼	02394	김운수	02806	백태훈	10535	노은진	20911	김건철
00070	김영욱	00656	박석희	01244	김현	02415	김준호	02825	우범구	10573	양수현	20975	박강석
00111	고두철	00678	김민호	01280	박현	02431	모세범	02878	김원	10637	전현준	20989	신덕수
00122	김미연	00682	김영나	01326	김상도	02459	이철원	02881	윤택식	10682	김세아	30090	김종수
00123	고학윤	00701	권희진	01472	김용환	02460	변정훈	02898	허정익	10740	하광준	30468	김종선
00138	이말우	00704	엄시연	01492	천유진	02482	임춘성	02910	전윤철	20010	전순호	30505	이성연
00141	김종원	00720	박진원	01523	곽봉암	02489	김영길	02911	정연거	20134	백승민	30565	박자영
00285	이의재	00753	김정훈	01689	김대규	02503	김영훈	02945	신승호	20140	김희찬	40246	김혜영
00288	김효중	00784	양승열	01708	노석재	02506	김규훈	02959	박성언	20163	여은영	40248	김옥정
00324	복서연	00785	김정호	01731	조성수	02510	강진구	02967	유순욱	20234	이희중	40301	박재영
00367	윤종원	00805	박현우	01732	이진욱	02576	성정일	02975	진재호	20384	공창희	40503	박정진
00376	김성유	00813	윤영준	01737	김광식	02643	윤신	03000	김기훈	20518	이재환	40556	최종관
00387	박병훈	00844	정기룡	01787	이훈섭	02644	김영근	03223	우지성	20533	최준영	40586	구부영
00419	김은진	00959	공성철	01798	차병훈	02646	정재철	03362	김오진	20561	오규연	40598	유영관
00465	조석현	00968	한승재	01862	김은영	02674	김정열	03422	송경용	20572	임홍덕	40605	김화엽
00492	김창범	01003	김상호	01877	우정효	02690	목의균	10116	김종균	20598	전용석	40823	조선애
00510	장규희	01008	박혜영	01969	김도형	02702	임승춘	10158	박향란	20636	김정은		

1과목 최종합격자 (대지계획)

00016	고명철	00341	임중표	00761	김태연	01160	김용태	01530	박효종	02008	최혁동	02823	전진곤
00057	함영선	00347	김순수	00769	서정원	01175	문성배	01532	서성운	02056	김경동	02958	이신준
00066	양군수	00364	김정수	00823	김만민	01223	이명환	01533	채주성	02077	한치영	02990	이상준
00080	최미경	00409	박상덕	00891	김형진	01224	김형찬	01536	김수연	02102	천지환	03629	최창민
00088	한정한	00411	노재만	00894	유성훈	01246	이규세	01542	최수연	02114	김홍일	05073	김민수
00102	최왕림	00424	박진국	00896	정종인	01258	이창범	01569	성한곤	02139	이희전	05244	채기병
00109	허완모	00431	강명조	00900	김경애	01266	강상희	01659	이준형	02212	노현	05245	이정석
00120	조진희	00440	김영민	00953	박일우	01274	최운형	01687	유병섭	02213	김영수	05316	임성수
00124	이은용	00454	최연목	00956	윤상현	01312	최석원	01697	임건영	02231	이장현	05432	김진남
00126	이지연	00488	백승헌	00965	이동원	01316	권혜영	01720	오준	02256	이학송	05619	정의환
00129	김재호	00567	이동건	00979	김경영	01345	신동순	01724	이홍	02305	정의업	05635	도규태
00131	정복선	00597	원종국	00991	양원석	01346	김봉익	01726	김윤환	02310	이상엽	05639	이재영
00135	최정원	00607	김용선	00996	박진태	01364	조규완	01728	박경선	02314	서현희	05682	나명수
00145	이문형	00626	박경민	01004	윤성아	01367	윤주민	01773	조원주	02392	장봉근	05765	권병기
00152	이승현	00635	정양호	01005	최상준	01379	연희태	01788	윤재환	02507	안상철	05825	류한승
00156	곽연호	00646	장우준	01022	김진현	01383	김인호	01791	김덕훈	02535	김호곤	05895	라용규
00167	김은정	00653	주성용	01051	송원석	01392	손정열	01807	한현수	02537	최호일	05951	송훈
00179	박재용	00667	허복권	01070	이신영	01394	하평소	01826	현혜경	02571	배정호	05959	조원래
00190	신선임	00688	김용환	01073	남상진	01402	현승철	01828	윤희섭	02612	이정석	09003	이재주
00222	김상미	00689	박철운	01082	고정규	01411	정창호	01836	차용진	02728	최정배	09025	유재수
00240	박영서	00700	김진규	01089	전세영	01415	유성배	01866	김명희	02735	조민구	09049	송경춘
00251	손건국	00705	여철수	01093	신형섭	01420	전재오	01893	오명훈	02754	양현모	09166	오문석
00264	김정희	00728	노대만	01098	권혁호	01438	최중철	01898	이길주	02779	조원규	09245	옥유곤
00302	한재진	00741	김지환	01099	엄경배	01515	양지윤	01918	정성진	02797	윤병철	09262	박정원
00308	금재섭	00748	김희영	01117	양재찬	01517	유승민	01953	태혜영	02803	이송희	09270	한동일
00331	서영대	00750	이영재	01119	송규남	01520	이동원	01990	박상철	02807	김현우	09348	이규만
00337	김병수	00751	송승준	01130	박영규	01521	조자영	02002	김형	02819	김용호	09362	김진호

09444	김지은	10293	강승수	20044	김병진	20875	최지연	30398	김선삼	39517	김민호	40612	이대영
09465	김지하	10309	오세봉	20300	한갑용	20964	서정아	30477	이대연	39968	서광남	40865	이영은
09523	백혜원	10458	신은기	20309	김창영	20984	서재수	30648	이광현	40092	임영목	40951	서일남
09555	김성우	10622	이상혁	20313	이상엽	24124	이상미	30659	손두병	40150	이원규	40968	이수원
09604	김상태	10654	안태금	20318	배명선	24156	김상돈	30706	정인실	40389	정용우	44560	정주호
09625	김덕호	10708	옥인용	20448	김선화	29386	지용근	30715	김원석	40417	이상봉	49323	김희순
09653	임윤희	10742	장준호	20501	배상근	29685	조석민	30806	반은희	40420	우상기	49365	김원일
09732	한대희	10761	차영진	20506	박정희	29884	여상화	30855	문현진	40433	손학영	49455	김선석
09792	유지영	14339	구유동	20585	손만영	30086	배승오	34591	백민곤	40515	김숙영	49807	강길상
10067	강인호	14560	남충혁	20811	정헌관	30233	김현일	39222	김영규	40560	이재범	49985	임정하
10088	고창규	19474	박영수	20814	여환량	30270	박성우	39331	정윤희	40575	양정모		

1과목 최종합격자 (건축설계1)

00013	손성원	01031	김상혁	01858	고동연	02805	오병호	06708	최윤정	19805	김정영	30971	문세이
00015	현창용	01060	우상균	01906	김수연	02813	박동진	06787	조준상	20007	한영대	39036	강정민
00017	권찬규	01067	김은광	01922	박수민	02817	이상민	06828	김선호	20021	임정현	39282	최인규
00021	박중석	01075	이재성	01931	조용성	02843	박시춘	06836	이상철	20119	김성원	39421	나종희
00048	윤희아	01106	백명현	01970	박철	02853	김기영	09070	최병현	20122	서수철	39527	장우창
00050	조진희	01107	김선호	01983	김선아	02864	배수웅	09134	임성보	20124	이재명	40098	허두영
00055	박찬석	01123	박종주	02018	김인하	02876	구태형	09145	정지인	20127	서미초	40100	임도훈
00059	임현호	01145	홍지호	02034	김현태	02902	유정환	09198	이진동	20136	서남수	40109	정영철
00062	강병기	01147	김경훈	02038	함정현	02908	김정규	09241	조희수	20138	김정수	40116	전용철
00071	신태영	01155	김휴석	02085	육인희	02912	이의익	09491	이준형	20152	김찬년	40131	정승진
00085	심욱	01156	김재국	02115	강철호	02949	조은희	09579	나태곤	20237	송영준	40199	이의규
00130	고경운	01172	서은영	02116	강민석	02973	김상규	09597	유서준	20247	김홍수	40220	이용우
00189	조남균	01195	정미라	02188	최재용	02974	김동규	09754	안은하	20287	정일림	40221	박복렬
00201	모상필	01202	오승현	02196	박민성	02977	김정완	09835	이상봉	20373	노성현	40242	강석진
00279	강영찬	01287	정민경	02200	여경석	02983	김법모	09867	최일광	20392	배상원	40325	조희정
00284	염순용	01290	김정식	02210	윤여갑	02994	박성중	09875	박성훈	20405	김성일	40391	김주현
00305	유수복	01304	임재연	02238	최희섭	03334	여원민	09918	김기수	20411	도재형	40394	이군성
00323	유재상	01319	한상민	02242	이정원	03379	서지영	09978	민소정	20450	김종운	40426	안병길
00342	윤석길	01321	김아름	02254	강선영	03415	신승하	09995	한장연	20465	김준욱	40431	장석용
00351	김태완	01324	민경범	02271	윤종인	03433	박진성	10019	박주용	20521	손철호	40463	이윤희
00362	최지영	01329	정원형	02301	김준석	03800	이승한	10028	민종갑	20554	오도환	40470	권명상
00384	배성탁	01352	민경진	02357	박희주	03817	김수미	10148	강윤근	20604	이동근	40472	박중신
00414	박형준	01356	김상태	02366	이범훈	03899	권영남	10160	장봉석	20610	정준상	40481	박중진
00430	팽재훈	01437	이호경	02462	이동훈	03952	손일권	10213	차승환	20649	김성태	40491	민혜련
00471	오명균	01444	박정아	02476	최성수	06033	박장규	10320	이상규	20708	정호수	40504	배예환
00526	김종범	01494	김태균	02487	장우	06075	홍순명	10411	김대용	20849	박병욱	40622	신현요
00542	박상준	01554	김병관	02492	배연희	06121	홍임기	10419	김대영	20928	김교섭	40627	조승래
00579	천서진	01638	심규열	02515	류권현	06125	김유홍	10421	이진도	20962	박상준	40669	전영구
00585	김양수	01646	권은보	02545	한은주	06130	김승철	10428	지철용	25088	정종화	40709	심은영
00594	박광수	01661	최재숙	02578	김문주	06138	박무룡	10537	이상목	29418	최재훈	40723	김영규
00614	이영란	01675	문명남	02593	박성진	06139	유호연	10538	최동률	29607	이상은	40741	권연화
00616	권정오	01680	박강희	02600	박은영	06140	임재빈	10552	조현민	30112	김정훈	40773	이희우
00657	김지현	01681	남희경	02640	강희정	06194	최준기	10562	오정삼	30218	정인순	40815	박수용
00660	김정길	01693	김재국	02649	방효중	06230	이상철	10590	김창규	30276	남정록	40821	박재평
00703	이근식	01699	김성일	02658	이신호	06247	박연준	10751	손창식	30357	조용일	40915	남용환
00731	박계정	01704	마순석	02676	김성식	06253	배현섭	10783	장현우	30360	반종성	40986	문영주
00754	고광희	01717	고성완	02686	김영근	06255	정순문	10896	김창락	30373	양영관	40988	이범신
00756	윤대로	01719	박형원	02717	임설아	06272	박병태	10932	장진호	30430	김윤희	40998	강상규
00775	권성순	01736	정진숙	02723	신철안	06354	류행수	15116	손용규	30452	임현정	45416	김지아
00801	이용남	01747	김유환	02725	이상현	06415	김정일	15560	백지웅	30532	김종민	45790	김성원
00916	이승철	01784	안택진	02749	박상화	06473	김동우	15607	정남선	30618	고성진	45869	손준호
00942	이진오	01813	이희철	02751	안순희	06503	은성운	15720	김현호	30684	정지윤	49156	
00964	김일영	01829	김하나	02759	최영민	06608	윤성호	15863	권혁	30723	임준순		
00976	이용원	01833	강효선	02760	김현복	06673	김동규	15870	김상석	30783	박항수		
01014	박창희	01843	배구화	02775	정수영	06684	이지영	19040	박재영	30832	홍기공		
01019	이주형	01845	장동원	02802	강성철	06687	장서윤	19767	이봉춘	30939	여상현		

1과목 최종합격자 (건축설계2)

00047	박상범	00083	박병열	00151	박진우	00218	정현일	00243	김정희	00270	김현종	00315	문정식
00060	이지현	00097	정현대	00170	주연욱	00225	이현숙	00246	김경진	00273	박지영	00326	문정균
00064	허성욱	00098	송기호	00174	안재정	00230	지동윤	00253	서태원	00278	김대호	00332	한규욱
00073	방희정	00100	김종오	00176	조충현	00236	고경탁	00254	박재만	00293	조윤진	00335	손명준
00074	서민수	00118	김동건	00180	김남수	00242	박충선	00256	최원익	00303	박일훈	00336	정해운

00353	유정두	00884	박두배	01672	나용주	02504	김지철	05336	박문신	10300	김현풍	20713	김재우
00372	민영만	00886	안흥식	01684	윤서연	02511	지필성	05342	유광호	10314	송현정	20736	최영섭
00389	김무고	00899	김인화	01686	허은재	02516	남기성	05350	추정엽	10398	전민규	20740	김응문
00394	채정훈	00907	길혜연	01701	이재현	02517	이철봉	05357	박재광	10491	김현은	20800	조몽수
00399	황언철	00943	길혜연	01703	김진선	02518	황득환	05396	김명재	10505	조은석	20816	김양수
00402	김재중	00967	박철영	01741	김화자	02534	하태섭	05400	이은숙	10522	양혜영	20821	윤병도
00410	정상철	00971	이재희	01755	석은정	02540	김진철	05406	김민성	10526	이상호	20824	채정민
00413	이현도	00986	지철호	01756	윤미경	02546	김범주	05438	이대길	10586	임경섭	20847	김민영
00423	권호진	01011	윤기일	01789	송흥섭	02549	최원혁	05464	권영근	10601	김동준	20857	김미정
00425	현진철	01025	박현철	01799	강수미	02556	박용구	05492	원홍재	10628	이선식	20874	김장영
00426	강규철	01039	정보라	01815	최낙훈	02560	도승주	05617	김동우	10635	김덕구	20881	허필영
00433	김석진	01046	최승길	01818	원철	02566	홍건석	05626	장건석	10648	김지훈	20890	허필영
00447	최기철	01080	박정길	01830	함노훈	02574	이규복	05645	강철규	10739	정민준	20892	강인혜
00461	박세진	01088	박용운	01840	김효정	02579	이기호	05678	장인철	10763	허송희	20894	장우성
00464	김수미	01097	고성철	01850	최연정	02595	강석화	05695	정우선	10800	최정식	20925	손학수
00468	박종범	01101	이유태	01878	김갑중	02610	박창진	05720	김석원	10825	전상덕	20978	이비호
00479	김남균	01102	노철진	01882	방기철	02617	남광서	05742	노태균	10853	김영호	24299	김은하
00480	강영선	01113	박기춘	01907	임정모	02619	송숙	05752	박종성	10864	정진우	30007	강영화
00483	경성현	01115	장부규	01915	김경수	02628	이현기	05840	윤지영	10872	최은영	30056	김영환
00484	유병규	01133	최주희	01919	유영식	02634	이환	05898	최형규	10913	민소영	30099	김진화
00499	김국환	01139	전성은	01935	김승호	02651	박주영	05930	이정현	10938	조창경	30105	정민우
00502	이경옥	01169	배해남	01943	신승용	02653	천승필	05938	김우진	10988	남상원	30121	김중현
00514	양동현	01173	한태권	01967	고대철	02660	정양대	05940	정찬호	10992	김성태	30227	황영호
00519	박승선	01191	서호직	01977	박승완	02666	성현주	05966	최종열	15361	김태선	30244	이성진
00520	권성환	01213	배원수	01981	김종서	02667	류금열	05994	이승복	15784	박임표	30309	강종구
00532	김종수	01217	고명철	01982	서재원	02675	전재하	06041	한광수	15802	전영배	30361	김종원
00533	김석영	01220	송주연	01984	윤우영	02700	김병희	06063	안문규	20008	박봉균	30381	김성중
00536	정재우	01226	홍은화	01992	양우영	02712	손정한	06071	김선우	20031	박한수	30383	김성호
00537	김정렬	01228	임성진	01994	이필규	02714	유영규	06166	이정우	20060	한호경	30393	노영규
00547	조항용	01229	정두영	02011	손재현	02740	김석원	06334	현동훈	20065	김은숙	30445	황민하
00550	이학본	01251	권기준	02082	김효진	02757	원금희	06347	김진영	20067	차상훈	30464	이등현
00554	양소정	01254	김정재	02084	이진수	02765	김상훈	06364	이황희	20084	이동직	30516	문성원
00566	박시영	01259	김영화	02099	조선복	02798	천경환	06366	김석면	20087	이준우	30605	임성수
00572	차중회	01281	이정의	02120	이남균	02829	신동일	06370	김은영	20104	한규홍	30731	허만수
00573	권진경	01285	이계은	02123	김종택	02838	한성기	06374	김한규	20106	최효실	30757	채종수
00576	고태현	01299	최영진	02129	김원섭	02888	박나현	06406	김상봉	20108	우현주	30759	박종복
00580	성주희	01323	박종훈	02150	김종욱	02889	이정현	06411	이현정	20113	김창진	30761	서정용
00581	안대호	01347	김민정	02165	김대용	02893	류현목	06470	임기택	20161	심대혁	30815	백진영
00582	황용연	01348	박윤미	02166	조인영	02896	이홍규	06471	황창석	20180	정세호	30836	서은숙
00589	문영희	01358	박광조	02185	강정원	02922	전부섭	06477	이현석	20185	김원준	34687	박용남
00598	김경만	01362	채수호	02209	강지윤	02960	최현주	06514	김광연	20206	황승법	35010	노병옥
00604	강영희	01369	안은희	02228	김재홍	02998	정미영	06518	신현보	20217	김용수	35103	김선태
00612	구자홍	01408	박경훈	02245	박영수	03045	이경하	06577	이정민	20221	이수정	35917	김학길
00624	김동욱	01421	이대우	02291	송상호	03144	박민철	06591	천홍철	20227	허재혁	40082	서민락
00625	오양섭	01452	이경용	02317	김철	03180	황완진	06631	김영일	20293	이해정	40133	서민락
00643	박구완	01474	황영근	02335	김양섭	03529	주경중	06633	권순우	20360	김혁두	40167	윤희원
00644	박도현	01478	김태용	02343	문승훈	03753	안광모	06637	윤동원	20362	이상완	40173	최주홍
00645	권순혁	01482	임석권	02358	윤근주	05015	김지현	06652	백충현	20428	김정환	40229	이홍열
00663	김성임	01483	김나미	02359	한세진	05019	이국중	06716	문진수	20435	이재철	40323	변상무
00675	엄호용	01488	임준현	02368	황창석	05036	박진건	06729	신명화	20442	김정민	40370	류세윤
00691	주정호	01499	신범석	02370	강동일	05037	김철중	06744	이준희	20469	제영록	40427	안승필
00716	임건우	01510	이현식	02371	이진오	05060	김유신	06794	노휘	20476	석진수	40558	한종필
00736	백수영	01511	이남해	02383	김보건	05069	염창선	06804	이해련	20495	신총학	40616	최정미
00747	김정숙	01537	강순구	02393	이승	05075	전병호	06830	이광기	20514	김태원	40650	이건표
00772	김기봉	01544	이종철	02396	박제환	05083	이준찬	06860	김남기	20526	박춘동	40656	김지호
00789	한종섭	01548	강문수	02410	한승철	05094	이하나	06868	임환기	20542	김영화	40804	김명진
00810	강종관	01551	안현주	02416	윤지선	05101	박성희	07293	김보경	20553	지창호	40876	최창환
00817	한진규	01561	김정숙	02426	윤윤진	05105	김희원	10077	이종현	20590	지현상	40883	조현호
00845	양철권	01586	선상범	02434	손병도	05137	윤도선	10095	민영미	20618	송재호	40887	정갑연
00847	이상민	01589	남태연	02446	백정상	05164	김경민	10120	이은경	20662	김원교	40892	정갑연
00851	이직현	01594	김주섭	02471	이연우	05201	경방현	10126	조성아	20663	임원호	40993	김재섭
00856	김남규	01618	이상현	02490	김중수	05208	이상범	10184	박행도	20674	김옥현	44549	김인태
00859	장영진	01623	박향수	02493	김시영	05222	이재홍	10191	이현기	20678	김영환	45068	김백
00870	이지은	01645	송신규	02500	유명환	05273	박정완	10242	박진홍	20679	김한진		
00879	이종문	01656	장재	02501	김병진	05332	홍종덕	10271	장지	20702	김방준		

제12회 이사회

2013년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12월 18일 오후 2시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회사항으로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후속 조치의 건과 부의안건으로 지역건축사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의 건,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 운영비 지원금 배분의 건, 2014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운영자금 일시차입의 건, 한국건축산업대전 미수금 결손 처분의 건,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협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후속 조치의 건
 - 회장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안)과 병합하여 이사회에서 심의(2014년 1~2월)하기로 함.
 - ▷ 2013년 12월 20일까지 회장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취합 후 병합 심의 준비

| 부의안건 |

- 제1호의안 : 지역건축사회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임원의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부칙에 다음과 같은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승인하기로 함.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자부터 시행한다.
 - ▷ 제2조(지역건축사회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에 따라 임원의 임기가 조정되는 경우 지역건축사회 임원의 임기 또한 개정된 정관과 같이 조정되는 것으로 본다.
- 제2호의안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 운영비 지원금 배분의 건
 - 금년도에는 16개건축사회 총회에서 이미 해당금액이 반영된 사항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1억5,000만원을 지원 배분하고, 2014년도에는 고등분담 차원에서 1억원 내외로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기로 함.
- 제4호의안 : 2014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일반회계 : 760,000,000원
 - ▷ 특별회계 : 1,216,000,000원
 - ▷ 계 : 1,976,000,000원
- 제5호의안 : 건축사시험관리회계 운영자금 일시차입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차입금액 : 40,000,000원
 - ▷ 상황조건 : 2014년도 응시수수료 세입 예산으로 원금 일시상환
- 제6호의안 : 한국건축산업대전 미수금 결손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결손액 : 8,794,000원).
- 제7호의안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위원회 개최 현황

제4회 법제위원회

제4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 제1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검토에 관한 건
 - 개정안에 동의함.
 - ▷ 공개공지와 조경이 건축물 현황도에 포함되는 것에 이견이 없음.
 - ▷ 건축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입면도, 단면도 등도 포함되도록 하는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관련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검토에 관한 건
 - 바닥 마감재로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 신설의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당장 시행에 문제가 있는 제도임을 건의하기로 함.
 - ▷ 건축물 설계시 마감재료의 마찰계수만 표기하면 되나, 각 제품에 마찰계수 표시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료 선정을 제약할 우려가 있음.
 - ▷ 감리에서는 매번 마찰계수 시험 결과표를 첨부해야 하나,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공기, 자재업체의 협조 등 어려움이 예상되며, 추후 사고시의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 현장시공 바닥재(석재, 페인트 등)의 경우 실제 마찰계수 측정에 한계가 있어 재료 사용이 불가할 경우도 예상됨.
 - ▷ 바닥마감재 생산관련 법령에서 제품의 마찰계수가 표시가 상용화된 이후 법이 집행되도록 건의 필요.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축적된 바닥마감재료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건축사사무소에 제공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제3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검토에 관한 건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과 관련 하여 모든 구조의 변경내용을 협력해야만 하는 규정은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의 범위를 주요 구조부의 변경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수정을 건의하기로 함.
 - 개정령안의 수정건의안 제1호와 제3호가 중복되어 개정령안 제3호의 삭제를 건의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에 관한 건
 - <조명철의원 대표발의 - 가스배관 및 설비 설치기준 관련>
 - 가스배관 및 설비 설치기준에는 이견이 없음.
 - 시행규칙에 정한 허가 신청용 설계도서목록이 법으로 개정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 ▷ 개정안의 첨부 도서내용 중 건축 설비도를 전기, 가스, 난방 등 건축 설비도로 개정해서 가스에 관한 도면작성을 법에 규정하려는 의도로 파악되며, 제63조의 변경내용도 온돌 및 난방설비를 가스·온돌 및 난방설비로 규정해서 가스도면을 법상에 정의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음.
 - 국토교통부도 반대의견 제출 예정.

〈김성곤의원 대표발의 - 범죄예방 설계기준 관련〉

-건축물의 모든 창호에 창금장치 등 방법시설 설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에 이러한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출키로 함.

●제5호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검토에 관한 건

-일부개정령안에 이견 없음.

●제6호 : 건축사법 개정안 사전 검토에 관한 건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TFT 진행과정 설명을 들었으며, 계속 모니터링하며 최종 개정안이 나오면 재검토키로 함.

●제7호 : 연구용역계획서 검토에 관한 건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되도록 법제위원회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검토키로 함.

-연구진행자자가 작성한 연구계획서의 검토를 시작으로 연구용역 진행과정 및 보고 과정의 중간결과물에 대해 추후 검토 및 논의키로 함.

●제8호 : 지식산업센터 발코니 확장에 관한 민원개선 제안서 검토에 관한 건

-지식산업센터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 법의 취지상 명분이 부족한 의견으로 자료되어, 타용도의 (예를들면, 오피스텔)발코니 확장 등 의견의 경우를 감안하면 제안하기전에 검토, 논의될 점이 많은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와 관련사항을 검토·협의키로 함.

●제9호 : 기타의 건

〈지진재해대책법 관련〉

-지진재해대책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계획수립시 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키로 함.

제2회 녹색건축소위원회(리모델링팀)

제2회 녹색건축소위원회(리모델링팀) 회의가 지난 12월 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그린리모델링사업 관련 기관 및 정보의 추세 확인의 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등록 관련〉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발주자를 그룹별로 모아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더불어 그린리모델링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일부의 자격자(사업규모별 자격기준은 다름)에게만 기회를 주는 유형으로 사업을 진행될 수 있음.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아님.(현재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이 우선돼야 할 것임)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수행자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다면 그 기준이 어떠한지 파악해야 함.

-〈새로운 사업유형〉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기존의 건축 관련 사업과는 달라 사업추진의 방식이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명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함.

●제2호 : 리모델링팀의 주요 업무범위 재확인의 건

-〈업무범위 재확인〉 리모델링팀의 주요 업무범위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한 그린리모델링 사업분야에서 건축사 참여확대 방안전략 및 창조센터와 협업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 아래 향후 리모델링팀의 팀 이름을 '그린리모델링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임.

-〈더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 녹색건축과가 생긴 이래로 계속 우리 협회에 호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 협회는 건축사의 참여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

●제3호 : 건축물의 건축신고제를 건축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 위한 적합한 방향에 대한 검토의 건

-건축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 마련은 장기적이고 복합적인(건축법, 리모델링의 정의, 실내건축 관련) 과제로서 법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할 것임.(대안: 새로운 TF팀을 개설하는 방안)

제3회 정책소위원회(정관 및 제규정)

제3회 정책소위원회(정관 및 제규정) 회의가 지난 11월 1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회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의 건

-회장직선제연구TFT에서 작성한 회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현 TFT 위원장인 한명수 자문위원으로부터 그간의 개정취지를 듣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함.

-해당 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 문구조정(권한대행사→직무대행사)만 하고 나머지는 회장직선제연구TF에서 작성된 안으로 이번 이사회에 협의사항으로 상정하기로 하며, 이후 회장직선제연구TF에서 회원의견수렴 등 관련 후속절차를 이행하기로 함.

제4회 정책소위원회(정관 및 제규정)

제4회 정책소위원회(정관 및 제규정) 회의가 지난 12월 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감사규정 개정의 건

-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제2호 : 윤리규약 개정의 건

-윤리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제3호 :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제4호 : 정관 개정의 건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제5호 : 광주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제6호 : 지역건축사회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의 건

-제4조 제2항에 명시된 지역건축사회 임원의 임기를 개정된 정관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

제5회 협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5회 협회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감사규정 개정의 건

-'수시감사' 명칭을 '특별감사'로 변경기로 함.

●제2호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징계결정사항에 영구제명을 신설하기보다는 정관을 개정하여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된 회원에 대해서는 입회 후 5년 경과한 후에 입회하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함.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윤리규약 및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중 이무열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변경하여 회의결과에 반영하기로 함.

□ 윤리규약 변경(안)

개 정(안)	변 경(안)
제6조 <삭제>	제6조 회원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회원은 자기의 업무 및 업적 또는 다른 건축사에 관하여 허위선전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은 사이버 공간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신공격·욕설·비방적인 글을 게재하여 협회의 위상 및 다른 회원의 명예를 극히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삭제(2004. 2. 26)	제12조 회원은 협회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협회의 명예훼손 또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관련 [별표 1] 변경안

개 정(안)		변 경(안)	
위반내용	징계구분	위반내용	징계구분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제재를 받았을 때, 사이버 공간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신공격·욕설·비방적인 글을 게재하여 협회의 위상 및 다른 회원의 명예를 극히 손상시켰을 때, 2년 이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정지 6월이상	3. 윤리규약 제11조를 위반하였을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제재를 받았을 때, 2년 이내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정지 6월이상
4. 업무수탁을 목적으로 분회 또는 지사 등을 설치 운영하였을 때 타인이 작성한 설치도서에 명의를 대여한 때	권리정지 9월이상	4. 업무수탁을 목적으로 분회 또는 지사 등을 설치 운영하였을 때	권리정지 9월이상

5. 윤리규약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특히 비열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과의 경쟁행위를 하였을 때 2년 이내에 2회 이상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의한 6월이상의 권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직무상 지극한 기밀을 외부기관에 공개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협회 위상을 크게 저해시켰을 때	권리정지 12월이상 또는 제명	5. 윤리규약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특히 비열한 방법으로 다른 회원과의 경쟁행위를 하였을 때 2년 이내에 2회 이상 회원징계결정기준에 의한 6월이상의 권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권리정지 12월이상 또는 제명
6. <신 설>		6. 윤리규약 제6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명

●제3호 : 협회 기밀성경비 예산집행 개선방안의 건

-기밀성경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규정을 보완하고, 홍보사업비 내에 기밀성경비인 법제도개선사업활동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건의하기로 함.

제7회 사업위원회

제7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3년 KAFF 개최결과 평가의 건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흡한 부분의 개선방안을 논의함.

●제2호 : 차년도 행사계획의 건

-차년도 행사일정과 조직구성을 검토하여 추진기로 함.

●제3호 : 건축자재추천TF 구성의 건

-사업위원장을 TF팀장으로 일임하며,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추진함.

●기타사항

-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누적미수금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손 처리토록 함.

제1회 특별사업(협동조합 및 연금) TF

제1회 특별사업(협동조합 및 연금) TF 회의가 지난 12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협동조합에 관한 건

-협동조합은 그동안 연구·준비·추진해온 한명수 위원장과 강희달 위원이 협동조합 결과물을 정리해서 함축 논의해 가기로 함.(관련자료를 최동일 실장이 취합 정리해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협회와 협동조합의 관계는 협회의 성장에 기여토록 효과적으로 묶는 방안으로, 협회와 조합 각 법인 간 관계 정립은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마련하고 조합이 협회에 대한 지원 발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해 가기로 함.

-전국 회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바, 조합 및 관련사항을 조속히 결정하여 설명회 등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지역마다 협회, 감리단, 조합 등을 각각 산발적으로 검토·추진하고 있어 분파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해나갈 수 있는 본 협회의 기준이 되는 협동조합이 절실.

●제2호 : 연금사업에 관한 건

-연금사업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복지를 위하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 시행은 가능하나 조합이 타인이나 외부를 상대로 연금 사업은 불가하므로 조합은 협회가 회원 복지를 위하여 연금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원기반을 조성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법적사항 등을 파악키로 함)

제3회 회관관리위원회

제3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협회 예식사업 임대사업자 선정의 건

-시설사용료에 대한 최고가격 제시와 회관의 특수성과 공공성이 최대한 최대한 보존될 수 있는 사업운영계획을 제안한 "신시아"를 1순위의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제2호 : 회관관리 2014년도 예산 심의의 건

-예산편성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음은 인정하나,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할 것.

●기타사항

-국제회의실 음향개선사항으로 우선 강사용 마이크를 구입토록 함.

제2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제2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0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APEC 등록건축사 신규등록 접수자 심의에 관한 건

-APEC등록건축사 신규등록 접수자(69명) 심의를 2013년 11월 27일(수), 오전 8시에 진행하기로 함.

▷심의위원 : 1조 김지덕, 박제유, 2조 이근창, 신춘규

●제2호 : 2014년도 APEC등록건축사관리회계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세출예산의 사업비 일부내용을 수정 반영토록 함.

▷APEC중앙이사회 참가경비를 당초 2인에서 3인 상당 금액으로 계상

▷APEC등록건축사 계속교육을 위한 1회 교육비 계상

▷APEC등록건축사에 관련 자료조사(번역 등) 비용 계상

●제3호 : APEC등록건축사 등록비 환불규정에 관한 건

-자격심사 전 접수취소는 전액환불이 타당하나 자격심사 후에는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함.

●기타사항

-APEC 등록건축사 유효기간 조정

▷APEC등록건축사 자격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신규등록과 등록갱신을 1년에 1번 진행하기로 함.

-Domain specific의 가이드 마련 검토

▷외국 APEC등록건축사의 상호인정 수준을 Domain specific으로 높이고자 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마련하여 협회, 정부와 협의할 필요 있음.(김지덕 위원장, 이근창, 신춘규 검토)

▷일반건축사와의 차별, 정부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 있음.

-APEC건축사대상 국제계약전문과과정 교육 추진

▷해외건설협회의 교육은 건설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엔지니어링협회의 교육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APEC등록건축사를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 후 교육여부를 검토.

김영수 회장, 'buildSMART Conference 2013'에서 기조연설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buildSMART Conference 2013'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빌딩스마트협회, (사)한국건설IT융합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건축사를 비롯해 건축사사무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BIM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이란 주제로 약 20분간 연설했으며, 국내외 BIM 정책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국내 건축 환경에 맞는 BIM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국내 건축시장에 BIM정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수 회장, '건축창의체험' 출판기념회 참석



김영수 회장은 지난 11월 15일 건축센터에서 열린 '건축창의체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연구·집필한 '건축창의체험'은 건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건축에 대한 상상력과 창의성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김 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축창의체험 교재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건축을 쉽고 친근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이러한 건축교육으로 우리 미래 건축계의 인재가 양성되고 건축문화 발전으로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영수 회장, FIKA 대표회장 이임식 가져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이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 임기를 마치고 이임했다. FIKA는 지난 12월 13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FIKA 대표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회'를 개최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회장은 이임사에서 "건축계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2017 UIA 세계건축대회'를 통해 건축계가 하나 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 취임하는 이광만 대표회장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지난 1년간 FIKA 대표회장으로 재임하며 FIKA 재단법인 추진, UIA조직위원회 구성 등의 활동을 했다.

필리핀건축사협회에 태풍 피해 지원

우리협회는 제11회 이사회에서 지난 11월 8일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미화 1만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건축사협회에 서신을 보내고 지원방안을 논의한 후 송금했다.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를 강타한 태풍 하이옌은 기상관측사상 최대인 순간풍속 시속 379km를 기록했으며, 그로 인해 4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웃사랑 성금기탁



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고봉규)는 6일 제주도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이다. 고봉규 회장은 "추운 겨울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모아 마련했다"며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남지역건축사회, 역사는 짧지만 활동은 왕성



하남지역건축사회(회장 김형곤)는 지난 6월 개소식을 가진 짧은 역사를 가진 지역건축사회지만 활동성은 남다르다. 개소식과 함께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하남시(시장 이교범)에 쾌척했고, 하남지역 무한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매달 '민생안정 후원회'에 소정의 후원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또 지난 6일에는 송년회를 간소화하고 절약해 하남시를 찾아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2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하남지역건축사회 회원들은 건축사로서의 본분인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질적 향상을 꾀하며 하남지역 도시미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솔선수범하고 건축사의 재능을 하남지역에 기부하는 문화를 정착하여 사랑이 필요한 곳에 연말 연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가 사랑을 나누는 하남지역건축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지역건축사회, '(가칭)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단' 발족 모임 가져



강남구지역건축사회는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시행과 관련해 11월 15일 강남구지역건축사회 사무국에서 '(가칭)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모임을 가졌다. 향후 점검단은 강남구청을 통해 건축물 유지·관리를 수주해 수행할 계획이다.

예산지역건축사회,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민·관 의기투합



예산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은 지난 11월 29일 예산군청 제1회의실에서 건축행정 업무 개선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예산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석규 도시건축과장 주재로 예산군 주요시책을 공유하고 지역건축사의 애로사항 청취,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법 및 건축조례 개정 방향 논의 등 다양한 건축행정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논의 및 정책수립 건의가 이뤄졌다. 간담회 후에는 예산건축사회와 예산군 간 2014년 소규모건축물 기술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지역건축사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건축 시 현장 방문 및 기술지도로 예산군 농촌 환경에 잘 어울리는 건축이 되도록 자문하는 시책이다.

건축계소식

제9회 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제9회 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경남통영 산양스포츠파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건축사 회원들이 참석해 평소 갖고 있던 축구기량을 선보였다.

양일간 전국 22개 팀이 토너먼트를 치른 결과 대구건축사축구동호회(회장 임준열/이하 대구동호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대구동호회는 예선을 5전 전승으로 통과하고 8강에서 울산, 4강에서 충북, 결승에서 서울 송파건축사축구동호회와 혈전 끝에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와 함께 대구동호회는 이번 대회에서 MVP(김세구 건축사), 야신상(이대희 건축사), 최고감독상(최종춘 건축사)까지 주요부문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 히말라야 트레킹 인원 모집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가 오는 2016년 창립10주년 기념으로 히말라야 트레킹을 준비하고 있다. 트레킹 일시는 2016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7박 8일이며, 네팔의 안나푸르나(4,130m)를 등반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240만원(2013년 기준)이며, 선착순 20명 내외로 참가희망자를 받는다. 이번 트레킹을 위해 등산동호회는 네팔건축사회와 합동산행을 검토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등산동호회 카페(cafe.daum.net/kiramountain)를 참조하거나 트레킹추진위원장인 조병섭 건축사(010-9359-9526)에게 문의하면 된다.

대한건축학회 교육원 '세 번째 건축이론아카데미' 개최

2011년부터 '건축이론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건축학회 교육원의 건축이론아카데미는 건축이론의 확장과 심화에 기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4년 1월에 세 번째 '건축이론아카데미'를 한 달 동안 총 5개의 강좌로 진행한다.

- 일시 : 2014년 1월 2일(목)~1월 29일(수) 늦은 7시~9시
- 장소 : 건축센터_ 서울 서초구 효령로 87(방배동 917-9) 6층 또는 강당(B1)
- 신청대상 : 회원 및 비회원 등 건축이론에 관심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등록방법 : 학회 홈페이지(www.aik.or.kr)를 통한 전산등록
- 관련문의 : 사무국 이강민 차장(02-525-1841 내선 204)

국토교통 R&D 평가위원 모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국가 R&D사업의 기획·관리·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R&D예산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내실화 도모와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정착을 위하여 평가위원 풀을 보완하고자 '국토교통 분야 국가 R&D과제의 평가위원, 자문위원'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1월 10일(금)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에서 참조하거나 담당자(flowerinmind@kaia.re.kr, 031-389-6408)에게 문의하면 된다.

제3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어린이 체험시설 '산청울수원' 수상



대상수상작 '산청울수원'

제3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에서 어린이 교육 및 체험시설인 산청울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구랍 20일 오후 2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2013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건축 부문, 한옥계획 부문, 한옥사진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심사 결과 건축 부문 3개, 계획 부문 18개, 사진 부문 44개 작품이 당선됐다.

영예의 1위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은, 건축 부문에서는 (주)재능교육이 어린이 교육 및 체험시설로 건립한 「산청울수원」이 수상했으며, 계획 부문에서는 한옥단지에서 쇠퇴되어 가는 마당을 현대적 공간 기능으로 수용·설계한 「잠원」이 수상했다.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의 담장길을 정감 있게 표현한 「토담길의 한옥」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이왕기 목원대 건축학부 교수)은 "건축·계획 부문의 경우 한옥 고유의 가치와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잘 접목시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통해 한옥의 가능성을 표현한 작품을 선정했으며, 사진 부문에서는 한옥의 멋과 일상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신간안내

지속가능한 실내디자인

Penny Bonda, Katie Sosnowchik 공저, 한영호, 김경숙, 여현아 공역 | 306쪽 | 기문당



환경디자인의 임무를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성이라는 주제를 이해시키고 더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는 저자는 최근 환경오염에 따라 지진과 해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해 『지속가능한 실내디자인』에서는 '지속성'을 주제로 삼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디자인의 가치를 담고자 했다.

전형적인 실내디자인과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차이를 설명해, 관련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지속가능한 건설부지, 물의 효율성, 에너지 이슈, 실내 환경의 품질로 나눠 디자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문화유산의 수복이론

체사레 브란디 지, 최병하 역 | 258쪽 | 기문당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저자가 번안한 이 책은 문화재 수복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한 보존 논쟁에서 주요 의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개념들, 그리고 보존·수복에 대한 수복가와 보존과학자가 수복의 실제 작업에 앞서 무엇보다도 실제적인 작업방법과 사용도구 등에 대해 또는 자신들의 사명과 윤리, 목적에 대해 숙고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 있다.

브란디의 이 책은 수복이론의 학술적 유효성은 물론 모범적인 참고문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럽의 문화유산 보존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단연 필독해야 할 책이다.

한국의 뜰집

조성기, 유재우, 김경희, 김미나, 박윤금, 권영민 공저 | 340쪽 | 기문당



뜰집은 전통 상류주거의 한 표본으로서 학계에서 다양한 관심을 받아왔고, 한국 최대, 최고의 건축문화적 유산이다. 지금은 주로 경상북도 안동지역 일대에 많이 남아있고, 현재에도 생활을 담은 주거로서 지속되고 있고 살아있는 한국의 자랑스런 주택유형이다. '우물집', '모자집' 등으로 불리는 뜰집은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부속채가 안뜰을 중심으로 모자 형태의 한 채로 결합되어, 지붕의 조형미,

칸의 구조미, 하늘과 땅으로 열린 공간감, 생활의 지혜가 오롯하게 담겨 있다.

이렇듯 뜰집은 한국적인 조형미와 함께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문화적 정신이 담겨있는 독특한 주택유형이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어, 이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전승해야 할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체계화시키고자 발간했다고 한다.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3년 우수저작 및 출판지원 사업으로 선정됐다.

글. 장영호 Jang, Yeong-ho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편집팀



1970년, 월간 ‘건축사’ 격월간에서 월간체제로 전환

월간 ‘건축사’는 1966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격월간으로 발행돼 오다 1970년 제17호를 기점으로 월간체제를 선언한다. 한창진 전 우리협회 고문이 1970년 1월부터 10월까지 편찬위원장을 역임하다 후임으로 11월부터 서정달 편찬위원장이 역할을 하게 된다.

한창진 편찬위원장은 ‘건축사편집 10개월’이라는 글에서 “격월간의 예산으로 월간을 감행했고, 회지의 기반과 진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하면서 논의를 거듭했다”고 그간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또 서정달 편찬위원장은 회지의 참신한 내용과 새로운 체제 및 발전을 위해 70년대 전호에 걸친 내용별 통계, 타 기관 잡지들과 내용별 통계를 내 비교·분석하기도 했다.

1970년, “건축사”회지 편집계획(안)

편찬위원장 서정달

건축사 회지의 참신한 내용과 새로운 체제 및 그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연구한 앞으로의 편집 계획(안)을 기술하고자 합니다.

본 편집계획을 위하여 본 건축사의 70년도 전호에 걸쳐서 내용별로 통계를 뽑아 보았으며 타기관들의 잡지들과 내용별 통계로 비교를 해보았고 그 장단점을 찾아내어 앞으로 회지 편집에 많은 보조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편집계획과 내용별 비교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지 편집의 기본 원칙

회지는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회원의 회지여야 한다.

- (1) 회지는 회원의 건축지식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2) 회지는 회원의 실무활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3) 회지는 회원의 교양과 정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4) 회지는 회원간 친화에 교양이 되어야 한다.
- (5) 회지는 협회의 대변자여야 한다.

회지 편집 내용 종합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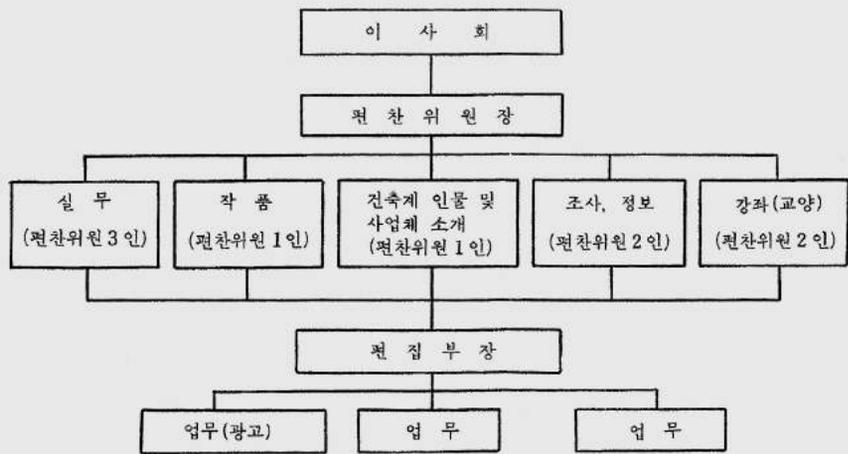
내용	회지	제 2 호	제 3 호	제 4 호	제 6 호	제 7 호	제 8 호	제 9 호	제 10 호	계	백분율
총페이지	표지포함	84	76	76	76	76	102	102	76	668	%
광고		12	11	10	11	11	13	13	13	94	14.0
이달의 작품		18	15	13	7	7	14		21	88	13.1
특집					22	35	13	31		101	15.1
70년대 작가		12	20	28	17	17	27	37	12	164	24.5
건축지식및교양	국내	7	5	5	5		3	10	13	국내48	7.1
	국외	13	5	14	10	7	13	3		국외65	9.7
조사정보		15	15	7					12	49	7.3
뉴스	스	2	4	2	2	3	3	1	3	20	2.9
기타	타	5	1	3	2	3	6	7	2	39	6.3



편집 계획 (대별 계획안)

1. 화 보
2. 권두언 및 축사
3. 논 단
4. 작 품 : (1) 국내 건축계 (작품 1)
(2) 국외 건축계 (작품 1)
: (1) 국내 건축 (실제건물)
(2) 국외 건축 (실제건물)
5. 지 부 소 식 (순례)
6. 조 사 정 보 (각종 자료, 국내, 외편)
7. 교 양 : (1) 건축 교양
(2) 일반 교양

회지 발행 편성표



‘공사감리 실시’ 건축법 개정



한창진
前 우리협회고문

1970년 건축법내 불합리한 비현실적인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건축법개정안이 작성돼 국회건설전문위원회에 제출된다. 골자로는 건축물 공사 시에 공사감리자를 두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다. 산업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성장과 건축물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970년 1월 1일 건축법 개정을 통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에 의한 감리를 의무화하고, 건축사보를 통한 상주공사감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창진 건축사는 '1970년 건축계의 이런 일 저런 일'을 주제로 한 지상좌담회에서 공사감리 실시에 대해 "설계의도를 구현시키고, 시방서와 계약조건에 합치된 공사시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라던 바지만, 한편으로는 건축사에게 무거운 책임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있음을 경계하면서 "안이한 적당주의는 뜻밖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공자의 빈축을 살 수도 있고 건축주의 불신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는 43년이 지난 현재 협회가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 문제점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건축주의 위법시공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 점, 감리제도가 소수의 사업자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략된 점 등이다.

國展에서 건축부문 제외, 범건축계 건축공모전 마련 움직임

건축학도 요청에 의해 협회전 성격의 '신인건축전' 개최

1956년 제5회 국전 때부터 신설된 건축부문이 출품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1970년 문공부에 의해 제외된다. 이때까지 젊은 건축학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 공모전은 국전뿐이었기 때문에 문공부의 이러한 결정방침은 건축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준다. 이에 따라 건축계 내에서는 건축학도들의 요청으로 젊은이들의 공모전이자 협회전 성격의 '신인건축전'을 마련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관계없이 건축계 내에 국전보다 더 훌륭한 건축전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건축단체 간 협력·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본격 제기된다. ㉮

해외건축동향

글. 김은미_ Kim, Eun-mee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조교수



자가회복이 되는 코니 아일랜드가 되는 것을 돕는 방조제 계획(뉴욕 시청)

자가회복력과 지속가능성

Resiliency & Sustainability

일 년 전 슈퍼 폭풍 샌디는 가능하기 어려운 해수면의 상승 및 미국 북동부 지역과 대서양 연안 동부 지역에 확실히 체감되는 기후 변화를 가져 왔다. 특히 뉴욕과 같은 복잡한 도시에게는 이러한 잦은 범람과 침수 전망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위협적인 것이다. 이후 뉴욕 주민들은 회복이 가능한 도시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지어질 수 있는지 조사를 하고 제안안을 만들어 보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뉴욕의 “디자인 커뮤니티” – 특히 건축사와 조경 전문가 – 는 PlaNYC(2007년 블룸버그 시장 재임 시 만든 도시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준비한 계획)와 다른 블룸버그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로젝트 참여 이후 이러한 이슈를 고심하여 잘 준비되어 있었다.

이 디자인 커미티는 이 정도의 도시와 개별 건물의 규모에서 자가 회복력의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아직도 고심 중이며, 어떻게 자가 회복성이 지속 가능성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다.

하지만 자가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과의 밀접한 연계를 깊게 논의하게 될 때 에너지 효율성과의 연결성 부분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기후 변화의 위협은 하루하루 지나며 더욱더 지금 당장의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런 관련 뉴스는 사실 모두 나쁘지는 않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 가스를 만들어 내는 미국은 사실 그 반환점을 돌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탄소 배출량은 눈에 띄게 감소되었다. 미국 에너지 정보기관 에너지 부서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의 탄소 배출량은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수치가 떨어지게 된 요인으로는 가스 마일리지와 발전소 탄소 배출에 대한 중요 규정의 변화(석탄발전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과 재사용이 가능한 설비로의 신속한 전환 등) 등 많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통의 미국인들 또한 운행 거리를 줄이는 운전습관을 가지도록 스스로 변화하였고, 소형차를 사고, 더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고, 보행 친화적인 마을 안의 작은 집에 살며, 대중교통을 더욱 자주 이용하는 변화가 있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는 그들의 집과 기관들의 건물을 새로운 그린 빌딩으로 만들기 위한 보수와 기계 장착 등이 이루어졌다. 이 모두를 합쳐 생각해 보면, 이러한 노력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의미있는 영향과 기여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것은 탄소 배출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고 더욱 영리한 규정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인센티브로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을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예방 대 적응 또는 지속 가능성 대 자가 회복력의 논쟁으로 다시 눈을 돌리게 한다. 계속 변하는 해안선과 최악의 기후 변화로 올 극한의 기후 패턴인 이 상황은 자가 회복력에 대한 좁은 이해라는 위험한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수문을 충분히 확보하거나, FEMA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 의 지도를 개정하거나 해안선 습지를 복원한다든지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장치들은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노력을 기반으로 하나씩 이루어가야 할 사항이다. 마치 새로운 커뮤니티를 세우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기후 상황을 인식하여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에너지 효율적인 진정한 자가 회복력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현존하는 grey infrastructure(콘크리트 구조물 위주 환경) 위에 새로운 녹색 환경을 최대한 확보하여 잘 조성하고, 그와 동시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빌딩을 설계하고, 이용하며 생활해야 할 것이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3년 11월말

구분 건축 사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합 계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6,139	6,139	83	166	8	27	6,230	6,332	1,774	1,774	232	464	60	180	28	112	13	88	2,107	2,618	8,337	8,950
서울	974	974	20	40	1	6	995	1,020	894	894	122	244	42	126	13	52	9	54	1,080	1,370	2,075	2,390
부산	532	532	9	18	2	6	543	556	118	118	28	56	2	6	2	8	1	7	151	195	694	751
대구	522	522	18	36	4	12	544	570	71	71	14	28	4	12	2	8	0	0	91	119	635	689
인천	288	288	3	6	0	0	291	294	63	63	7	14	1	3	0	0	0	0	71	80	362	374
광주	224	224	1	2	0	0	225	226	43	43	5	10	2	6	3	12	0	0	53	71	278	297
대전	266	266	6	12	0	0	272	278	33	33	8	16	3	9	2	8	1	12	47	78	319	356
울산	201	201	4	8	0	0	205	209	21	21	3	6	0	0	0	0	0	0	24	27	229	236
경기	864	864	2	4	0	0	866	868	256	256	16	32	3	9	2	8	0	0	277	305	1,143	1,173
강원	200	200	2	4	0	0	202	204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30	237
충북	227	227	2	4	0	0	229	231	41	41	3	6	2	6	2	8	1	9	49	70	278	301
충남	296	296	1	2	0	0	297	298	61	61	6	12	0	0	1	4	0	0	68	77	365	375
전북	270	270	5	10	0	0	275	280	29	29	4	8	1	3	0	0	0	0	34	40	309	320
전남	214	214	0	0	0	0	214	214	25	25	2	4	0	0	0	0	1	6	28	35	242	249
경북	423	423	4	8	1	3	428	434	40	40	5	10	0	0	0	0	0	0	45	50	473	484
경남	498	498	5	10	0	0	503	508	38	38	5	10	0	0	0	0	0	0	43	48	546	556
제주	140	140	1	2	0	0	141	142	16	16	2	4	0	0	0	0	0	0	18	20	159	162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 원	
	건축사	비 율
합 계	8,950	100%
서울	2,390	26.70%
부산	751	8.39%
대구	689	7.70%
인천	374	4.18%
광주	297	3.32%
대전	356	3.98%
울산	236	2.64%
경기	1,173	13.11%
강원	237	2.65%
충북	301	3.36%
충남	375	4.19%
전북	320	3.58%
전남	249	2.78%
경북	484	5.41%
경남	556	6.21%
제주	162	1.81%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2013년 12월중순

구 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11,796	2,267
서울	3,768	1,540
부산	752	78
대구	674	47
인천	375	6
광주	299	44
대전	353	40
울산	233	27
경기	1,426	93
강원	255	17
충북	321	61
충남	378	54
전북	341	24
전남	278	53
경북	485	24
경남	588	41
제주	163	31
기 타	1,107	87
비 고	회원 : 8,724 / 비회원 : 3,072	대학 : 2,053 / 대학원 : 214

대한건축사협회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 계	비 고
회원수	6,332	2,618	8,950	
비율	70.75%	29.25%	100%	
사무소수	6,230	2,107	8,337	
비율	74.73%	25.27%	100%	